Session
3

9주제 I

진로/진학

고등학생의 직업가치의 잠재프로파일과 영향요인 분석

계진아*·이민욱+**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직업가치를 유형화하여 유형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여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업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내용 구성에 기초자료 제공 및 실천적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년 데이터의 중1 코호트의 5차년도에 응답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252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잠재프로파일 유형화를 실시하고,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직업가치에 따른 4개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과 안정 중시형(11.9%)',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50.4%)', '직업가치 무관심형(4.4%)',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33.3%)'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은 성적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요인으로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활동 요인으로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 등 9개의 진로활동이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명료화를 위한 진로교육, 성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 자녀와의 긍정적 대화를 돕는 부모교육,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별 진로활동의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KCYPS2018, 고등학생,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분석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인천대학교, wook0623@inu.ac.kr

Ⅰ. 서론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수행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2)에 따르면 고등학생 중 72.8%가 희망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고등학생이 희망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9년 이후 희망직업이 있는 고등학생의 비율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희망직업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희망직업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강점)과 못하는 것(약점)을 몰라서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7%, 18.3% 높게 나타났다(김민경 외, 2022). 반면, 희망직업이 없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7.1%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비추어 볼 때, 학생들에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흥미, 장·단점 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직업가치(work value)라고 할 수 있는데,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 또는 직업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지를 나타내고 일의 의미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김정숙, 2006; 임은미, 2010; Rounds & Jin, 2013). 또한 직업가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표로도 볼 수 있으며, 직업의 선호나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선택 및 전생에 진로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정숙, 2006; 임은미, 2010; Abessolo, Rossier & Hirschi, 2017; Rounds & Jin, 2013).

진로선택에 있어 직업가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진로선택에 앞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직업선택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 직업이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직업가치에 따라 개인이 결정하는 직업 유형 및 직장 선택의 폭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직업인으로 첫걸음마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건전하고 긍정적인 일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며(이지연, 2006), 청소년 시기의 진로지도는 직업가치에 대한 탐색과 명료화 작업을 통해 개인이 직업을 통해 추구하려는 가치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김정숙, 2006).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가치를 유형화하고(김정숙, 2006; 박민지, 이신혜, 2017; 임은미, 2010),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거나(김정숙, 2006; 김현미, 임은미, 2012; 박민지, 이신혜, 2017) 또는 직업가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등(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어윤경, 2009; 이지연, 2006; 임언, 박보경, 현진실, 2012; 임은미, 2010) 직업가치 유형화와 더불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와 직업가치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졌

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직업가치를 내적-외적 가치로 구분하거나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직업가치의 변화를 탐색하거나 각 요인별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직업가치와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유용하지만 직업가치의 특정요인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확인하기 어렵고(김정숙, 2006), 내적 직업가치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질수록 외적 직업가치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어윤경, 2009)는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가치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의 수준에 주목하여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여러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직업가치는 성별, 성적, 삶의 만족도와 부모님의 특성, 그리고 진로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학력,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진로지지 등이 높을수록 직업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숙, 2006; 김현미, 임은미, 2012; 박민지, 이신혜, 2017; 안수민, 김희화, 2018). 또한 청소년의 진로활동도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고등학교 시기의 직업체험활동이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박민지, 이신혜, 2017). 그러나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진로활동의 경우 진로상담, 진로관련 검사, 진로체험, 진로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진로활동 유형이 존재하므로 어떠한 진로활동 유형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요인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인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하여 각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내 어떤 특성이 있고, 집단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영향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직업가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유형별로 진로활동이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업가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내용 구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실천적인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직업가치는 어떠한 잠재유형으로 분류되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은 무엇인가?
넷재,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활동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가치

가치(Value)란 사람들의 행동을 선택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표이며 개인의 동기 및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Schwartz, 1992; Ros, Schwartz & Shoshana, 1999). 직업가치(Work Value)는 가치를 직업 장면에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직업 선택 과정과 사람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일을 하는 이유와 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bessolo, Rossier & Hirschi, 2017; Ros, Schwartz & Shoshana, 1999; Rounds & Jin, 2013).

Super의 전생애, 생애공간 이론(The Life-Span, Life-Space Theory)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성장기와 탐색기로 자신의 강점, 흥미, 능력, 가치 등의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직업적 자기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를 위한 교육적, 직업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Hartung, 2013).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흥미는 가치가 발현된 것으로, 가치에 따라 다양한 흥미와 연결될 수 있다(Super, 1995; Rounds & Jin, 2013에서 재인용). 또한, 직업가치의 인식수준이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향적 진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Jackson & Tomlinson, 2019),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 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애, 최웅용, 2008). 또한 직업적응이론에서는 직업가치가 직업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어, 자신의 직업가치와 업무와 일치할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성욱, 이승구, 2009; Dawis & Lofquist, 1984; 박은규, 조아름, 2022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직업가치를 알아보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초등 및 중고등학교등 및 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 현황 및 학생들의 진로인식을 살펴보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은 희망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외, 2022). 오해섭과 문호영(2020)는 청소년에게 직업 선택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을 조사하였고, 자신의 적성과 경제적 수입, 그리고 자신의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의 경우 경제적 수입을 여성은 자신의 적성을 1순위로 응답하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청소년이 일관되고 중요시하는 직업가치는 능력, 발휘, 보수, 발전 및 나눔인 것으로 나타났다(임언, 박보경, 현진실, 2010; 임은미, 2010).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일관되게 중시하는 가치는 능력 발휘,

보수, 발전성 순으로 나타났고(임언 외, 2010), 청소년의 직업가치의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발전과 나눔을 추구하는 가치가 5년 연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임은미, 2010). 또한 직업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내적 직업가치관은 학년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외적 직업가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지만(선혜연 외, 2009; 어윤경, 2009), 내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외적 직업가치의 감소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어윤경,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수행되었는데, 직업가치가 진로와 관련된 변인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 중 내재적 가치는 직장만족도와 직무적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오성욱, 이승구, 2009), 직업가치는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준비 간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신영, 김종임, 2017; 정영해, 강희순, 김정숙, 2012; 최규환, 2013; 최보영, 2013).

이렇듯 직업가치는 일에 대한 의미와 함께 일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진로선택 및 진로준비활동을 포함한 진로의 발달과 더 나아가 직업적응에 있어 직업가치를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직업가치 유형

청소년의 직업가치는 유형화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째 직업가치를 내재적, 외재적으로 구분한 연구,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 내외의 요인으로 구분한 연구,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잠재집단으로 유형화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가치는 일반적으로 내재적, 외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재적 가치는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봉사, 자아실현 등이 있고, 외재적 가치는 일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으로 임금, 안정성 등을 의미한다(어윤경, 2009; 임은미, 2010; Jackson & Tomlinson, 2019). 내재적, 외재적으로 직업가치를 분류한 연구를 살펴보면 내재적 가치에는 사회에 대한 봉사, 다양한 업무 기회, 업무 자율성, 개인적성 일치 등이 포함되며, 외재적 가치는 높은 임금, 권력, 사회적 명예, 시간 여유, 직업안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선혜연 외, 2009; 어윤경, 2009; 이지연, 2006).

두 번째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직업가치를 구분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숙(2006)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직업가치의 요인을 4가지로 추출하였고, 직업가치를 다양한 일을 하고, 새로운 시도의 기회 자유재량권을 포함하는 내적보상, 높은 임금, 권력, 사회적 명예를 포함하는 외적보상, 시간적 여유, 환경 안정성을 포함하는 여가 안정성 보상, 사람들과의 만남, 사회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는 이타적·사회적 보상으로 구분하였다. 임은미(2010)의 연구에서도 김정숙(2006)의 결과와 비슷한 업무자율성, 사회적 성취, 여유와 안정, 발전과 나눔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직업가치를 유형화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박민지와 이신혜(2017)는 직업가치를 안정성·시간여유, 적성·자율성·관계, 수입·명예·기여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잠재프로파일 유형화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4가지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여 전반적 고중시형, 적성·안정 중시형, 전반적 중시형, 내적보상 경시형 4가지로 명명하였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직업가치를 요인화 하지 않고 문항을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였다. 김미옥과 조아미(2018)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2개의 직업가치 개별문항을 잠재프로파일 유형화 구분변인으로 투입하여 4개의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잠재프로파일은 자율중시형, 안정중시형, 저인식형, 고인식형으로 나타났다. 박은규와 조아름(2022)은 대졸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가치를 유형화하였는데, 13개의 직업가치 요인을 투입하였고, 5개의 잠재프로파일(전반적 저인식형, 안정적 보상추구형, 가치고민형, 전반적 중시형, 안정지향형)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직업가치 유형화 방식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나 모든 연구에서 요인으로 묶어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반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직업가치를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문항으로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세분화된 직업가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도 직업가치를 보다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를 개별 요인으로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직업가치의 영향 요인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특성, 가정특성, 진로활동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개인특성으로 성별, 학생의 교육포부수준에 따라 직업가치에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내적보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높은 임금 및 지위, 명예, 내적보상, 여가안정성, 이타적·사회적 보상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숙, 2006). 또한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적,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등이 나타났다(박민지, 이신혜, 2017).

청소년의 직업가치에는 부모님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데, 우선 부모님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직업가치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님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직업가치의 중요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김정숙, 2006), 부모님의 양육방식과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 역시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지, 이신혜, 2017).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변화는 직업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직업가치 중 여유와 안정, 발전과 나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임은미, 2012).

마지막으로 중등학교 시기의 진로활동이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활동이란 청소년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진로수업, 진로관련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진로교육법 제2조).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혹은 교외에서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활동은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진로성숙, 진로결정 등 진로와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미소, 2019; 김재희, 2019; 김형란, 김석우, 배가나, 2022; 오헌석, 배진현, 이상은, 장현진, 2010; 임현정, 김난옥, 2011; 정주연, 이지혜, 2021). 중등학교 시기의 체험활동은 내적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체험활동의 참여 여부가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박민지, 이신혜, 2017).

진로활동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박민지와 이신혜(2017)의 연구를 통해 직업체험활동의 참여 여부가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형별 직업체험활동의 영향을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진로활동은 교과 수업,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학생들의 참여 현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김민경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활동 유형별로 직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2018의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직업가치를 유형화하고 직업가치 유형화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5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학생이다. 5차년도 조사 참여자는 총 2,252명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1,202명(53.4%), 여성 1,050명(46.6%)이며, 재학중인 학교 유형은 일반고등학교가 1,808명(80.3%), 자율형 고등학교 107(4.8%),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체육계는 33(1.5%), 과학·외국어계열 24명(2.1%), 마이스터고 26명(1.2%)이었으며, 특성화고등학교는 203명(9.0%), 기타학교 7명(0.3%)과 무응답 21명(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학생 수(n=2,252)	비율(%)
성별	남성	1,202	53.4
	여성	1,050	46.6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등학교	1,808	80.3
	자율형고등학교	107	4.8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체육계열	33	1.5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외국어 계열	47	2.1
	특수목적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26	1.2
	특성화 고등학교	203	9.0
	기타학교	7	0.3
	무응답	21	0.9

2. 분석 변수

1) 잠재프로파일 유형화 구분 변인

본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이 응답한 희망직업 선택 요인 12개를 직업가치의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보고 12개의 응답을 통해 직업가치를 유형화하였다. 각 12개의 문항 각각의 독립적인 직업가치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각 문항에서 나타난 직업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2점, 중요한 편인 경우 3점, 매우 중요한 경우 4점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2. 직업가치 문항과 평균

번호	문항 내용	척도
1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중요한 편이다. 4= 매우 중요하다.
2	수입(임금)이 많다.	
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4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5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6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7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8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9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10	직장 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11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1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 영향 변인

직업가치의 12개 문항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한 후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직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성적, 부모님과의 관계, 직업체험활동 등이 있었으며(김정숙, 2006; 김현미, 임은미, 2012; 박민지, 이신혜, 2017),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으로 성별과 성적 만족도, 가족 요인으로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빈도와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를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직업체험활동으로 진로활동의 각각의 개별 활동을 영향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코딩하였으며, 성적 만족도는 지난학기 학교 성적에 대해 개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5점 리커트(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6번 응답으로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이는 결측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는 각각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대상과 대화하는 빈도로 5점 리커트(1번: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 4: 자주 대화한다.)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8번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결측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체험활동은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진로활동 경험여부로 총 16가지의 활동에 대해 각각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참여한 경우 1로 코딩하였다.

표 3. 직업가치 문항과 평균

구분	요인명	척도
개인	성별	남성=0, 여성=1
	성적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가족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	1=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가끔 대화한다, 4=자주 대화한다.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진로 활동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한 적 없음 = 0 참여한 적 있음=1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학업 설계 워크숍	
	현장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 실무체험	
	진로캠프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직업박람회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Mplus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과, 3단계 접근법 분석을 시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개인간의 유사성과 이질성에 중점을 두고 동질성을 갖은 하위집단을 유형화하는 방법이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개의 집단부터 집단 수를 늘려가며 통계적 기준을 토대로 자료에 가장 부합하는 모형을 선택한다. 잠재프로파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계적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우선 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의미하는 Entopy값을 활용하여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분류가 정확한 것을 의미하여 .8 이상인 경우 높은 수준의 분류, .6 이상인 경우 중간 수준의 분류를 의미한다(Clark & Muthén, 2009). 다음으로 정보지수를 확인하는데, 정보지

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w Adjusted BIC)를 사용하며, 정보지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임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비교검증 지수를 확인하는데, 이는 집단의 수를 늘려가며 k개의 집단과 k-1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것으로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와 MLRT(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통해 확인한다. 통계적 검정에서 p값이 유의한 경우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채택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잠재프로파일 개수 선택을 위한 한가지의 통계적 기준이 없으므로 다양한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분류율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직업가치에 따른 유형화를 한 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3단계 접근법은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잠재변수와 독립변수의 관련성을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달라져도 잠재프로파일 추정이 달라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윤소진, 홍세희, 2022).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잠재계층 구분을 위한 직업가치 변수만 투입한 기본모형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잠재계층 사후확률분포를 기준으로 각 개인이 속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계층을 추정하고, 분류오류 가능성을 계산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분류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하여 영향요인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고등학생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4〉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53.4%, 여성은 46.6% 이고, 성적 만족도는 평균 3.10점(표준편차: .87)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 수준은 각 3.02점(표준편차: .81), 3.41점(표준편차: .70)으로 가끔 대화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활동 참여의 경우 전반적으로 50%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약 53%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진로와 직업 수업(약 42%)', '진로 관련 상담(약 41%)'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학업 설계 워크숍(약 6%)', '현장 직업체험(약 9%)', '직업 실무체험(약 4%)', '진로캠프(약 5%)', '직업박람회(약 7%)'로 경험한 경우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영향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빈도(명)	비율(%)
개인	성별	남성	1,202	53.4
		여성	1,050	46.6
	성적 만족도*		3.10	.87
가족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		3.02	.81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3.41	.70
진로 활동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937	41.6
		미참여	1,315	58.4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참여	656	29.1
		미참여	1,596	70.9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참여	1,201	53.3
		미참여	1,051	46.7
	진로 관련 상담	참여	913	40.5
		미참여	1,339	59.5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참여	427	19.0
		미참여	1,825	81.0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참여	551	24.5
		미참여	1,701	75.5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참여	486	21.6
		미참여	1,766	78.4
	학업 설계 워크숍	참여	138	6.1
		미참여	2,114	93.9
	현장견학	참여	280	12.4
		미참여	87.6	1,972
	현장 직업체험	참여	207	9.2
		미참여	2,045	90.8
	직업 실무체험	참여	91	4.0
		미참여	2,161	96.0
	진로캠프	참여	117	5.2
		미참여	2,135	94.8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참여	243	10.8
		미참여	2,009	89.2
	직업박람회	참여	149	6.6
		미참여	2,103	93.4
	진로 관련 책/잡지	참여	428	19.0
		미참여	1,824	81.0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참여	428	19.0
		미참여	1,547	68.7

주 1) 별표 표시: 평균과 표준편차 제시
2) 성별만족도 결측 26명,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 결측 70명,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결측 40명

고등학생의 직업가치의 기술통계는 〈표5〉와 같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은 12가지 직업가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중 고등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수입(임금)이 많다(3.28점)'이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3.18점)',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3.17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3.1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가치는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2.79점)'이며,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2.90점)'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2.99점)'도 평균 3점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5. 직업가치 기술통계 (n=2,252)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3.13	.74
2	수입(임금)이 많다.	3.28	.80
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2.90	.79
4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2.79	.80
5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3.18	.78
6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3.17	.77
7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3.13	.78
8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3.08	.77
9	여러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2.99	.76
10	직장 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3.02	.75
11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3.12	.73
1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3.12	.76

2. 직업가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1) 잠재계층 유형

고등학생의 직업가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파일을 2개부터 6개까지 증가시켜 분류의 질,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 결과를 비교하고 분류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첫 번째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값을 살펴보면, Entropy 값은 2개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개 집단, 4개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잠재계층이 5개로 늘어나며 Entropy 값은 줄어들었지만, 잠재계층이 6개일 땐 Entropy값이 5개 집단일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값은 모든 집단에서 0.8 이상으로 나타나 6개의 모형 모두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지수 비교 결과 AIC와

BIC, SABIC 모두 잠재집단 수가 커질수록 감소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이 3개일 때부터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세 번째로 모형검증 비교 결과 LMR LRT와 BLRT값이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6개 집단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간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류율과 해석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분류율을 검토한 결과 잠재프로파일 개수에 따른 집단의 분류 1% 미만인 집단은 없어 우연에 의해 나타난 집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집단별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6.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분류의 질	Entropy	0.947	0.876	0.866	0.814	.831
정보지수	AIC	55526.020	52397.747	51516.806	51103.6	50703.586
	BIC	55737.644	52683.725	51877.139	51538.288	51212.628
	SABIC	55620.089	52524.867	51676.977	51296.823	50929.86
모형비교 검증	LMR LRT	0.000	0.000	0.002	0.001	0.000
	BLRT	0.000	0.000	0.000	0.000	0.000
분류율	집단 1	15.453	8.171	11.901	3.73	3.816
	집단 2	84.547	45.915	50.400	8.082	34.236
	집단 3		45.915	4.352	33.393	12.700
	집단 4			33.348	36.989	8.215
	집단 5				17.806	33.259
	집단 6					7.771

주: LMR 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함.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결정 한 후 결정한 4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에서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통해 분류의 질을 점검하였다. 사후계층 소속활률은 0.7 이상일 때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다(Nagin, 2005). 표 6과 같이 유형 1은 91.6%, 유형2는 91.5%, 유형3은 97.6%, 유형4는 92.8%로 나타나 계층분류 확률이 1에 가까운 값을 보여 계층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7.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표본크기	비율	잠재유형별 분류 확률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1	268	11.9	.916	.076	.008	.000
2	1,135	50.4	.026	.915	.000	.060
3	98	4.4	.024	.000	.976	.000
4	751	33.3	.000	.072	.000	.928

2)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파악하고, 잠재집단을 명명하기 위해 표 8과 그림 1에 각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직업가치요인의 평균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표 8.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직업가치 평균과 표준오차

	(집단1) 수입과 안정 중시형		(집단2)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		(집단3) 직업가치 무관심형		(집단4)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	
	M	SE	M	SE	M	SE	M	SE
1.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2.60**	0.08	**3.18**	0.03	1.56	0.08	3.46	0.03
2. 수입(임금)이 많다.	**2.64**	0.11	**3.29**	0.04	1.42	0.07	**3.75**	0.02
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2.46	0.05	2.86	0.04	**2.10**	0.10	3.21	0.03
4.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2.40	0.05	2.70	0.04	**2.20**	0.10	3.15	0.03
5.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2.56**	0.08	**3.21**	0.03	1.33	0.08	3.59	0.03
6.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2.42	0.10	3.12	0.04	1.19	0.06	**3.76**	0.03
7.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2.28	0.08	3.11	0.05	1.32	0.07	**3.70**	0.02
8.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2.29	0.07	3.00	0.04	1.51	0.07	3.67	0.04
9. 여러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2.35	0.06	2.90	0.04	1.79	0.10	3.51	0.04
10. 직장 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2.31	0.07	2.94	0.03	1.66	0.09	3.57	0.04
11.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2.39	0.09	3.08	0.03	1.51	0.08	3.64	0.04
1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42	0.07	3.04	0.03	1.48	0.08	**3.70**	0.04
구성 비율	11.9%		50.4%		4.4%		33.3%	

주) 평균점수가 높은 상위 3개 항목에 음영 표시함.

고등학생의 11.9%가 포함된 집단1은 12가지 모든 가치의 평균이 3.0을 넘지 않아 '중요한 편'에 응답한 경우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가 2.60점, '수입(임금)이 많다'가 2.64점,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가 2.56점으로 나타나 12개 중에서도 직업 안정성과 높은 수입, 적성 일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입과 안정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2와 집단 4의 경우 유사한 프로파일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집단2의 경우 전체의 50.4%로 절반 이상이 이 집단에 해당되었다. 집단2는 대부분의 가치에 '중요한 편이다'에 응답하였으며, 그중 높은 수입과 적성 일치, 그리고 직업 안정성의 점수가 높아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2는 '시회적 명예(위신)가 높다'와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사람들과 어울려 일 할 수 있다', '집단 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가 3점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가치에 비해 이 4가지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3은 전체 중 4.4%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가치에 '중요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평균이 높은 가치가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2.20점)'와 '사회적 명예(위신)이 높다(2.10점)'이지만, 두 항목 모두 2점 초반대로 낮은 편으로 직업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직업가치 무관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4의 경우 전체 학생의 33.3%로 2번째로 많은 집단이며, 모든 가치를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였다. 모든 가치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 가장 높은 것은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3.76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입(임금)이 많다(3.75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3.70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3.70점)' 순으로 나타나 수입 및 환경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4는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와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가 각각 3.21점, 3.15점으로 다른 가치에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2와 유사하게 사회적 명예와 국가 및 사회에 기여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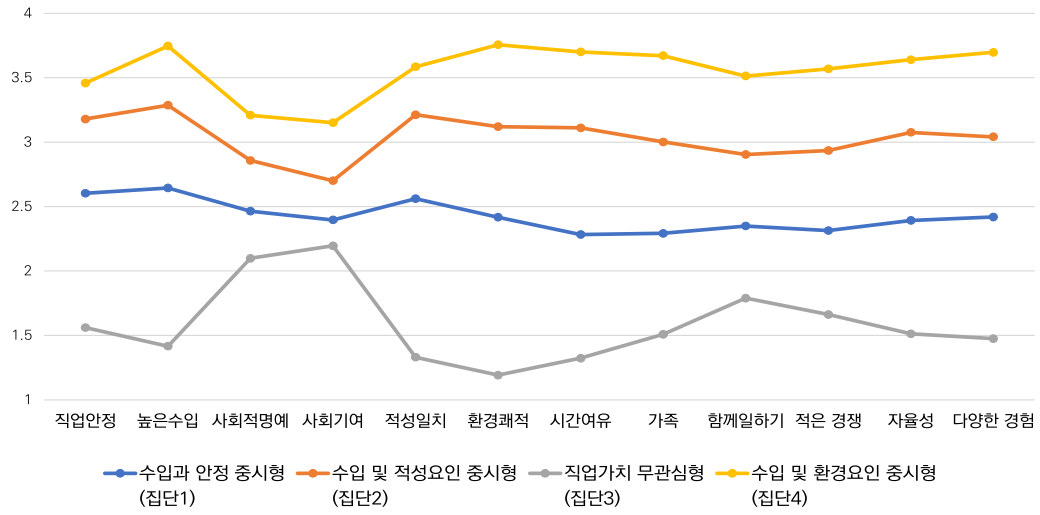


그림 1. 직업가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3)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4개의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각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여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표 10과 같다.

표 9. 직업가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검증(1)

구분		기준집단: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		
		수입과 안정 중시형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	직업가치 무관심형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개인	성별(여성=1)	.065(.176)	-.185(.120)	.023(.230)
	성적 만족도	.058(.103)	-.098(.071)	**-.417**(.150)**
가족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	.146(.137)	-.009(.087)	.180(.179)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336*(.142)**	.070(.104)	-.279(.229)
진로 활동 (참여=1)	'진로와 직업' 수업	.310(.214)	**.347*(.150)**	**.578*(.293)**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338(.236)	.111(.172)	**.884**(.316)**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1.205***(.192)**	-.302(.155)	**-.680*(.321)**
	진로 관련 상담	-.161(.2)	.008(.157)	.002(.292)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745**(.267)**	-.025(.194)	**.984**(.369)**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679*(.266)**	**-.577**(.176)**	-.312(.336)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010(.324)	.190(.180)	-.083(.349)
	학업 설계 워크숍	.258(.465)	**-.679*(.282)**	-.064(.464)
	현장견학	-.737(.531)	.073(.235)	.136(.517)
	현장 직업체험	-.382(.681)	-.312(.254)	-.731(.631)
	직업 실무체험	-.567(1.146)	.083(.353)	.017(.681)
	진로캠프	-.115(.536)	-.607(.326)	-.75(.518)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062(.452)	.286(.239)	**.700*(.330)**
	직업박람회	-.403(.733)	.358(.28)	-.193(.538)
	진로 관련 책/잡지	-.049(.311)	**.494*(.193)**	-.031(.354)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16(.233)	**-.619***(.172)**	-.447(.325)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음영 표시함.

우선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을 기준으로 집단비교별 차이는 있지만 성적만족도,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와 진로활동 중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관련 특강 및 강연, 학업설계 워크숍,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진로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입과 안정 중시형과 비교했을 때 어머니의 진로관련 대화,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가 적을수록, 진로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와 진로관련 특강 및 강연 경험이 없는 경우,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났다.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과 비교했을 경우 진로활동 경험이 영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관련 책/잡지 경험이 없을수록 수입 및

환경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고,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학업설계 워크숍,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경험이 있다면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 무관심형과 비교했을 경우, 성적만족도와 진로활동이 영향을 미쳤는데,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활동 중 '진로와 직업' 수업 경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경험이 없을수록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에 포함할 가능성을 높였고,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경험이 있는 경우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표 10. 직업가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검증(2)

구분		기준집단: 수입과 안정 중시형		기준집단: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	직업가치 무관심형	직업가치 무관심형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개인	성별(여성=1)	-.250(.172)	-.042(.265)	.208(.224)
	성적 만족도	-.156(.100)	**-.475**(.171)**	**-.319*(.147)**
가족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	-.155(.134)	.034(.212)	.189(.174)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406**(.136)**	.057(.257)	-.349(.225)
진로 활동 (참여=1)	'진로와 직업' 수업	.037(.205)	.268(.332)	.231(.285)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227(.225)	.546(.348)	**.774*(.302)**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903***(.183)**	.524(.337)	-.378(.311)
	진로 관련 상담	.169(.188)	.163(.313)	-.005(.281)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769**(.256)**	.239(.412)	**1.008**(.358)**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103(.270)	.367(.398)	.265(.327)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199(.329)	-.073(.448)	-.273(.344)
	학업 설계 워크숍	-.937(.482)	-.322(.612)	.615(.471)
	현장견학	.810(.525)	.873(.732)	.063(.502)
	현장 직업체험	.070(.691)	-.349(.931)	-.419(.627)
	직업 실무체험	.650(1.166)	.584(1.294)	-.066(.681)
	진로캠프	-.492(.572)	-.635(.703)	-.143(.542)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348(.459)	.763(.519)	.414(.316)
	직업박람회	.761(.741)	.210(.896)	-.551(.518)
	진로 관련 책/잡지	.543(.317)	.018(.450)	-.525(.352)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459(.238)	-.287(.364)	.173(.320)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음영 표시함.

두 번째로 수입과 안정 중시형을 참조집단으로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였다.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과 비교하였을 경우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가 낮고,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경험이 없는 경우 수입과 안정 중시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고,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수입과 안정 중시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가치 무관심형과 비교했을 경우 성적 만족도만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입과 안정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직업가치 무관심형과 비교하였으며,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경험과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가치의 잠재유형을 분류하여 집단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직업가치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진로활동 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의 참여 여부는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 직업체험활동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2,252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2학년의 직업가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수입과 안정 중시형(11.9%)',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50.4%)', '직업가치 무관심형(4.4%)',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33.3%)'이다. 고등학생의 50.4%가 포함되어 있는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높은 수입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직업선택 시 자신의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선행연구(김민경 외, 2022; 오해섭, 문호영,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은 33.3%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쾌적한 환경, 높은 수입, 시간 여유, 다양한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안정 중시형'은 학생의 11.9%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12가지 가치 문항에 대한 평균이 3.0을 넘지 않았지만 높은 수입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 2.5점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직업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집단에서도 직업 안정성, 높은 수입, 자신의 소질과 적성과의 일치 여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4.4%가 속하는 '직업가치 무관심형'은 모든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직업가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진로활동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요인으로는 '성적 만족도'가 직업가치 유형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업가치 무관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정숙, 2006; 박민지, 이신혜, 2017)를 지지한다. 즉,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업가치에 대해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데, 직업가치는 학령기의 진로 발달을 예측하고 긍정적인 진로 발달과 관련이 있는 만큼(Hirschi, 2010), 직업가치는 개인의 진로설정과 경력개발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족요인 중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가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가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민지, 이신혜, 2017)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박민지와 이신혜(201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내적 보상 경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유형은 적성·자율성·관계요인, 즉 내적가치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수입과 안정 중시형'보다는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과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직업가치 전반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고, 수입뿐만 아니라 적성, 업무 환경, 시간여유, 다양한 경험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잠재집단을 유형화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나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부모의 대화에서의 반응이 자녀의 반응과 연계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보면(정혜윤, 이동혁, 박혜성, 이송하, 2020), 부모와의 대화 내용이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 요인으로 진로활동의 16가지 유형별로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학업설계 워크숍,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경험여부가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가치를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과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고,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과, 학업설계 워크숍 참여 경험이 '수입 및 환경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혔으며, 진로 관련 책/잡지 경험 역시 '수입 및 적성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혔다. 이는 유형별 진로활동이 진로개발역량 혹은 학습동기, 자기주도학

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김정숙, 연보라, 2020; 노경란, 허선주, 2020; 인효연, 2020; 장현진, 2018)와 유사하고, 학업설계 워크숍과 진로 관련 책 잡지 및 인터넷 자료 경험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 관련 상담의 경우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정숙, 연보라, 2020; 인효연, 2020; 장현진, 2018)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경험의 경우 직업가치의 전반적 점수가 낮은 '직업가치 무관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캠프,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이는 진로 체험이 단순히 경험 여부뿐만이 아닌 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노경란, 허선주, 2021)에 따라 추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직업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가 무엇인지 명료화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직업가치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직업가치 중 어떤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료화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민지, 이신혜, 2017) 또한 자신이 다양한 직업가치 중 어떠한 직업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알고, 개인의 가치관을 탐색하고 명료화하는 것은 진로결정에 핵심적인 것이기에(이정애, 최웅용, 2008) 학생들이 보다 자신의 직업가치에 대한 명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4.4%의 학생은 직업가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직업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자신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성적은 성적 자체로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만(김정숙, 2006; 박민지, 이신혜, 2017), 본 연구를 통해 성적만족도 역시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업가치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고, 직업가치가 진로 목표 설정 및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돕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엄마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직업가치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높은 '수입과 적성요인 중시형', '수입과 환경요인 중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직업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를 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직업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김현미, 임은미, 2012; 박민지, 이신혜, 2017), 부모의 지지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안수민, 김희화, 2018) 부모와 자녀와의 진로 관련 대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

모가 자녀와 긍적적인 진로 관련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별 진로활동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직업체험활동은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6가지 유형의 진로활동이 직업가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6가지 진로활동 유형 중 9가지의 진로활동이 직업가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활동의 경우 '직업가치 무관심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진로활동을 경험했다는 것 보다 활동의 내용, 그리고 진로활동 만족도에 따라 학생의 직업가치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시사하므로 진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가 진로결정, 진로개발준비 등 진로발달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직업가치에 따라 진로성숙, 진로개발준비, 진로결정가지효능감, 직무적합도, 직무만족 등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신영, 김종임, 2017; 박은규, 조아름, 2022; 오성욱, 2019; 이정애, 최웅용, 2008; 정영해, 강희순, 김정숙, 2012; 조윤서, 2018; 최규환, 2013; 최보영, 2013) 등 다양하게 수행되어 직업가치와 관련된 의미있고 구체적인 진로교육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위해 대학 진학 혹은 취업 등 진로선택을 하는 시기이므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권미소. (2019).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유형 탐색과 유형별 진로개발역량 및 자기효능감 차이. **중등교육연구, 67**(2), 173-198.

김미옥, 조아미. (2018). 잠재프로파일 분석 (LPA) 을 통한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 유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5**(12), 85-107.

김민경, 권효원, 문찬주, 박나실, 방혜진, 황승록. (200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022)**.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김재희. (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교육활동 참여 및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75-109.

김정숙. (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김현미, 임은미. (2012). 부모-자녀관계 및 변화가 청소년의 직업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4), 57-73.

김형란, 김석우, 배가나. (2022).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잠재전이유형과 관련 변인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461-474.

노경란, 허선주. (2020). 다층모형에 의한 학교 진로교육 환경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참여 다양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8**(3), 29-55.

노경란, 허선주. (202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참여특성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교 진로교육과 진로사교육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2), 47-67.

박민지, 이신혜. (2017).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 직업가치 유형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8**(1), 235-265.

박신영, 김종임. (2017). 대학생의 직업가치 및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507-533.

박은규, 조아름. (2022). 대졸 청년 재직자의 직업가치 유형과 개인 및 직장 관련 요인과의 관계.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4**(2), 165-194.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 **아시아교육연구, 10**(1), 155-173.

안수민, 김희화. (201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9**(2), 153-174.

어윤경. (2009). 청소년의 내적· 외적 직업 가치관 변화와 진로 성숙도가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3**(4), 801-817.

오성욱, 이승구. (2009).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이 직무적합도 및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2), 1-19.

오해섭, 문호영. (2020).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헌석, 배진현, 이상은, 장현진. (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윤소진, 홍세희. (2022). 공직가치에 따른 공직자 잠재프로파일 분석: 개인적, 조직적 영향요인 및 잠재프로파일별 삶의 만족도, 조직몰입 차이 검증. **조사연구, 23**(3), 165-198.

이정애, 최웅용. (2008).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1), 131-148.

이지연. (2006). 청소년이 인식하는 일 가치의 변화. **직업교육연구, 25**(3), 163-181.

인효연. (2020). 중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예측요인. **상담학연구, 21**(2), 35-58.

임언, 박보경, 현진실. (201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 2001년~ 2011년. **진로교육연구, 25**(3), 19-37.

임은미. (2010). 청소년 직업가치의 유형 및 변화와 전공 선택 경향에 따른 직업가치 차이. **진로교육연구, 23**(1), 61-77.

임현정, 김난옥. (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261-281.

장현진. (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정영해, 강희순, 김정숙. (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 여부,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3**(1), 71-88.

정주연, 이지혜. (2021).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 분석: 학교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2**(2), 187-212.

정혜윤, 이동혁, 박혜성, 이송하. (2020).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진로대화 상호작용 연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7(1), 143-166.

조윤서. (2018).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학습자 중심 진로준비행동과 학교차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성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53-78.

진로교육법 제2조.

최규환. (2013). 사회적 지지이론 및 직업가치패러다임을 적용한 관광 관련 대학생의 진로결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5**(2), 5-24.

최보영.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내· 외적 직업가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1**(1), 1-17.

Abessolo, M., Hirschi, A., & Rossier, J. (2017). Work values underlying protean and boundaryless career orientation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22*(3), 241-259.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Clark, S. L.,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Dawis, R. V., & Lofqu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An individual-differences model and its applicatio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Hirschi, A. (2010). Positiv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The role of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3), 276-287..

Jackson, D., & Tomlinson, M. (2019). Career values and proactive career behaviour among contemporary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32*(5), 449-464.

Ros, M., Schwartz, S. H., & Surkiss, S. (1999). Basic individual values, work values, and the meaning of work. *Applied psychology, 48*(1), 49-71.

Rounds, J. A. M. E. S., & Jin, J. I. N. G. (2013). Nature, importance, and assessment of needs and value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417-448.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Academic Press.

Super, D. E. (1995). *Values: Their nature, assessment, and practical use.*

‘고등학생의 직업가치의 잠재프로파일과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토론문

정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이 직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하는 일은 진로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직업가치는 사회환경 및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기에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직업가치를 살펴보고,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특히 진로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직업가치 유형 분류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향후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이 보다 발전적으로 진화하길 바라며 몇 가지 의견을 드린다.

우선, 본 연구가 직업가치를 유형화한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기존 직업가치 유형화 연구의 제한점으로 직업가치의 구분의 단순성(내적/외적), 데이터 기반의 귀납적 접근(요인분석) 등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유형화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 대상에서 이루어졌던 직업가치의 구조를 구분하지 않은 접근이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논리보다, 오히려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직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진로활동의 경험의 종류를 보다 강조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길 제안한다. 이와 함께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희망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직업가치’보다는 ‘흥미와 적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화와 기존의 유형화 연구와의 유형화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유형화의 결과와 영향요인에 집중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자가 제시한 12개의 독립적인 직업가치를 투입하였을 때, 기존 직업가치 유형화에서 발견하지 못한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차별점을 보이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때, 혹은 본 연구 결과가 기존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 결과가 보다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화 분석은 개인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하더라도 현재 명명된 4개 유형 구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개의 유형 중 수입을 중시하는 유형이 3개의 유형에 해당한다. 잠재프로파일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유형화에 대하여 유형 간 배탕성 검토 등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1을 통해 각 유형의 프로파일 형태를 살펴보면, 유형4는 타 유형들과 비교하여 모든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으로 현재 연구진이 명명한 '수입 및 환경 요인 중시형'이 유형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적확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유형별 주요 요인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여 유형별 특징을 검토해보길 제안한다. 또한 직업 가치의 중요도를 4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구분하고 있기에 2점 대로 나타난 값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향 요인 결과 해석에 있어, 현재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 결과에 대한 차이에 대해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대화에서의 부모 반응과 자녀 반응의 선행연구를 직업가치와 연계한 해석은 다소 비약으로 보이기도 한다.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는 진로활동 관련 결과 해석이 명쾌하게 서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직업가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혹은 직업가치를 명료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한 점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 시기의 직업가치에 대한 명료화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볼 때, 연구진이 제시한 성적만족도, 긍정적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등의 영향요인별 개입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해당 영향요인들이 어떤 형태로 개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언이 제시된다면 본 연구 결과가 진로교육 현장에서 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 및 학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찬주*·이인영**·한지예***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학부모의 진로개입과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CYPS 2018 5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경향점수매칭을 적용한 선형최소자승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난 1년 간 1개 이상의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는 46.7%로, 이들은 대체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1-2가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부모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학생 자녀의 진로적응력이 높고, 진로결정확률이 높았다. 셋째, 학부모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학생 자녀의 학업무기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부모의 진로 관련 활동의 참여가 증대되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학교 상담 및 진학 관련 설명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온라인을 통한 진로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와 학업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학부모가 참여하는 진로준비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진로발달, 학부모, 진로준비활동, KCYPS 2018, 경향점수매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cjmoon1226@krivet.re.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ylee417@nypi.re.kr
*** +영천초등학교 , tbh00363@naver.com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선택과 직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로, 합리적인 진로 준비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꼽힌다(Super, 1990).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현존하는 직업 중 47%가 사라지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Frey & Osborne) 양적, 질적으로 급변하는 직업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충실히 진로를 준비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 가정, 학교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직업교육과 진로지도가 요구된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Bronfenbrenner & Evans, 2000), 부모는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진로 관련 정보를 커리어넷(46.2%), 학부모·가족(40.5%), 친구(25.9%), 담임선생님(24.8%), SNS(24.7%), 인터넷 동영상(24.0%) 순으로 획득한다고 답해(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진로를 준비할 때 인물 가운데서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에 있어 가족의 영향력은 또래 집단의 영향력보다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한상근 외, 2001; Howard et al., 2009).

부모는 자녀의 진로 탐색, 목표 설정, 정보와 학습 기회 제공, 직업 선택(강연미, 김희수, 2020; 목경수, 구자경, 2012) 등에 관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산업구조 속에서 초·중·고등학생 부모 모두 자녀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꼽아(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자녀의 진로지도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해 주기 위해 노력하려는 학부모들의 의지와 직접적인 개입도 강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담임 및 진로상담교사와의 학부모 상담, 진로 연수 및 코칭과 같은 프로그램,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시도교육청 주관의 진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과 정보제공도 다양화되고 있다(김용기, 2022).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진로발달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조언해주는 부모의 지지행동은 자녀의 진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ietrich & Kracke, 2009).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의 가족문화를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며(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김소라, 문승태, 2017), 자녀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부모의 관련 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더불어 자유학년제가 정착되며 진로교육

이 학교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진로발달과 학업이 밀접히 연계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영향력을 조망한 선행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김경주, 송병국, 2011; 김덕주, 권혁철, 2013), 진로 관련 대화 정도(김소라, 문승태, 2017; 박찬미, 조현경, 김재철, 2020), 부모-자녀 간 희망하는 직업 및 전공계열의 일치 여부(김재희, 2020; 문찬주, 이영선, 이지영, 정동욱, 2019)에 주목하여 자녀의 진로발달을 위한 가정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주로 부모-자녀 간 관계나 주관적인 인식에 집중함으로써 학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이나 방향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부모의 영향력이 미치는 종속변인을 자녀의 진로발달에 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진로 관련 영향력이 학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중학생의 진로발달과 학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학부모의 개입이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 진로발달과 학업에 있어 학부모의 진로 개입에 주목할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진로 개입과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첫째, 중학생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

Dietrich와 Kracke(2009)는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해 부모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을 지지(support), 간섭(interference), 관여부족(lack of engagement)으로

구분하였다. 지지 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 탐색과 준비를 위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간섭 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 탐색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하는 행동을 뜻하며, 관여부족 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무관심함을 보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상의 구분에 근거하여 15세~18세의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이 자녀의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Dietrich & Kracke, 2009), 부모의 지지행동은 자녀의 진로 탐색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섭과 관여부족 행동은 자녀의 진로 결정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과 자녀의 진로발달 간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부모의 진로준비 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자녀의 진로적응력과 진로결정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자유학년제 정착으로 학교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한 진로교육의 위상을 고려하여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열의와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생태학적 체계이론

본 연구는 인간 발달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인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에 근거하여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과 자녀의 진로발달 및 학업태도 간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Bronfenbrenner는 발달하는 인간(the developing person)과 인간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인간 발달의 맥락(context)에 주목하여 인간의 발달을 설명한다(Bronfenbrenner, 1979/1995). 이때 발달이란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지각하고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생태학적 환경의 특징은 “한 구조가 그 다음 구조 속에 끼워지게 되는 일련의 겹구조(nested structure)”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95:3).

인간 발달의 맥락으로서 생태환경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가 동심원을 이루는 구조인데, 각 체계의 정의와 예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생태체계의 정의 및 예시

개념	정의	예시
미시체계 (microsystem)	발달하는 개인이 독특한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	가정, 보육시설, 놀이터와 같은 환경과 관련 활동, 역할, 대인관계 등
중간체계 (mesosystem)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와 이웃, 동료 집단 사이의 관계 등
외체계 (exosystem)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발달하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	부모의 직장, 손위 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친구 조직망, 지방 교육청의 활동 등
거시체계 (macrosystem)	기본적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consistencies)	한 사회 내 서로 비슷한 외관과 기능을 가진 보육시설, 학교 교실, 공원 놀이터 등

출처: Bronfenbrenner(1995:20-24)의 내용을 재구성

Bronfenbrenner(1995)에 따르면, 미시체계는 발달하는 개인과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상황(situation) 내에서의 상호 관계들의 복합체를 의미하며,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의 장면(setting)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미시체계 환경의 예로는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직장 등이 있으며, 중간체계의 예로는 부모와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김태한, 전영욱, 2021). 또한, 외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미하며, 거시체계는 미시체계부터 외체계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하도록 하는 사회제도와 이념의 일반화된 형태를 의미한다(Bronfenbrenner, 1995). 외체계의 예로는 고용 불안과 같은 부모의 직장 경험과 부모의 사회적 관계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거시체계의 예로는 한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신념체계, 관습, 기회구조 등을 들 수 있다(김태한, 전영욱, 2021).

이러한 인간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의의는 개인 내적인 과정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발달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맥락에서 필요한 개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 및 학업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으로서,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을 중학생의 미시체계를 이루는 가정과 학교 간 상호작용하는 중간체계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이 중학생의 진로발달 및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유용성은 Young(1984a)에 의해 제시되어,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진로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Young, 1984b).

진로발달 연구에서 생태학적 접근의 유용성은 진로발달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면서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실제로 관리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도록 돕는다는 데 있다(Young, 1984b).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 및 학업 발달을 위해 청소년의 즉각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의 일부로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진로 및 학업발달에 있어 학부모 진로준비활동의 영향 및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영향력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김경주, 송병국, 2011; 김덕주, 권혁철, 2013; 박완성, 김미숙, 2009; 이현미, 정제영, 2017; 조윤진, 조규판, 2022), 진로 관련 대화 정도(김소라, 문승태, 2017; 박찬미 외, 2020; 송인발, 강혜영, 2016; 이응택, 최재혁, 2017; 장현진, 2019), 부모-자녀 간 희망하는 직업 및 전공계열의 일치 여부(김재희, 2020; 문찬주 외, 2019; 이영광, 2020; 조명근, 이규원, 채석원, 2020)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양육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민주적이고, 애정적이며,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 합리적 설명의 태도를 취할 경우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완성, 김미숙, 2009; 이현미, 정제영, 2017; 조윤진, 조규판, 2022).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주, 송병국,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진로미결정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덕주, 권혁철, 2013). 이들 연구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모-자녀 간의 진로 관련 대화 정도에 주목한 연구는 대개 진로 관련 대화 빈도나 시간이 진로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장현진, 2019)와 진로개발역량(김소라, 문승태, 2017; 송인발, 강혜영, 2016), 진로정체감이 높아지고(박찬미 외, 2020), 직업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이응택, 최재혁, 2017), 진로와 관련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부모-자녀 간 희망직업이나 전공계열의 일치 여부 또한 학부모와 관련된 진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부모-자녀 간 희망직업이 일치하는 중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간 희망직업 불일치는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김재희, 2020), 부모-자녀 간 진로일치는 학생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광, 2020; 조명근 외 2020). 또한,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이 일치할 경우, 중학생의 학교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문찬주 외, 2019).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진로에 관한 부모의 지지가 진로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을 조망하고, 자녀의 진로발달을 위한 가정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직접적인 행동보다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관계나 인식에 집중함으로써 학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시사점은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김소라, 문승태(2017)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진로교육 참여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기존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영향력이 미치는 종속변수를 학생의 진로발달에만 한정하여 학부모의 진로 관련 영향력이 진로발달 뿐 아니라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의 진로를 향한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학부모의 직접적인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중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진로발달과 학업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의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KCYPS 2018은 2018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종단 연구 자료로, 아동·청소년기의 성장 및 발달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양상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조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자, 5차년도 조사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그 학부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 각각 1,72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2. 변수 구성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진로발달의 요인으로 진로적응력과 장래 직업 결정 여부변수를, 학업태도의 요인으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변수를 활용하였다. 진로적응력은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산업구조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진로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Savickas, 2013), 진로결정은 청소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Super, 1957)에서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집중과 회복력의 수준을 뜻하고(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 2002), 학업 무기력은 본인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학업에 대한 노력 자체를 그만두는 자포자기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진로적응력은 KCYPS2018이 제공하는 관련 13문항(진로관심 3문항, 진로호기심 5문항, 진로자신감 5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한 후 평균을 구해 설정하였다. 장래 직업 결정 여부는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였는가'는 문항에 대해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대강하고 싶은 직업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로 코딩하였다.

학업열의는 관련 16문항(헌신 4문항, 활기 4문항, 효능감 4문항, 몰두 4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학업무기력 또한 관련 16문항(통제신념 결여 4문항, 학습동기 결여 4문항, 긍정정서 결여 4문항, 능동 수행 결여 4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관심변수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로, '지난 1년 동안 진로와 관련된 활동(7가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학부모 응답을 활용하였다, 7가지 활동은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학업설계 워크숍, 직업박람회,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이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참여하였으면 1로, 한 가지도 참여하지 않았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학생특성, 가정특성, 학교특성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특성 중 성별은 남학생 1, 여학생 0으로 코딩했으며,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만족도는 각각 지난 학기 학생의 전과목 성적 수준과 그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의 응답 값을 활용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의 응답을, 삶의 만족도는 관련 5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주의산만은 관련 7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의 평균을 활용하였고, 장래 희망 교육 수준은 향후 목표하는 학업 수준을 교육 연한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1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14, 4년제 대학교 졸업 16, 대학원(석·박사) 이상 18로 코딩하였다. 친구관계는 관련 13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활용했는데, 긍정적 관계 8문항에 대한 응답과 부정적 관계 5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한 후 평균을 구해 설정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관련 14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학습시간은 학업태도 종속변수에 한해 투입되는 통제변수로, 평일 학생들이 학원 및 과외, 인터넷 및 TV강의, 방과후학교, 자습에 각각 투자하는 시간을 7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활용하였다.

가정 특성 중 로그가구소득은 KCYPS2018이 제공하는 월 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12가지 선택지의 중간값을 부여하여 코딩한 후 자연로그를 취해 구한 값으로, 구체적인 12가지 코딩은 소득없음 1, 5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350만원 5, 450만원 6, 550만원 7, 650만원 8, 750만원 9, 850만원 10, 950만원 11, 1000만원 12로 하였다. 사교육여부는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 패널이 사교육을 받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부모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최종학력을 교육연한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1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14, 4년제 대학교 졸업 16,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18로 코딩하였다.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만족도는 각각 지난 학기 자녀의 전과목 성적 수준과 그 만족도에 대해 학부모가 5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활용하였다. 자녀의 장래 희망 교육 수준은 자녀가 공부하기 바라는 수준을 교육연한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1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14, 4년제 대학교 졸업 16,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18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의 수는 총 자녀 수를 명으로 응답한 값을 활용하였고, 자녀 중 응답자의 순서는 조사에 참여한 학생패널의 형제자매 중 순서를 기입한 값을 활용하였다. 부모와 진로관련 대화는 진로발달 종속변수에 한해 투입되는 통제변수로,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아버지, 어머니 각각과 대화(또는 상담)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답한 학생 응답을 활용하였다.

학교 특성으로는 학교소재지를 활용하였는데, 학교가 대도시에 위치할 경우 1, 중소도시에 위치할 경우 2, 읍면지역에 위치할 경우 3으로 코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를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진로발달	진로적응력	진로관심 3문항, 진로호기심 5문항, 진로자신감 5문항 평균
		장래 직업 결정 여부	결정(1) 미결정(0)
	학업태도	학업열의	학습열의에 관한 16문항 평균
		학업무기력	학업무기력에 관한 16문항 평균
관심변수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		참여(1) 미참여(0)
학생특성	성별		남학생(1) 여학생(0)
	학업성취도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
	학업성취 만족도		지난 학기 학업성취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에 관한 5문항 평균
	주의산만		주의산만에 관한 7문항 평균
	장래 희망 교육 수준		장래 희망 교육 수준에 따른 교육연한
	친구관계		긍정적 관계 8문항, 부정적 관계 5문항(역코딩) 평균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14문항 평균
	학습시간(학원 및 과외)*		평일 학원 및 과외 학습시간
	학습시간(인터넷 및 TV 강의)*		평일 인터넷 및 TV 강의 학습시간
	학습시간(방과후학교)*		평일 방과후학교 학습시간
	학습시간(자습)*		평일 자습시간
가정특성	로그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의 자연로그
	사교육여부		참여(1) 미참여(0)
	부학력		부학력에 따른 교육연한
	모학력		모학력에 따른 교육연한
	자녀의 학업성취 만족도		지난 학기 자녀의 학업성취 만족도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지난 학기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자녀의 장래 희망 교육 수준		자녀의 장래 희망 교육 수준에 따른 교육연한
	자녀 수		자녀 수
	자녀 중 응답자의 순서		자녀 중 응답자의 순서
	진로관련 대화 부**		아버지와 진로관련 대화 빈도
	진로관련 대화 모**		어머니와 진로관련 대화 빈도
학교특성	학교소재지		대도시(1) 중소도시(2) 읍면지역(3)

*: 학업태도 종속변수에 한해 투입되는 통제변수
**: 진로발달 종속변수에 한해 투입되는 통제변수

3. 분석방법

1) 선형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두 번째 연구문제인 중학생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 중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세 번째 연구문제인 중학생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식 1〉과 같다.

〈식 1〉 $y_i = B_0 + B_1 X_{1i} + \cdots + B_k X_{ki} + \cdots + \epsilon_i$

두 번째 연구문제 중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에서 y_i는 자녀의 진로적응력을,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태도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에서 y_i는 각각 학생 개인 i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을 의미한다. B_0은 상수, B_1은 학부모 i의 자녀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의 추정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B_k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학교특성과 같은 통제변수들의 추정계수를, ϵ_i는 오차항을 뜻한다.

2)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두 번째 연구문제 중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식 2〉와 같다.

〈식 2〉 $\ln\left[\frac{P_i}{1-P_i}\right] = B_0 + B_1 X_{1i} + \cdots + B_k X_{ki}$

$\ln\left[\frac{P_i}{1-P_i}\right]$은 자녀의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 대한 로짓이며, B_0은 상수, B_1은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의 장래 직업 결정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이고, B_k는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이다.

3)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준비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향점수매칭은 프로그램 처치와 관련해 관찰 가능한 특성(공변인)을 토대로 참가자들이 처치를 경험할 확률인 경향점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경향점수 범위 내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사한 사례를 비교할 경우, 집단 간 설명변수들의 분포가 동일하므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해소된 처치효과를 얻을 수 있다(김준엽, 2011). 따라서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하면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집단과 그렇지 않은 학부모 집단 간 존재하는

이질적인 특성을 통제하여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와 관련한 경향점수를 산출하고자 자녀 성별, 학업성취도, 부모와의 진로관련대화 정도,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학력, 사교육 여부, 6가지 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학교소재지를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처치집단(진로준비활동 참여 학부모 집단)의 사례와 가장 유사한 통제집단(진로준비활동 미참여 학부모 집단)의 사례를 매칭(one to one matching)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 매칭 전과 달리 매칭 후에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경향점수매칭 전후 처치-통제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구분	매칭 전			매칭 후		
	처치집단	통제집단	t	처치집단	통제집단	t
자녀 성별	0.494	0.499	-0.23	0.494	0.510	-0.66
학업성취도	3.495	3.380	3.03***	3.495	3.493	0.04
진로관련대화_부	2.988	3.054	-1.74*	2.988	2.975	0.31
진로관련대화_모	3.440	3.398	1.21	3.440	3.425	0.42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6.314	6.286	1.15	6.314	6.305	0.41
부학력	15.110	14.700	4.27***	15.110	15.142	-0.34
모학력	14.974	14.559	4.59***	14.974	14.901	0.83
사교육 여부	0.927	0.854	4.80***	0.927	0.931	-0.31
양육태도_따스함	3.310	3.157	6.00***	3.310	3.312	-0.08
양육태도_거부	1.808	1.944	-4.47***	1.808	1.797	0.35
양육태도_자율성 지지	3.257	3.144	4.44***	3.257	3.289	-1.24
양육태도_강요	2.166	2.198	-1.11	2.166	2.189	-0.78
양육태도_구조제공	3.052	2.963	3.73***	3.052	3.087	-1.44
양육태도_비일관성	2.098	2.172	-2.55**	2.098	2.126	-0.95
학교소재지_중소도시	0.393	0.435	-1.76**	0.393	0.384	0.41
학교소재지_읍면	0.175	0.157	1.02	0.175	0.161	0.74

주: * p<.1; ** p<.05; *** p<.01

IV. 분석 결과

1. 중학생 학부모의 자녀 진로준비활동 참여 양상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중학생 학부모의 자녀 진로준비활동 참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미참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적응력	2.71	0.59	2.61	0.56
	장래 직업 결정 여부	0.63	0.48	0.53	0.50
	학업열의	2.57	0.50	2.48	0.47
	학업무기력	1.92	0.49	2.06	0.47
학생 특성	성별 (남학생=1)	0.49	0.50	0.50	0.50
	학업성취도	3.50	0.81	3.38	0.77
	학업성취 만족도	3.41	0.91	3.48	0.88
	학교생활 만족도	3.90	0.77	3.77	0.74
	삶의 만족도	2.75	0.53	2.69	0.49
	주의산만	2.07	0.57	2.09	0.55
	장래 희망 교육 수준	15.99	1.08	15.94	1.07
	친구관계	3.09	0.41	3.04	0.40
	교사와의 관계	2.82	0.48	2.75	0.49
	학습시간(학원 및 과외)	4.62	1.47	4.06	1.58
	학습시간(인터넷 및 TV 강의)	2.53	1.64	2.23	1.47
	학습시간(방과후학교)	1.78	1.45	1.69	1.18
	학습시간(자습)	3.73	1.31	3.30	1.19
가구 특성	로그가구소득	6.31	0.57	6.29	0.43
	사교육여부	0.93	0.26	0.85	0.35
	부학력	15.11	2.00	14.70	1.99
	모학력	14.97	1.81	14.56	1.92
	자녀의 학업성취 만족도	3.55	0.89	3.48	0.82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3.84	0.71	3.69	0.70
	자녀의 장래 희망 교육 수준	16.33	0.99	16.06	0.84
	자녀 수	2.12	0.68	2.13	0.73
	자녀 중 응답자의 순서	1.54	0.69	1.54	0.66
	진로관련 대화_부	2.99	0.79	3.05	0.80
	진로관련 대화_모	3.44	0.72	3.40	0.72
학교 특성	학교소재지_대도시	0.43	0.50	0.41	0.49
	학교소재지_중소도시	0.39	0.49	0.44	0.50
	학교소재지_읍면지역	0.17	0.38	0.16	0.36
N		806		919	

〈표 4〉에서 나타나듯, 본 분석에 활용된 학부모 1,725명 중 806명(46.7%)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였고, 919명(53.3%)은 진로준비활동에 미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활동에 미참여한 학부모가 참여한 학부모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학부모 집단 간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의 자녀는 진로적응력, 장래 직업 결정 확률, 학업열의에 있어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의 자녀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학업무기력에 있어서는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의 자녀보다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지난 1년간 1가지 이상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806명 중 1가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는 286명, 2가지는 22명, 3가지는 166명, 4가지는 63명, 5가지는 36명, 6가지 11명, 7가지 17명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은 1-2가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수는 적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KCYPS에서 제시하는 7가지 진로준비활동 목록 가운데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진로준비활동은 진로관련 상담(24.6%),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22.5%),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17.0%),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16.1%), 진로 관련 책/잡지(13.0%), 학업설계 워크숍(3.8%), 직업박람회(3.1%)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학부모의 자녀 진로준비활동 참여 정도

진로준비활동 참여 수	참여자(명)	비율(%)	진로준비활동 별 참여 순위		비율(%)
0개	919	53.3	1	진로관련상담	24.6
1개	286	16.6	2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22.5
2개	227	13.2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17.0
3개	166	9.6	4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16.1
4개	63	3.7	5	진로 관련 책/잡지	13.0
5개	36	2.1	6	학업설계 워크숍	3.8
6개	11	0.6	7	직업박람회	3.1
7개	17	1.0		합	100
합	1,725	100			

2.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진로적응력에 대하여 왼편에 OLS 분석결과를, 그리고 표본 선택편의를 해소하기 위해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한 분석 결과(PSM)를 우측에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장래 직업 결정 여부의 경우, 왼편에 Logit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우측에 경향점수 매칭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6.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진로적응력		장래 직업 결정 여부	
		OLS	PSM+OLS	Logit	PSM+Logit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	**0.070*** (0.027)**	**0.105*** (0.036)**	**0.393*** (0.104)**	**0.438*** (0.139)**
학생 특성	성별	0.016 (0.026)	0.042 (0.035)	-0.156 (0.102)	-0.256* (0.144)
	학업성취도	0.087*** (0.024)	0.108*** (0.034)	-0.001 (0.095)	0.145 (0.131)
	학업성취 만족도	-0.029 (0.020)	-0.070** (0.033)	0.181** (0.079)	-0.011 (0.119)
	학교생활 만족도	0.030 (0.021)	0.024 (0.032)	-0.088 (0.081)	0.095 (0.117)
	삶의 만족도	0.010 (0.029)	0.043 (0.043)	-0.020 (0.113)	0.349** (0.163)
	주의산만	-0.247*** (0.025)	-0.267*** (0.037)	-0.380*** (0.099)	-0.458*** (0.135)
	장래 희망 교육 수준	0.024* (0.013)	0.039** (0.020)	0.050 (0.052)	0.053 (0.067)
	친구관계	0.171*** (0.037)	0.203*** (0.051)	0.328** (0.147)	0.420** (0.203)
	교사와의 관계	0.018 (0.032)	-0.038 (0.044)	-0.013 (0.125)	-0.236 (0.172)
가정 특성	로그가구소득	-0.063** (0.027)	-0.073* (0.043)	-0.112 (0.109)	-0.057 (0.132)
	사교육여부	-0.120*** (0.042)	-0.092* (0.056)	0.209 (0.163)	0.055 (0.253)
	부학력	0.004 (0.008)	0.002 (0.011)	0.004 (0.031)	-0.029 (0.045)
	모학력	-0.006 (0.009)	0.009 (0.013)	0.063* (0.033)	0.078 (0.048)
	자녀의 학업성취 만족도	-0.066*** (0.020)	-0.036 (0.030)	-0.136* (0.080)	-0.150 (0.119)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0.001 (0.023)	-0.032 (0.028)	-0.231** (0.091)	-0.300** (0.127)
	자녀의 장래 희망 교육 수준	0.040*** (0.015)	0.055** (0.022)	0.071 (0.061)	0.076 (0.085)
	자녀 수	0.030 (0.021)	0.092*** (0.028)	0.125 (0.084)	0.124 (0.115)

		진로적응력		장래 직업 결정 여부	
		OLS	PSM+OLS	Logit	PSM+Logit
	자녀 중 응답자의 순서	-0.037*	-0.056*	-0.227***	-0.347***
		(0.022)	(0.031)	(0.087)	(0.123)
	진로관련 대화_부	-0.011	-0.015	0.012	0.048
		(0.020)	(0.028)	(0.079)	(0.109)
	진로관련 대화_모	0.023	0.036	-0.033	-0.064
		(0.022)	(0.029)	(0.087)	(0.120)
학교 특성	학교소재지_중소도시 (참조: 대도시)	0.039	0.080**	-0.334***	-0.069
		(0.029)	(0.039)	(0.112)	(0.156)
	학교소재지_읍면 (참조: 대도시)	0.137***	0.152***	0.026	0.204
		(0.039)	(0.049)	(0.152)	(0.205)
cons		1.856***	1.120**	-0.950	-1.708
		(0.331)	(0.462)	(1.303)	(1.787)
R^2		0.151	0.177		
N		1,725	1,264	1,725	1,264

주: * p<.1; ** p<.05; *** p<.01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진로적응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OLS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부모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진로적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보다 엄밀한 효과 추정을 실시한 PSM 분석 결과에서 마찬가지 경향을 나타냈다. PSM 분석 결과에서는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의 경우, 미참여 학부모에 비해 자녀의 진로적응력이 0.105만큼 높아지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OLS 분석 결과의 추정계수인 0.070과 비교해볼 때, OLS가 PSM 분석결과에 비해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효과를 과소 추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래직업결정여부에 대한 영향을 OLS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학부모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장래직업결정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SM 분석 결과에서도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의 자녀가 미참여한 학부모의 자녀에 비해 장래직업결정 확률이 0.438만큼 높아지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OLS가 PSM 분석결과에 비해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효과를 과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통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최종 분석 모형인 PSM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와 학생 장래희망 교육수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희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학생의 진로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이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래 직업 결정 여부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고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장래 직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자녀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OLS 분석 결과를 왼편에, PSM 분석결과를 오른편에 제시하였다.

표 7.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OLS	PSM+OLS	OLS	PSM+OLS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	0.011 (0.018)	0.007 (0.025)	**-0.078***** **(0.020)**	**-0.110***** **(0.024)**
학생 특성	성별	-0.007 (0.018)	-0.005 (0.026)	-0.000 (0.019)	-0.004 (0.024)
	학업성취도	0.155*** (0.016)	0.158*** (0.027)	-0.143*** (0.018)	-0.148*** (0.026)
	학업성취 만족도	-0.001 (0.014)	-0.008 (0.024)	0.090*** (0.015)	0.072*** (0.020)
	학교생활 만족도	0.051*** (0.014)	0.055** (0.022)	-0.105*** (0.015)	-0.080*** (0.020)
	삶의 만족도	0.169*** (0.019)	0.184*** (0.029)	0.002 (0.022)	-0.030 (0.029)
	주의산만	-0.101*** (0.017)	-0.077*** (0.030)	0.226*** (0.019)	0.208*** (0.027)
	장래 희망 교육 수준	0.050*** (0.009)	0.039*** (0.014)	-0.019* (0.010)	-0.005 (0.014)
	친구관계	-0.032 (0.026)	0.023 (0.040)	-0.182*** (0.028)	-0.150*** (0.041)
	교사와의 관계	0.280*** (0.021)	0.224*** (0.039)	-0.024 (0.024)	-0.034 (0.033)
	학습시간(학원 및 과외)	-0.003 (0.007)	-0.002 (0.013)	0.015* (0.008)	-0.000 (0.011)
	학습시간(인터넷 및 TV 강의)	0.006 (0.006)	0.005 (0.009)	0.003 (0.007)	-0.003 (0.008)
	학습시간(방과후학교)	0.018*** (0.007)	0.020** (0.008)	0.052*** (0.008)	0.059*** (0.011)
	학습시간(자습)	0.030*** (0.008)	0.032*** (0.011)	-0.044*** (0.008)	-0.048*** (0.011)
가정 특성	로그가구소득	-0.036** (0.018)	-0.052** (0.021)	0.022 (0.020)	0.003 (0.029)
	사교육여부	0.045 (0.034)	0.016 (0.055)	0.040 (0.038)	0.078 (0.051)
	부학력	0.005 (0.005)	0.006 (0.007)	0.004 (0.006)	0.005 (0.007)
	모학력	0.004 (0.006)	-0.002 (0.008)	0.003 (0.006)	0.002 (0.008)
	자녀의 학업성취 만족도	0.020 (0.014)	0.032 (0.021)	0.008 (0.015)	-0.000 (0.019)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0.001	-0.006	-0.016	-0.012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OLS	PSM+OLS	OLS	PSM+OLS
		(0.015)	(0.023)	(0.017)	(0.023)
	자녀의 장래 희망 교육 수준	0.013 (0.010)	0.028* (0.017)	-0.025** (0.012)	-0.033** (0.015)
	자녀 수	0.008 (0.014)	-0.017 (0.021)	-0.005 (0.016)	-0.014 (0.020)
	자녀 중 응답자의 순서	0.010 (0.015)	-0.012 (0.023)	0.019 (0.017)	0.016 (0.020)
학교 특성	학교소재지_중소도시 (참조: 대도시)	-0.040** (0.019)	-0.011 (0.029)	0.012 (0.021)	-0.021 (0.028)
	학교소재지_읍면 (참조: 대도시)	-0.023 (0.026)	0.019 (0.036)	-0.046 (0.029)	-0.067* (0.034)
	cons	-0.319 (0.226)	-0.251 (0.329)	3.214*** (0.251)	3.413*** (0.345)
	R^2	0.472	0.445	0.343	0.346
	N	1,725	1,264	1,725	1,264

주: * p<.1; ** p<.05; *** p<.01

먼저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LS 분석결과와 PSM 분석결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열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OLS로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의 자녀가 미참여 학부모의 자녀에 비해 학업무기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부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성은 PSM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OLS 분석결과에 비해 PSM 분석결과의 추정계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나, 학부모 진로준비활동 참여의 효과를 OLS 분석결과에서 과소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통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최종 분석모형인 PSM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업열의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장래희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방과후학교 학습시간과 자습시간이 길수록 높았다. 한편, 학업무기력의 경우,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습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장래 희망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더 낮게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중학생 진로발달과 학업을 위한 학부모의 진로 개입에 주목할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진로개입과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향점수매칭을 적용한 선형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과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엄밀한 추정값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분석에 활용된 학부모 응답 가운데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는 46.7%, 미참여한 학부모는 53.3%로 나타나 진로준비활동에 미참여한 학부모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가지 이상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1-2가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관련 상담(24.6%),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22.5%)와 같이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진로적응력이 높고, 진로결정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부모의 학교진로교육 참여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김소라, 문승태, 2017)와 유사한 결과이며, 진로관련대화정도,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 등과 같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문찬주 외, 2019; 박찬미 외, 2020).

셋째,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자녀의 학업무기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자녀의 학업열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무기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학업열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의 진로발달과 학업무기력 해소를 위해 자녀뿐 아니라 학부모의 진로 관련 활동의 참여도 진작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자녀의 진로준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학부모의 행동이나 역할이 자녀의 진로발달과 학업무기력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으로 설명되듯,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구체적인 행동은 진로발달과 학업에 강화를 줄 수 있는 유의미한 개입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한 진로준비활동 및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와 학업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절반 이하(46.7%)로 드러나 자녀의 진로준비활동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진로관련 상담(24.6%),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22.5%),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17.0%)와 같이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나 인터넷과 연계된 1-2가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지도에 있어 본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관련한 지도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유정이 외, 2009), 본 연구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학부모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마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상담 및 진학 관련 설명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학부모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학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명회, 직업인 특강,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홍보한다면 학부모들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를 진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와 학업 간의 관계에 주목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자녀의 진로발달뿐 아니라 학업으로까지 확장하여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이 자녀의 학업무기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학업무기력은 학업성취뿐 아니라 진로고민이나 일상생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장수연, 정제영, 2020),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주소희, 2020) 학업무기력에 빠진 학생을 중재하기 위한 학부모의 진로 관련 개입의 효과성을 밝힌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학업열의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학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이 학생들의 학업태도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학업열의에까지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나 프로그램이 보완되고 기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만을 변수로 하였으므로 참여하는 진로준비활동의 유형이나 그에 따른 만족도는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학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진로준비활동의 질적인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활동 유형에 따른 효과성이나 만족도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강연미, 김희수. (2020). 어머니의 청소년기 자녀 진로관여 경험연구. **학부모연구, 7**(1), 21-47.

김경주, 송병국. (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91-115.

김덕주, 권혁철. (2013). 특성화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부적응적 방어기제 및 만성적 지연행동과 진로미결정수준간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0**(3), 587-605.

김소라, 문승태. (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27-48.

김용기. (2022).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P 지역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방과후학교연구, 9(**2), 43-59.

김재희. (2020). 중학생과 부모 간 희망직업 및 희망교육수준 불일치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5), 89-117.

김준엽(2011). 경향점수를 활용한 인과효과의 추론. **교육정책 분석방법론 워크샵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태한, 전영욱. (2021).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한 청소년학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75-93.

목경수, 구자경. (2012). 고등학생의 부· 모 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119-1139.

문찬주, 이영선, 이지영, 정동욱. (2019). 부모-자녀 간 희망전공계열 일치가 중학생의 학습 경험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0**(3), 617-645.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박완성, 김미숙(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박찬미, 조현경, 김재철. (2020).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진로관련대화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2), 467-492.

송인발, 강혜영. (2016).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140-149.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3), 71-96.

이영광. (2020). 중학생 진로개발역량과 부모 진로 모니터링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진

로일치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2), 23-47,

이응택, 최재혁. (2017).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와의 진로관련대화와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47-66.

이현미, 정제영. (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기교육종단연구 (GEPS) 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장수연, 정제영. (2020). 교사 및 친구 관계, 그릿, 학업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1**(4), 203-234.

장현진. (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및 진로활동 경험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32**(3), 43-64.

조명근, 이규원, 채석원. (2020). 초중고 학부모와 자녀의 희망진로 미스매치와 진로성숙도. **학부모연구, 7**(1), 77-95.

조윤진, 조규판. (202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8), 163-185.

주소희. (2020).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비행에 관한 연구: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3), 955-964.

한상근, 진미석, 이영대, 임언, 이지연, 이양구, 정윤경. (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Bronfenbrenner, U. (1995). **인간발달 생태학** (이영 역). 교육과학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Bronfenbrenner, U., & Evans, G. W. (2000). Developmental science in the 21st century: Emerging questions, theoretical models, research designs and empirical findings. Social development, 9(1), 115-125.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Frey, C. B., & Osborne, M. A.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254-280.

Howard, K. A. S., Ferrari, L., Nota, L., Solberg, V. S. H., & Soresi, S. (2009). The relation of cultural context and social relationships to career development in middle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0-108.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

144-180.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71-92.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Young, R. A. (1984a).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401-417.

Young, R. A. (1984b). Toward an Ecology of Career Development. *Canadian Counsellor, 18*(4), 152-159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 및 학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재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하나로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에 주목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경향점수매칭(PSM)과 같은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엄밀한 통계적 접근을 실시한 것은 이 연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다만 좀 더 많은 시사점 발굴 및 후속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토론자는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이 연구의 방향과 연구문제에 관련하여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라는 약간은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학생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적응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학업태도까지 연결하여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논리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해보기를 권한다.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와 진로발달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나아가 학업태도(또는 학업)의 영역까지 확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중간 요인들이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엄밀한 분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나 제언이 쉽게 해석이되거나 수용되지 않는 것 같다. 진로활동의 성과를 학업적 요인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방향이나 시도 자체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더 나아가 학생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성숙을 매개하여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해도 결과에 대한 매끄러운 해석은 쉽지 않을까 생각될만큼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요컨대, 추후 이 연구를 심화시키거나 정리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다면 현재와 같은 구성보다는 매개효과를 포함한 확장된 분석이 적절한 접근이 되지 않을지 제안해본다.

둘째, 이 연구의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연구문제 1번(학부

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양상은 어떠한가?)과 그에 따른 Ⅳ장 1절의 분석 결과는 이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표 4〉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의 기술통계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을 학부모의 참여 양상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반페이지 정도로 해석을 달만한 여지나 의미도 없다고 보여진다. 굳이 학부모의 참여 양상을 설명하고자 하면 〈표 5〉 정도일 것이고, 그것 또한 길게 해석하거나 굳이 별도의 연구문제를 가질 의미는 없어 보인다. 만약 연구진에서 참여/미참여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싶다면 '양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분석도 차이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한편, 연구문제 2번에서 장래직업 결정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은 결과 해석이 쉽지 않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이분변수임에 따라 의미 전달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결과로는 학부모가 진로준비활동에 참여하면 학생의 직업이 결정될 확률이 40% 정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론의 둘째에 서술한 것처럼 학부모의 진로준비활동 참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진로결정확률이 높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발생한다. 이에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진로준비활동 참여 여부의 이분변수로 처리하기 보다는, 0개에서 1개, 1개에서 2개로 늘어날 때 학생의 진로결정 여부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연속변수로 분석하는 것은 어떠할지 제안해본다.

셋째, 논문(발표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학업'이라는 표현을 전반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업태도'가 대상 요인이므로 〈학업→학업태도〉로 모든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학업이라고 표현하면 학업성취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음. 또한 통제변수에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혼선이 생김).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 생태학적 체제이론(Ⅱ-2)을 약 2장 분량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배경 맥락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연구내용과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시사점의 첫째에 한번 언급)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학업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더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한편,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결과와 명료하게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서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연구자의 기존 생각이나 일반적인 판단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좋겠다. 예컨대 시사점 둘째를 통해 서술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 연구의 주된 분석결과를 통해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진로교육이나 정보 제공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의 주요 초점은 아니므로 재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결론의 시사점 셋째 부분에서 선행연구를 다소 과다하게 설명한 부분은 가급적 이론적 배경 부분으로 보

내는 것이 구성상 적합할 것이다.

그 외 사소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문장들이 전반적으로 다소 길어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만연체는 지양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짐작할 수 있다'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들은 수정되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도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것은 한번 더 확인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는 좋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횡단자료 분석으로만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에 종단적 분석이나 자기회귀분석모형 등을 활용한 접근도 시행해보기를 기대한다.

진로활동별 잠재집단에 따른 진로준비도 및 특성 분석

조명근*·전지혜**·구남욱+***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활동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잠재집단 분석 결과, '소극적 학교 진로활동형', '적극적 진로활동형', '소극적 진로활동형', '능동적 학교활동형'의 네 가지 잠재집단을 도출되었으며, 네 잠재집단에서 전반적으로 희망직업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임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잠재집단별 진로성숙도 결과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잠재집단분석, 진로활동, 아동청소년패널조사

* 호서대학교 더함교양대학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gu9971@kice.re.kr

Ⅰ. 서론

청소년 시기 진로 활동은 청소년의 미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 가치관을 성립하는 등 개인적 발달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김민선, 2020), 진로체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건전한 진로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김승보, 2010)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경험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애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지애, 2020).

최근 교육부에서도 전 생애에 걸쳐 진로교육을 실행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2023)는 '2023-2027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① 학교 진료교육 내실화', '② 미래 사회 대응 역량 강화', '③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④ 진로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라는 네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과제별 내용을 살펴보면, '① 학교 진료교육 내실화'에서는 '초등 진로교육 지원 확대', '학교 진로·창업교육 내실화', '모든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② 미래 사회 대응 역량 강화'에서는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확대', '도전정신을 기르는 창업가 정신 함양 지원', '통합 진로교육정보망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통합 진로교육정보망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③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에서는, '진로·창업체험지원센터 내실화', '진로·창업체험 생태계 구축', '진로·창업체험 생태계 구축',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④ 진로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에서는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대학생 진로교육 확대 추진', '성인의 진로 확립·전환을 위한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세부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진로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 중등 학생들의 진로 활동 경험의 잠재집단 유형을 파악하고, 잠재집단 유형별 진로계획 및 진로 준비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 경험이 진로 계획 및 진로 준비 정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교육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활동유형 및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청소년 시기 진로 활동은 청소년의 미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 가치관을 성립하는 등 개인적 발달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진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 이후 학교 내 진로교육이 활성화 되면서(교육부, 2015) 청소년의 진로활동은 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학교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활동은 교육과정 내 진로 관련 교과목을 설치하거나 관련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진로 관련 검사 및 상담 등의 활동도 청소년의 진로활동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학교의 진로교육 실태에 대해 연구한 문진, 소경희(2016)에서는 교육과정 내 '진로와 직업'과 같은 과목 편성 여부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의 진로 관련 시간 편성 정도를 통해 학교 내 진로교육을 실태를 조사하였다. 박현진, 백성혜(2015)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활동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이 진로인식에 변화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내에서 진로활동 체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2016)에서는 청소년의 진로활동을 참여형태에 따라 정기형, 캠프형, 박람회형으로 분류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을 정기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숙박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캠프형, 넓은 공간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박람회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CYPS 2018에서는 진로준비 활동에 대한 문항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진로준비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진로선택 및 선택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은실, 이제순(2018)에 따르면 NLP 진로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그룹코칭 프로그램에 참여가 진로준비행동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은선, 탁진국, 2014).

2. 진로활동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진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김민선, 2020)를 살펴보면 성별, 진로체험 활동 만족도,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대화 수준이 참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수준에서는 소속 학교의 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 진로 활동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순안, 최동규, 김상희(2021)에서는 청소년 시기 진로성숙도와 진로활동에 서로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2016)에서도 청소년 시기 진로활동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두 변수 간에 부모애착이 정적인 조절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20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교육과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종국(2004)에서는 조사대상을 비행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진로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교화 프로그램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청소년 시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진로계획은 청소년 시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전훈, 조형대, 조현진, 이혜선(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개념이 진로교육을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애(2020)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서림, 이숙향(2022)에서는 진로활동 유형 중 동아리 활동이 장애학생의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교육 유형별에 따른 차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중1코호트의 5차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전체 2,590명의 대상자 중 설문에 응답한 2,252명의 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도시 규모 (학교 기준)	대도시	995	44.6%	시/도 (학교 기준)	서울	396	17.7%
	중소도시	887	39.8%		부산	122	5.5%
	읍면지역	349	15.6%		대구	98	4.4%
고등학교 유형	일반 고등학교	1808	81.0%		인천	182	8.2%
	자율형 고등학교	107	4.8%		광주	58	2.6%
	예술·체육계열	33	1.5%		대전	61	2.7%
	과학·외국어 계열	47	2.1%		울산	37	1.7%
	마이스터고	26	1.2%		세종	41	1.8%
	특성화 고등학교	203	9.1%		경기	543	24.3%
	기타 학교	7	.3%		강원	54	2.4%
					충북	85	3.8%
					충남	85	3.8%
					전북	106	4.8%
					전남	74	3.3%
					경북	112	5.0%
					경남	150	6.7%
					제주	27	1.2%

2. 측정 도구

학생들의 진로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잠재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 응답은 1: 참여한 적 없음, 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6: 매우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은 참여하지 않음, 그 외 모든 값은 참여함으로 변경하여 참여집단과 미참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또한 16개 진로활동 각각을 모두 개별 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잠재집단으로 추정해야 하는 잠재집단의 총 수가 216개로 매우 많아져 분석이 불가하므로 성격이 비슷한 활동들을 묶어 하나의 변수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새롭게 구성한 활동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들에 대한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활동 중에서도 오랜 시간 참여해야 하는 동아리 활동 등에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일회성 참관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이 1.21~1.78로 나타났다. 특별히 특강 및 강연에 대한 내용이 1.78로 높았고,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가 1.74로 비슷

하게 나타났다. 반면 학업설계워크숍이나 직업 박람회의 만족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험활동 진로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모든 재구분 변수 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1.15~1.39의 평균을 보였다. 이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 대비 낮은 참여율로 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진로관련 자료탐색 활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책이나 잡지보다는 인터넷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활동 참여율은 29.1~41.6%로 나타나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성 참관 프로그램은 6.1~24.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별히 학업설계 워크숍에 대한 참여율이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험활동은 4.0~10.8%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자료탐색 활동은 19.0~3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 진로활동 참여 및 만족도 평균

문항	참여율(%)	기술통계		재구분 변수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진로와 직업 수업	41.6	2.39	1.74	학교 활동 프로그램	.78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29.1	1.95	1.56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53.3	2.85	1.82		
진로관련 상담	40.5	2.43	1.80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19.0	1.68	1.46		
특강 및 강연	24.5	1.78	1.48	일회성 참관 프로그램	.68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21.6	1.74	1.47		
학업설계 워크숍	6.1	1.21	0.85		
직업 박람회	12.4	1.23	0.89		
현장 견학	9.2	1.45	1.23		
현장 직업체험	4.0	1.34	1.08	체험활동 프로그램	.69
직업 실무 체험	5.2	1.15	0.74		
진로 캠프	10.8	1.18	0.78		
대학 연계 진로 활동	6.6	1.39	1.17		
진로관련 책/잡지	19.0	1.67	1.43	자료 탐색	.77
진로관련 인터넷 자료	31.3	2.12	1.72		

1: 참여한 적 없다, 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6: 매우 도움이 되었다.

표 3. 진로준비도 문항의 기술통계량

문항	기술통계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나는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32	0.74	.87
나는 내가 바라는 직업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2.15	0.76	
나는 정말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겠다	2.36	0.82	
나는 직업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2.27	0.78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2.34	0.7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7	0.77	.82
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2.26	0.79	
내가 세운 직업 계획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2.37	0.77	
사람마다 나에게 하는 말이 달라 나는 어떤 분야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2.26	0.77	
나는 직업 선택을 계속 바꾸고 있다	2.25	0.82	
나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자주 공상하지만 실제로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는 못했다	2.36	0.80	.82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2.37	0.81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2.35	0.83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진로준비에 대한 문항의 평균은 위의 〈표 3〉과 같다. 모든 문항이 진로 준비에 대한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야를 정하거나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스스로 바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본인이 진로상 어떤 분야에 적합한지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간중심의 분석방법 중 하나인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잠재집단 분석은 연구대상의 잠재적 특성을 관찰 가능한 변수를 통해 서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 때 연구자가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확률적인 추론에 따라 분류하며, 각 집단에 소속될 확률 등을 통해 집단을 분류한다. 또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의 이름을 명명하거나 구분한다(Asparouhov & Muthen, 2014).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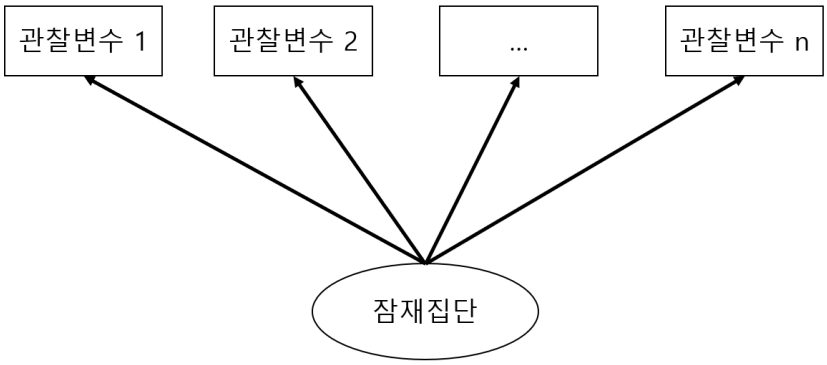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Mplus 8.4와 SPSS 25.0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설문응답을 통합한 후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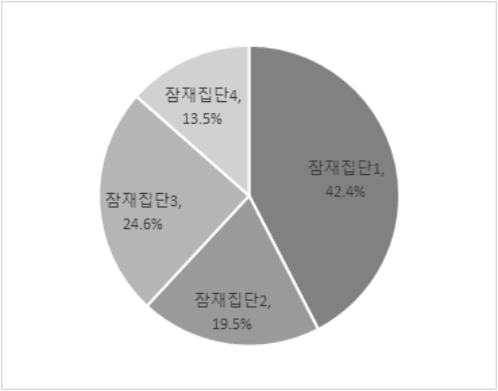
계층 수	AIC	BIC	SABIC	LMR-LRT	BLRT	Entropy
2	9519.496	9570.972	9542.378	.000	.000	.72
3	9485.162	9565.236	9520.756	.000	.000	.65
4	**9489.71**	**9598.383**	**9538.017**	**.079**	**.085**	**.85**
5	9499.391	9636.661	9560.409	.592	.597	.67

잠재집단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정보지수 및 지표들을 활용한다. 정보지수를 나타내는 AIC, BIC, SABIC는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며, LMR검정은 적은 잠재집단 수 대비 현재의 잠재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나타낸다. Entropy는 모형의 분류율을 나타내므로 어느정도 높은 것이 좋다. 또한, 잠재 집단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해석의 용이성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보지수를 나타내는 AIC, BIC, SA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높았으나, 모형 분류의 질인 entropy가 .65로 낮게 나타났다. Entropy가 낮다는 것은 각 잠재집단으로 명확하게 분류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잠재집단은 4개로 선정하였으며 잠재집단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잠재집단	비율
1	42.4%
2	19.5%
3	24.6%
4	13.5%

잠재집단 비율



그래프

[그림 1] 잠재집단 비율

각 잠재집단의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 잠재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잠재집단의 특성

	잠재집단 1		잠재집단 2		잠재집단 3		잠재집단 4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활동 프로그램	499	46.9%	446	99.3%	416	93.5%	193	65.6%
일회성 참관 프로그램	0	0.0%	420	93.5%	402	90.3%	13	4.4%
체험활동 프로그램	0	0.0%	224	49.9%	157	35.3%	5	1.7%
자료 탐색	0	0.0%	449	100.0%	0	0.0%	294	100.0%

잠재집단 1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검사, 상담, 동아리)에만 참여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극적 학교 내 진로활동 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잠재집단 2와 잠재집단 3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에서 하는 진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잡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았는지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들 집단은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에도 대부분 참여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잠재집단 2는 '적극적 진로활동형', 잠재집단 3은 '수동적 진로활동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4는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참여와 책, 잡지, 인터넷 등의 자료를 수집한 집단으로 '능동적 학교활동형'으로 명명하였다.

구분된 잠재집단별 참여 활동 비율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잠재집단별 참여활동 비율(%)

	학교 내 진로활동 참여형	적극적 진로활동형	수동적 진로활동형	능동적 학교활동형
'진로와 직업' 수업	21.9	75.3	59.3	34.7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9.2	62.8	47.6	21.8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29.9	88.2	76.6	49.7
진로 관련 상담	16.7	80.2	56.9	41.5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3.6	54.8	23.1	13.6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	70.2	51.2	2.7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	65.0	42.9	1.0
학업 설계 워크숍	-	19.6	11.0	0.3
현장 견학	-	35.9	25.6	1.7
현장 직업 체험	-	25.8	19.8	1.0
직업 실무 체험	-	14.3	6.1	-
진로 캠프	-	19.8	5.6	1.0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	35.6	18.2	0.7
직업박람회	-	19.4	13.7	0.3
진로 관련 책/잡지	-	59.5	-	54.8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	95.5	-	93.9

소극적 진로활동형의 경우 학교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의 진로활동처럼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에는 3.6%만 참여하여 타 집단 대비하여 매우 낮은 참여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즉적 진로활동형의 경우 모든 진로관련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은 학교 내 활동이었다. 학교 내 활동 중에서도 각종 검사 등에 많이 참여하고 진로 관련 특강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찾기 활동에도 95%이상이 참여하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동적 진로활동형 집단의 경우 능동적 학교 활동형보다 학내 활동에는 더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회성 특강이나 견학에도 활

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관련된 자료를 직접 찾아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학교활동형의 경우 학교활동에 참여하지만 주로 수업과 상담 활동에 치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활동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코딩을 변경하였다. 앞의 〈표 2〉에서는 '1: 참여하지 않음, 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6: 매우 만족한다.'에 대한 평균을 제시하였으나, 미참여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1: 참여하지 않음, 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6: 매우 만족한다.'에 대한 코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표 7. 응답변수 재코딩 결과

기존	재 코딩
1: 참여하지 않음	시스템 결측
2: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4: 보통이다.	3: 보통이다.
5: 만족한다.	4: 만족한다.
6: 매우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변경한 개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8〉과 같다. 전반적으로 적극적 진로활동형 집단과 능동적 학교활동형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수동적 진로 활동형' 학생들의 경우 현장견학이나 직업체험, 실무체험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내 진로활동 참여형 학생들과 능동적 학교활동형 학생들의 경우 교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 진로활동형 학생들의 경우 타 집단 대비 일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표 8. 재코딩된 개별활동에 대한 잠재집단별 만족도

	학교 내 진로활동 참여형	적극적 진로활동형	수동적 진로활동형	능동적 학교활동형
'진로와 직업' 수업	3.43	3.29	3.27	3.49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3.28	3.33	3.19	3.33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3.29	3.51	3.52	3.60
진로 관련 상담	3.41	3.63	3.38	3.71

	학교 내 진로활동 참여형	적극적 진로활동형	수동적 진로활동형	능동적 학교활동형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3.42	3.67	3.50	3.55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	3.46	2.87	2.88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	3.54	3.27	3.00
학업 설계 워크숍	-	3.42	3.45	3.00
현장 견학	-	3.63	3.68	3.00
현장 직업 체험	-	3.71	3.63	3.00
직업 실무 체험	-	3.64	3.70	-
진로 캠프	-	3.45	3.44	2.33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	3.69	3.59	2.50
직업박람회	-	3.47	3.54	3.00
진로 관련 책/잡지	-	3.61	-	3.40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	3.64	-	3.51

표 9. 잠재집단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소극적 학교 내 진로활동 참여형'	'적극적 진로활동형'	'수동적 진로활동형'	'능동적 학교활동형'
안정성	3.08	3.18	3.12	3.28
임금	3.27	3.29	3.19	3.46
사회적 지위	2.94	2.82	2.87	2.89
국가에 기여	2.83	2.72	2.73	2.88
소질과 적성	3.16	3.24	3.07	3.32
쾌적한 환경	3.09	3.27	3.21	3.22
시간적 여유	3.05	3.19	3.19	3.26
가족과의 시간	3.03	3.12	3.10	3.16
여러 사람과 어울림	2.99	2.92	3.05	3.05
비경쟁적 풍토	2.99	3.05	3.04	3.04
자율적 분위기	3.05	3.11	3.25	3.14
다양한 경험	3.06	3.09	3.25	3.17

해당 희망직업을 선택한 요인에 대한 설문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위 〈표 9〉와 같다. 이 중 직장의 비경쟁적 풍토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학교 내 진로활동 참여형' 학생들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본인 진로의 안정성, 쾌적한 환경, 시간적 여유, 가족과의 시간 등의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진로 활동형' 학생들의 경우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다른 집단 대비 높은 평균을 가졌으며,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진로 활동형' 학생들의 경우 직업 선택 요소에서 임금이 다른 학생들에 비

해 낮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질과 적성에 있어서도 낮은 평균을 보였다. 반면 자율적인 분위기나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문항에는 다른 집단 대비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학교 활동형' 학생들의 경우 안정성과 임금을 진로 선택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여러 직업 선택 요소에서도 특별히 낮은 점수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은 진로 생각, 진로탐색, 진로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학생들의 진로준비도를 묻는 문항이다. 문항이 역문항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4점 척도이므로 이를 역코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진로준비도의 하위 요인별 결과는 다음 〈표 10〉와 같다.

표 10. 잠재집단별 진로준비도 평균

	소극적 학교 진로활동형	적극적 진로활동형	소극적 진로활동형	능동적 학교활동형
진로 생각	2.59	2.99	2.70	2.82
진로 탐색	2.59	2.85	2.66	2.77
진로 경험	2.61	2.89	2.56	2.81

전반적으로 적극적 진로활동형 집단이 진로성숙도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높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학교활동형, 수동적 진로활동형, 소극적 학교활동형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수동적 진로활동형과 소극적 학교활동형 사이에 차이를 보인 문항은 어떤 분야에 대해 본인이 관심이 있고 확신하는지를 묻는 문항이었다. 오히려 소극적 학교활동 집단이 수동적 진로활동형 학생들보다 본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확신 면에서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집단별 학생 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학기 전과목 성적 수준에 대한 집단별 비교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도시 규모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학생들의 지난 학기 전과목 성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잠재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성적 수준은 진로활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도시규모는 잠재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소극적 학교 진로활동형과 능동적 학교활동형의 경우 대도시가 4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진로활동형이나, 소극적 진로활동형 집단보다 많은 인원이 대도시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적극적 진로활동형이나 소극적 진로활동형의 경우 중소도시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극적 진로활동형의 경우 중소도시의 비율이 52.7%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지역 규모별로 진로활동 프로그램 개설 여부의 양극화에 의한 것인지, 또는 도시 규모별로 학업에 대한 열의 차이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도시규모별 소득 격차에 따른 차이인지는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1. 잠재집단 별 지난학기 성적 수준 및 소속 도시 규모

구분	소극적 학교 진로활동형		적극적 진로활동형		소극적 진로활동형		능동적 학교활동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	3.13	0.72	3.09	0.80	3.09	0.74	3.17	0.81
도시규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도시	524	49.9%	182	40.6%	146	33.0%	143	49.1%
중소도시	382	36.4%	181	40.4%	233	52.7%	91	31.3%
읍면지역	144	13.7%	85	19.0%	63	14.3%	57	19.6%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활동별 잠재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극적 학교 진로활동형’, ‘적극적 진로활동형’, ‘소극적 진로활동형’, ‘능동적 학교활동형’의 네 가지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잠재집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극적 학교 진로활동형’ 42.4%, ‘적극적 진로활동형’ 19.5%, ‘소극적 진로활동형’ 24.6%, ‘능동적 학교활동형’ 13.5%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진로활동형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좀더 능동적인 진로활동형 집단에 소속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이나 교육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잠재집단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수동적 진로활동형’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임금에 대한 응답 평균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희망직업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임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잠재집단별 진로준비도 결과에서 ‘적극적 진로활동형’ 집단과 ‘능동적 학교활동형’ 집단의 응답 평균이 ‘소극적 학교진로활동형’ 집단과 ‘소극적 진로활동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진로준비도를 향상시키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활동 실태를 탐색하고 특성에 따른 이질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집단 간 진로준비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분류된 이질집단 중 ‘수동적 진로활동형’ 집단의 희망직업 선택 요인이 유일하게 다른 집단의 선택 요인과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5).「진로교육법 시행령」제정. 교육부보도자료 2015.12.15.

김승보(2010).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개선방안. 2010년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자료집, 51-9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민선(2020). 중학생들의 진로활동 참여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분석: 개인특성과 학교특성. 교육연구논총. 41(2). 27-52.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2016). 청소년진로활동의 실태와 프로그램 분석. 청소년학연구. 23(4). 319-343.

문진, 소경희.(2016).중학교 진로교육 운영 실태 분석.진로교육연구,29(4),135-155.

박현진, 백성혜(2015).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21(1). 11-31.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2017). 중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과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4). 67-92.

양종국(2004). 체험활동중심 진로탐색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2). 92-105.

어은선, 탁진국(2014). 독서를 활용한 중학생의 진로그룹코칭의 효과성 연구: 자존감,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91-413.

이서림, 이숙향(2022). 진로 준비를 위한 통합 동아리 활동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장애학생의 진로계획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8(3). 353-376.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2009).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신뢰 및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129-148.

임은실, 이제순(2018). 학교 밖 청소년의 NLP 진로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4(4). 305-333.

정지애(2020).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3). 683-696.

전훈, 조형대, 조현진, 이혜선(2010).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진로계획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7(12). 235-257.

현순안, 최동규, 김상희(2021). 청소년 진로성숙도와 진로활동 간의 종단연구: 대구교육종단연구(DELS)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19). 1-24.

Asparouhov, T., & Muthe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진로활동별 잠재집단에 따른 진로준비도 및 특성 분석’에 대한 토론문

신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코호트 제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해 진로활동참여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구분된 잠재집단 간 특성과 진로계획 및 진로준비 정도 등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진로교육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이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활동에 어떠한 양상으로 참여하고, 활동 참여의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연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볼만한 내용을 위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잠재집단분석을 위해 투입되는 진로활동 관련 변수를 영역별로 묶지 않고 개별변수로 활용했을 때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개별변수의 수보다 각 지표가 이론적으로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한데다, 투입되는 지표가 많아질수록 집단구분의 정확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Weller et al., 2020).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가 2,252명으로 적지 않고, 각 진로활동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각 지표가 갖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석함이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진로활동 유형과 체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요인을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잠재집단별로 도시규모와 지난 학기 성적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나, 예를 들어 개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잠재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진로활동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성별, 부모와의 대화 수준, 학교 규모 등)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수준, 고등학교 유형 등을 통해 진로활동 유형 구분에 개인배경이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잠재집단의 구분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요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나무나 랜덤포레스트 등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요인과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기도 한다.

셋째, 진로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에 대해 잠재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청된다. 단순히 의미적으로 진로활동이 진로준비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진로에 대한 높은 인식이 진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와 같은 역의 관계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종단자료의 장점을 살려 시간의 선후에 근거한 인과관계에 가까운 분석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넷째, 진로활동 유형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진로활동 유형에 따른 결과에 이론과 분석적 엄밀성이 더해졌을 때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명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적극적 진로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부족한 진로활동을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바탕이 된 진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진로교육법」이 시행된 이래,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소외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Latent Class Analysis: A Guide to Best Practi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6*(4), 287-311. https://doi.org/10.1177/0095798420930932

Session
3

10주제 I

심리/정서 C

청소년기 정서 문제의 Rasch 모형 분석

권순보*·유진은+**·최인희***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분점수 모형과 평정척도 모형을 활용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8 5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정서 관련 문항의 타당도를 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분점수 모형과 평정척도 모형으로 모형적합도, 개별문항의 적합도, 응답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분점수 모형이 평정척도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문항마다 척도의 동간성이 다르다는 가정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에서 활용한 36개의 정서 관련 문항은 부분점수 모형과 평정척도 모형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정서 문제의 문항을 4점 척도의 응답범주로 구성하는 것은 부분척도 모형과 평정척도 모형에서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KCYPS 2018, 부분척도 모형, 평정척도 모형

* 효행초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jeyoo@knue.ac.kr
*** 숙명여자대학교

Ⅰ. 서론

청소년기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모든 발달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 환경이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아동기와는 다르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증가되는데 그에 걸맞는 자아의식은 형성되지 못해 학생들은 공격성, 우울, 사회적위축과 같은 문제를 발생한다.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정서 문제는 학교 적응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의 정서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1]는 OECD 22개 국가 중 20위로 보고되었다(염유식, 김경미, 2019). 또한,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39.9%)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고, 10명 중 3명(28.2%)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한국 청소년들의 정서 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and Youth Panel Study; 이하 KCYPS)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패널 자료를 제공하여준다. 그동안 KCYPS의 정보를 활용하여 청소년 시기의 정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미숙, 2017; 김진아, 한귀례, 2014; 한정아, 2017; 홍원준, 2020). KCYPS의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정서 문제 측정 척도는 5요인 36문항으로 구성된다. 조붕환, 임경희(2003)이 적용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척도 21문항, 김선희, 김경연(1998)이 적용한 사회적위축 척도 5문항, 김광일 외(1984)가 적용한 우울 척도 10문항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같은 고전검사이론을 사용하여 척도의 타당성 검토를 한다. 고전검사이론은 문항특성의 불변성과 피험자 능력의 불변성을 지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문항반응이론에서는 문항 특성의 불변성과 피험자 능력 불변성을 유지하여 개별 문항의 기능뿐 아니라 피험자 능력을 명확히 추정할 수 있다(홍아정 외, 2020). 문항반응이론의 모형은 크게 이점척도 모형(dichotomous model)과 다점척도 모형(polytomous model)으로 나누어진다. 이점척도 모형은 1모수, 2모수, 3모수 로지스틱 모형과 Rasch 모형으로 구성되고, 다점척도 모형은 크게 평정척도 모형(rating scale model; 이하 RSM), 부분점수 모형(partial credit model; 이하 PCM), 등급반응 모형(graded response model; 이하 GRM), 그리고 일반화 부분점수 모형(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이하 GPCM)으로 구성된다(김세형, 2019).

1) 주관적 행복의 세부 요소는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적응', '외로움'으로 구성되었다.

정서 문제와 같은 심리를 측정하는 것은 대부분 다점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그 중 RSM과 PCM은 다점척도로 측정된 검사의 타당화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5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정서 관련 문항을 가지고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RSM과 PCM을 적용해서 모형적합도, 개별문항의 적합도, 응답척도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정하려고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서 문제의 개념

1) 주의집중

주의집중은 주의력과 집중력으로 나눌 수 있다. 주의는 외부환경과 개체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자극 중에서 특정한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거나 반응하는 선택적 활동 및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Cherry, 1953; 박윤현, 2013). 즉, 기억 대상으로 남게 되는 자극이나 정보를 서로 유의미하게 연관시키는 인지 과정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의집중의 정의는 자극 중에서 특정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무시하는 인지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공격성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번째는 그 반응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관찰할 수 있는 특성과 그 반응의 효과만을 정의하는 것이다. Buss와 Plomin(1975)은 인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정의했고, Feshbach와 Sones(1971)는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두번째는 반응의 특징 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Pines과 Aronson(1988)은 자신 혹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의도를 갖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Berkowitz(1974)는 타인을 상해할 의도를 가진 목표지향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3) 신체증상

신체화(somatization)란 신체 불편감과 증상들을 경험하며 호소하는 경향으로 병리적 발견으로 설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질병으로 귀인하고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Lipowski, 1988). 즉, 몸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는데 신체적인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현균, 임지영, 2003; 정계숙, 2009).

'신체화'라는 용어는 Steckel(1943)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Steckel는 무의식 깊이 내재한 신경증이 신체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신체화를 방어기제의 일종 또는 갈등 해결의 시도인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와 다른 최근의 개념을 보면 신체화를 무의식의 갈등에 따른 산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감정 장애의 신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송지영, 1994). Kellner(1991)는 신체화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하나 이상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신체 증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질적 병리와 생리적 기제가 없다. 그리고 기질적 병리가 있는 경우 신체 증상의 호소 및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실제 기질적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클 때이다.

4) 사회적위축

사회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은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자주 표현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이종원 외, 2013). 또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부담스러워하여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외로움을 느낀다(최태산, 김자경, 2016).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Bowker & Raja, 2011).

5) 우울

우울은 현실에서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슬픔, 침울, 낙담, 무가치함, 공허, 절망감의 과장된 감정이다(Kneisl & Wilson, 1996). 그러나 이는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대분분의 사람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우울은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김성일, 정용철, 2001).

청소년기는 시간개념에 대한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성인처럼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신중한 사고

와 행동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해당 시기는 정체성이 확립 되는 시기로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이 갈등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기는 심리·신체적 변화가 많고 학업 등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이 많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에 비해 인지적·정서적으로는 미성숙한 시기여서 그에 따르는 심리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김은정, 2010).

2. 정서 문제의 척도

정서 문제의 척도를 타당화 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서 경험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가 있다(이지선, 채드에베수타니, 윤석영, 노은정, 2019). 해당 연구는 총 1,026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 동일성 검증,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척도에는 상관 2요인 정적 및 부적 정서 모형이 독립 2요인 정적 및 부적 정서 모형, 1요인 모형보다 유의하게 적합함이 판명되었다. 조붕환, 임경희(2003)는 아동의 정서와 행동 문제의 평정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측정 도구와 문헌 조사로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내용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보람, 안선영(2023)은 청소년기 정서 문제 중 우울과 관련하여 KCYPS 2018 4차년도 중학생 데이터를 활용해 친구관계 수준에 따라 우울 척도에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하는지 탐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KCYPS 2018' 5차년도에 응답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자료이다. KCYPS 2018의 표본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KCYPS 2018의 조사내용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사영역은 '개인발달' 영역과 '발달환경' 영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정서 문제는 '개인발달' 영역의 '사회/정서/역량발달'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에 응답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231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은 연구에서 분석한 5차년도 응답자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193	53.5
	여성	1,038	46.5
도시규모	대도시	995	44.6
	중소도시	887	39.8
	읍면지역	349	15.6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에서 사용하는 정서 문제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 문제 측정도구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높은 응답범주를 선택할수록) 정서적인 부분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정서 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위축, 우울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정서 문제 측정 문항

문항번호	주의집중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공격성
8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9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10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11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12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13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신체증상
14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15	머리가 자주 아프다
16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17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18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19	자주 피곤하다
20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21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회적위축
22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23	부끄럼을 많이 탄다
2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25	수줍어한다
2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우울
27	기운이 별로 없다
2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29	걱정이 많다
3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31	울기를 잘한다
32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33	외롭다
34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35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36	모든 일이 힘들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KCYPS에서 사용하는 정서 문제 척도를 재구성하기 위해 Rasch 모형(Rasch, 1960)에 기초한 Rasch PCM과 Rasch RSM을 적용하였다. PCM은 각 문항마다 척도의 동간성이 다르다는 가정으로 추정을 한다. 1PL에 해당하는 모형이 다항 형태로 확장된 형태로 α 값을 1로 가정한다.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_{ix}(\theta) = \frac{\exp[\sum_{j=0}^{x}\theta - \delta_{ij}]}{\sum_{x=0}^{m}[\exp\sum_{j=0}^{x}\theta - \delta_{ij}]} \quad , \ (\sum_{j=0}^{0}(\theta - \delta_{ij}) = 0)$$

- δ_{ij} : 문항 i의 j 범주 단계 난이도
- x : 문항 반응 범주
- θ : 피험자 잠재능력
- m : 문항의 범주 개수

위의 식에서 δ_{ij}는 step difficulty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4점 척도 문항의 경우 1점, 2점, 3점, 4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1점에서 2점 사이의 두 개 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1점에서 2점으로 넘어가는 값을 구한다. 마찬가지로 2점에서 3점, 3점에서 4점으로 넘어갈 때 값을 구하며 이 때의 값이 δ_{ij}가 된다.

RSM은 평정척도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이다. RSM에서는 응답범주 사이의 심리적인 간격이 각 문항에 따라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따라서 문항마다 응답범주 사이의 심리적인 간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모형이다(홍세희 외, 2018). RSM에서는 PCM과 마찬가지로 α 값을 추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PCM 분석 모형의 δ_{ij}를 2개로 구분한 것이 $\lambda_i + \delta_j$에 해당한다. λ_i은 문항에 해당하고, δ_j는 단계에 해당한다. 모든 문항의 단계 사이의 거리는 동일하지만 λ_i 값에 따라 위, 아래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 분석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_{ix}(\theta) = \frac{\exp\sum_{j=0}^{x}[\theta - (\lambda_i + \delta_j)]}{\sum_{x=0}^{m}\exp\sum_{j=0}^{x}[\theta - (\lambda_i + \delta_j)]}$$

- $\lambda_i + \delta_j$: 문항 i의 j 범주 단계 난이도

본 연구에서는 RSM과 PCM을 분석하기 위해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패키지는 mirt 패키지(Chalmers, 2023)이다.

Ⅳ. 연구 결과

1. 문항적합도

Outfit 지수는 해당 문항에서 잔차가 증가할수록 커지며, Outfit이 큰 것은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 일부 극단적인 반응으로 잔차가 크게 증가하면 Outfit 지수가 매우 커질 수 있다. Outfit 지수의 특성을 보완하는 값인 Infit 지수는 소수의 극단적인 값에 덜 민감하게 변환된 값이다(홍세희, 조용래, 2006; 홍세희 외, 2018). Infit의 값이 0.75보다 작거나 1.33보다 크면 문항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Wilson, 2004; Wu & Adams,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Infit 값이 0.75보다 작거나 1.33보다 큰 경우 문항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PCM과 RSM의 문항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PCM과 RSM에서 Infit 값이 1.33 이상이거나 0.75 이하인 문항은 없었다. 따라서 KCYPS 2018 5차년도의 정서 관련 36문항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항의 적합도 지수

지표	문항 번호	PCM				RSM			
		X^2	Infit	Outfit	RMSEA	X^2	Infit	Outfit	RMSEA
주의 집중	1	211.42	1.14	1.15	0.02	258.17	1.03	1.04	0.02
	2	279.50	1.17	1.18	0.02	333.74	1.05	1.08	0.02
	3	385.90	1.23	1.22	0.03	455.06	1.17	1.17	0.03
	4	254.33	1.18	1.19	0.02	255.89	1.16	1.18	0.02
	5	170.71	1.03	1.02	0.01	213.20	0.93	0.93	0.02
	6	197.15	1.06	1.05	0.01	218.02	1.01	1.01	0.02
	7	176.07	1.08	1.07	0.01	175.33	1.05	1.05	0.01
공격성	8	154.12	0.98	0.97	0.01	170.39	0.95	0.94	0.01
	9	125.43	0.99	0.97	0.01	160.71	0.92	0.90	0.01
	10	180.52	1.06	1.05	0.01	186.45	1.02	1.01	0.01
	11	141.29	0.97	0.96	0.01	158.63	0.93	0.92	0.01
	12	198.75	0.89	0.87	0.02	199.46	0.88	0.87	0.02
	13	181.84	0.88	0.85	0.02	173.46	0.88	0.85	0.02
신체 증상	14	170.79	0.95	0.94	0.01	163.80	0.99	0.97	0.02
	15	196.17	0.95	0.96	0.01	206.53	0.99	0.99	0.02
	16	232.07	0.87	0.84	0.02	188.34	0.93	0.89	0.02
	17	142.06	0.94	0.89	0.01	133.47	0.97	0.92	0.01
	18	159.87	0.99	1.00	0.01	190.75	1.09	1.08	0.01
	19	386.35	1.13	1.19	0.03	447.97	1.27	1.29	0.03
	20	161.78	0.87	0.83	0.01	167.31	0.92	0.86	0.02
	21	168.42	0.90	0.86	0.01	155.20	0.95	0.90	0.01

지표	문항 번호	PCM				RSM			
		X^2	Infit	Outfit	RMSEA	X^2	Infit	Outfit	RMSEA
사회적 위축	22	209.41	1.00	1.03	0.01	232.71	1.11	1.12	0.02
	23	225.08	1.01	1.02	0.02	227.22	1.03	1.04	0.02
	24	168.92	0.90	0.89	0.01	169.36	0.89	0.87	0.01
	25	296.49	1.08	1.09	0.02	294.39	0.99	1.02	0.02
	26	324.15	1.21	1.25	0.02	341.35	1.23	1.27	0.03
우울	27	218.79	0.88	0.87	0.02	265.68	0.76	0.77	0.02
	28	216.61	0.81	0.79	0.02	213.76	0.80	0.78	0.02
	29	224.82	0.98	1.01	0.02	299.82	1.15	1.15	0.02
	30	156.74	0.90	0.90	0.01	166.74	0.96	0.94	0.02
	31	189.66	0.89	0.87	0.02	190.36	1.01	0.96	0.02
	32	211.38	0.85	0.83	0.02	205.56	0.92	0.88	0.02
	33	183.26	0.87	0.84	0.01	173.72	0.91	0.88	0.02
	34	218.85	0.84	0.81	0.02	229.86	0.78	0.75	0.02
	35	196.42	0.85	0.82	0.02	203.04	0.82	0.79	0.02
	36	257.05	0.81	0.81	0.02	274.75	0.77	0.77	0.02

2. 개인 속성점수(능력수준)와 문항 난이도 비교

Rasch PCM과 RSM 분석 결과 36개 문항의 난이도와 표준오차가 추정되었고,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문항의 난이도가 0보다 큰 양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응답자의 평균 능력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을 의미하고, 문항의 난이도가 0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해당 문항은 응답자의 평균 능력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문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PCM에서 추정된 문항의 난이도를 보면 먼저 1단계는 1점에서 2점으로 넘어갈 때의 값을 의미하고, 2단계는 2점에서 3점으로 넘어갈 때의 값이며 3단계는 3점에서 4점으로 넘어갈 때의 값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거리가 가장 짧은 문항은 19번 문항(1.22)이었고, 가장 거리가 긴 문항은 27번 문항(2.52)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가는데 거리가 가장 짧은 문항은 16번 문항(0.96)이었다.

RSM에서 첫 번째 문항에서 두 번째 문항 사이의 임계값(threshold)은 표 4에서 $\lambda_i + \delta_0$이다. 해당 값은 -1.07이었으며, 두 번째 문항에서 세 번째 문항 사이의 임계값($\lambda_i + \delta_1$)은 0.84, 세 번째 문항에서 네 번째 문항 사이의 임계값($\lambda_i + \delta_2$)은 2.62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의 거리는 1.91이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거리는 1.78이었다.

피험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잠재변인의 평균을 0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표준오차가 제

시되지 않는데, 이때 정규분포의 분산을 추정한 값이 PCM은 1.10이고 RSM은 1.09였다. 분산에 대한 표준오차 값은 PCM과 RSM 모두 0.04였다.

표 4. PCM과 RSM의 추정치와 표준오차

지표	문항 번호	PCM						RSM	
		1단계 추정치	1단계 표준오차	2단계 추정치	2단계 표준오차	3단계 추정치	3단계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주의 집중	1	-1.39	0.06	1.02	0.05	2.94	0.12	0.00	
	2	-1.67	0.07	0.59	0.05	2.83	0.11	-0.30	0.04
	3	-1.54	0.07	0.33	0.05	2.59	0.09	-0.42	0.04
	4	-0.97	0.06	1.01	0.05	2.80	0.12	0.13	0.04
	5	-1.18	0.06	1.01	0.05	3.22	0.14	0.09	0.04
	6	-1.01	0.06	1.00	0.05	3.03	0.13	0.14	0.04
	7	-0.64	0.05	1.44	0.06	3.06	0.15	0.49	0.05
공격성	8	-0.77	0.05	1.14	0.05	3.27	0.15	0.32	0.04
	9	-0.66	0.05	1.49	0.06	3.75	0.20	0.55	0.05
	10	-0.76	0.05	1.45	0.06	2.97	0.14	0.44	0.04
	11	-0.58	0.05	1.46	0.06	3.45	0.17	0.56	0.05
	12	-0.52	0.05	1.46	0.06	3.15	0.15	0.57	0.05
	13	-0.31	0.05	1.70	0.06	3.16	0.17	0.77	0.05
신체 증상	14	-0.14	0.05	1.74	0.07	3.11	0.17	0.88	0.05
	15	-0.61	0.05	1.32	0.06	2.69	0.12	0.42	0.04
	16	-0.21	0.05	1.74	0.06	2.70	0.14	0.81	0.05
	17	-0.17	0.05	1.76	0.07	3.02	0.16	0.87	0.05
	18	-0.38	0.05	0.96	0.05	3.03	0.13	0.40	0.04
	19	-0.94	0.06	0.28	0.05	2.15	0.08	-0.33	0.04
	20	0.00	0.05	1.84	0.07	3.20	0.18	1.01	0.05
	21	-0.09	0.05	1.69	0.06	3.16	0.17	0.89	0.05
사회적 위축	22	-0.62	0.05	0.86	0.05	2.60	0.11	0.18	0.04
	23	-1.02	0.06	0.74	0.05	2.64	0.10	-0.03	0.04
	24	-0.79	0.05	1.18	0.06	3.01	0.13	0.31	0.04
	25	-1.36	0.06	0.54	0.05	3.02	0.12	-0.21	0.04
	26	-0.98	0.06	0.54	0.05	2.76	0.11	-0.10	0.04
우울	27	-0.88	0.05	1.64	0.06	3.23	0.16	0.47	0.05
	28	-0.36	0.05	1.85	0.07	2.96	0.16	0.79	0.05
	29	-0.65	0.05	0.75	0.05	2.24	0.09	0.06	0.04
	30	0.38	0.05	2.07	0.08	3.60	0.24	1.35	0.05
	31	0.05	0.05	1.73	0.07	2.77	0.15	0.96	0.05
	32	-0.30	0.05	1.47	0.06	2.88	0.14	0.66	0.05
	33	-0.21	0.05	1.67	0.06	2.94	0.15	0.80	0.05
	34	-0.29	0.05	2.06	0.07	3.39	0.20	0.92	0.05
	35	-0.40	0.05	1.72	0.06	3.19	0.17	0.73	0.05
	36	-0.49	0.05	1.71	0.06	3.26	0.17	0.69	0.05
$\lambda_i + \delta_0$[2]								-1.07	0.04
$\lambda_i + \delta_1$								0.84	0.04
$\lambda_i + \delta_2$								2.62	0.04

2) RSM에서 단계 난이도

표 6에서의 모형 적합 지수는 Akaike(1974)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1978)의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1987)의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을 활용하였다. AIC, BIC, SABIC 값은 낮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Kenny, 2020). PCM이 RSM보다 AIC, BIC, SABIC 값에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PCM이 RSM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RSM은 PCM에 내재된 모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도비 검증 (likelihood-ratio test 이하 lrtest)을 통해 PCM이 RSM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인지 판별하였다. lrtest 결과 χ^2=683.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p<.001) PCM이 RSM에 비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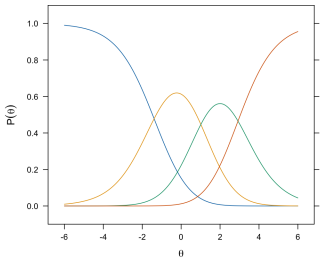
표 6. 모형 적합 지수

	log-L	AIC	BIC	SABIC
RSM	-79363.16	158804.3	159027	158903.1
PCM	-79021.28	158260.6	158883	1585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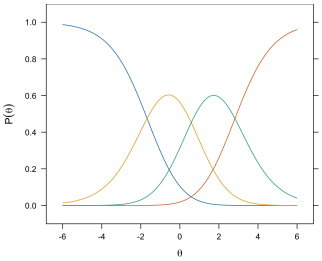
3. 응답 범주에 대한 범주 확률 곡선

정서 문제 검사는 4개의 응답 범주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다. 이러한 4점 척도가 적절한지 보기 위해 범주 확률 곡선(category probability curve)을 구하였다. X축은 개인의 능력 수준에 대한 로짓을 나타내며, Y축은 특정 응답변수가 선택될 확률을 나타낸다(홍세희 외, 2018). PCM에서는 문항마다 다른 확률 곡선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PCM에서 36개 문항의 확률 곡선이다. 평정 척도와 관련하여 응답범주의 값이 증가할수록 척도 경계점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수준이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점 척도의 응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잘 구분하며, 각 범주 간 간격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4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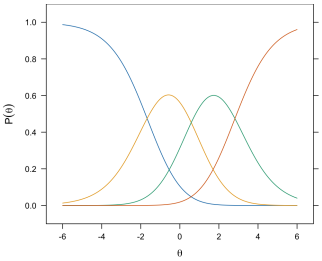
주의집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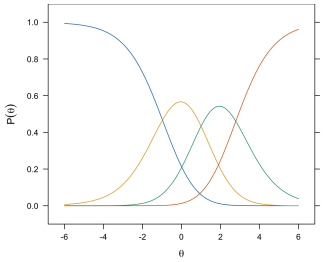
주의집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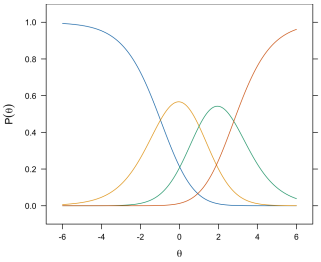
주의집중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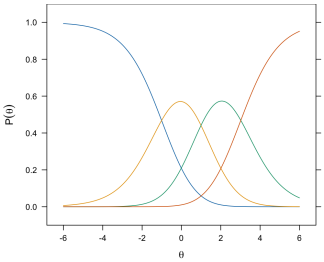
주의집중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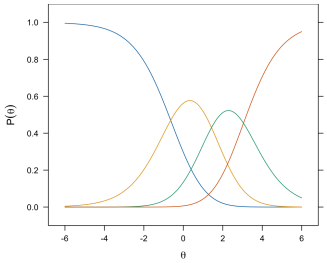
주의집중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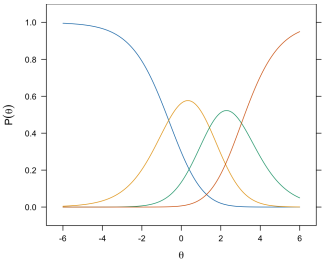
주의집중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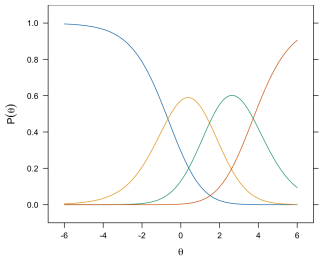
주의집중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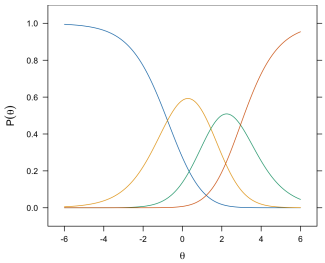
공격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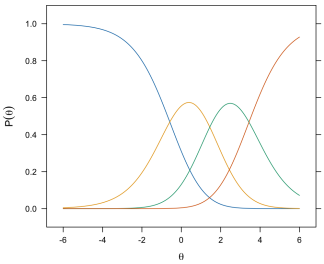
공격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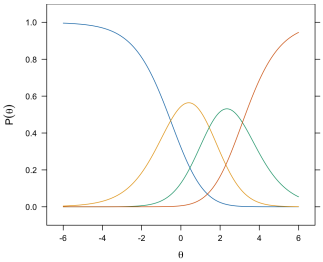
공격성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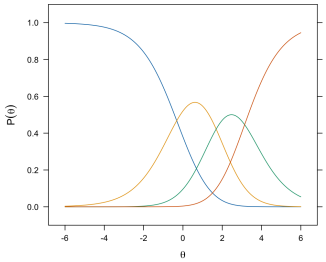
공격성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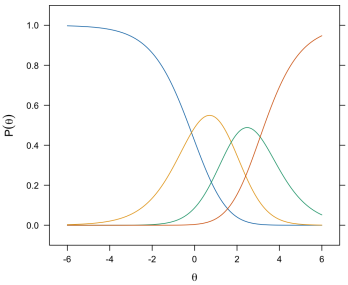
공격성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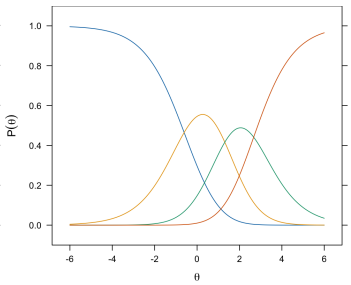
공격성6



신체증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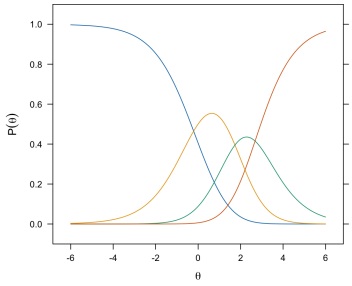
신체증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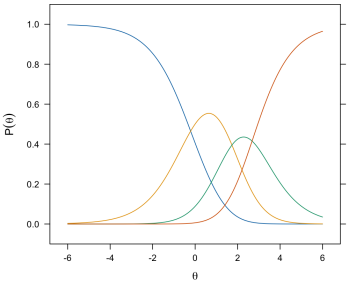
신체증상3

신체증상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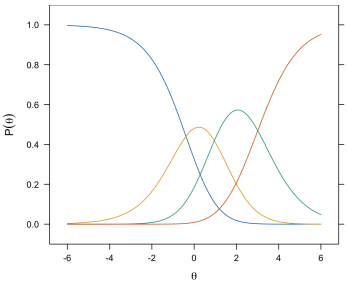
신체증상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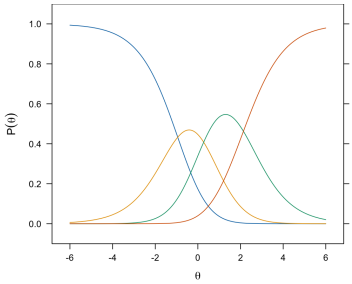
신체증상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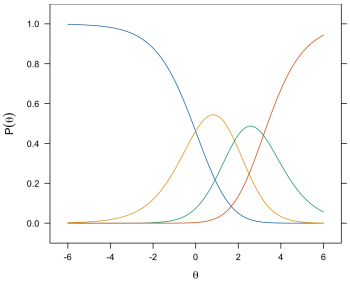
신체증상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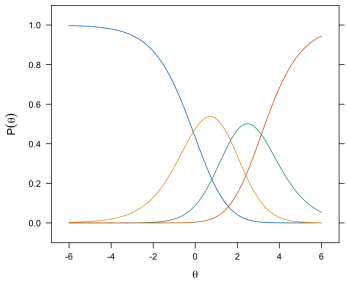
신체증상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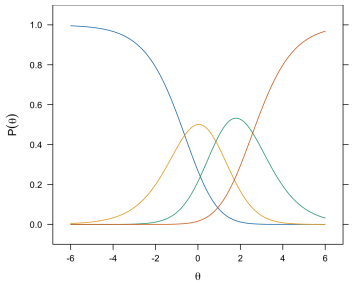
사회적위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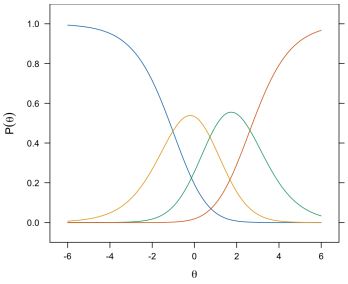
사회적위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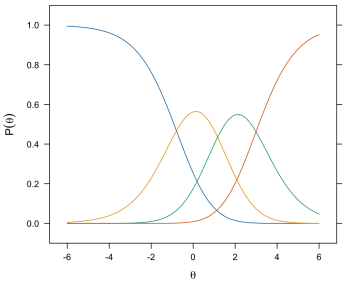
사회적위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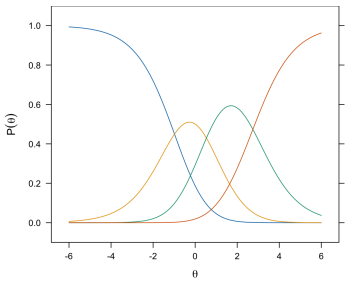
사회적위축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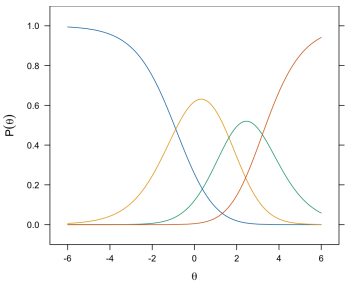
사회적위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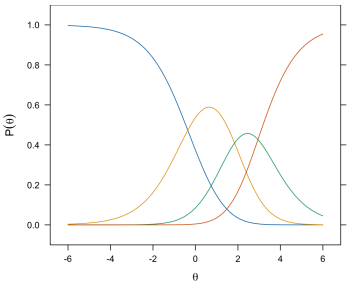
우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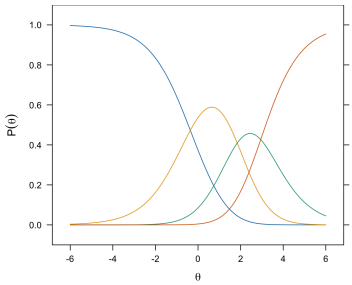
우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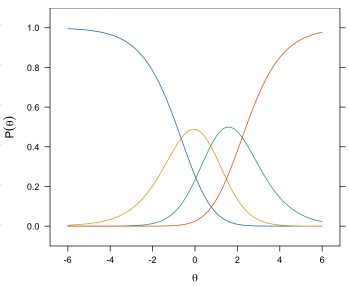
우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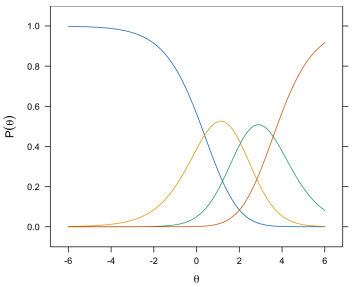
우울4



우울5



우울6



우울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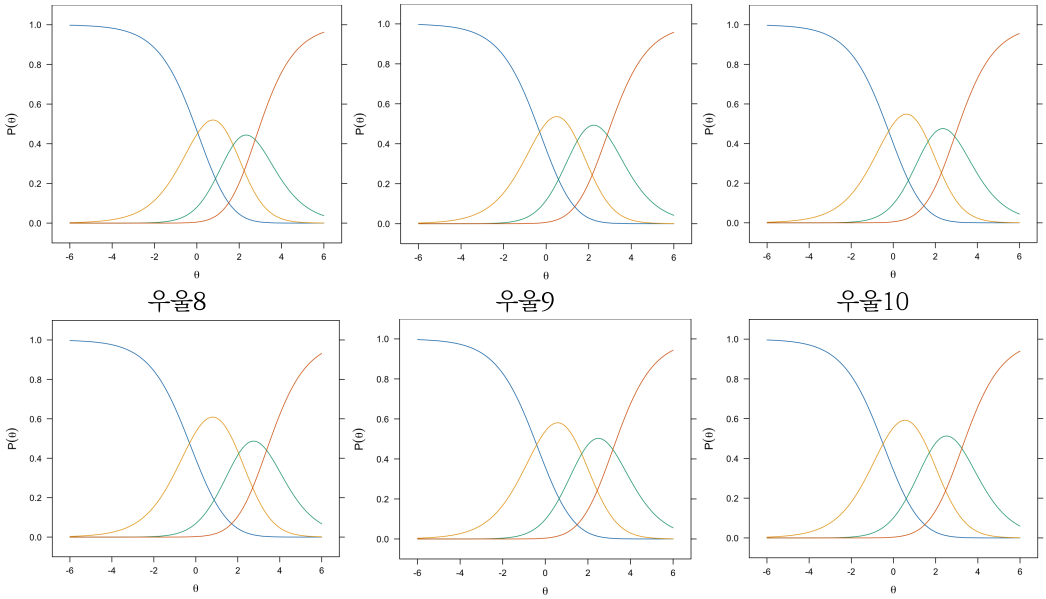


그림 1. PCM에서의 확률 곡선

그림 2는 RSM에서 평정척도 확률 곡선이다. 그림을 보면 척도의 값이 증가할수록 척도의 경계점 값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 0 로짓에서 '그렇지 않다'를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는 확률이 가장 낮음을 볼 수 있다. 4점 척도의 응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잘 구분하고 있으며, 각 범주 간 간격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4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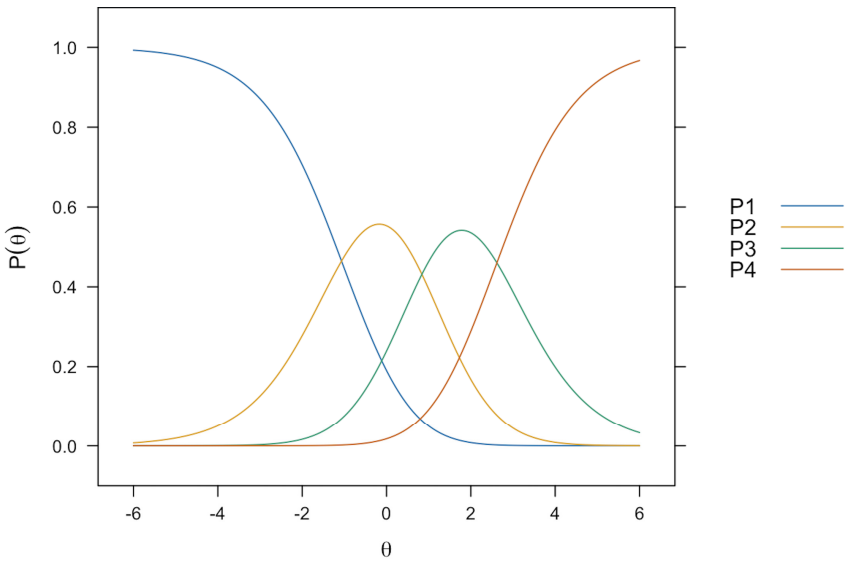


그림 2. RSM에서의 평정 척도 확률 곡선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Rasch RSM과 PCM을 적용하여 청소년 정서 문제 측정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KCYP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서 문제(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위축, 우울) 측정 척도가 적합한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정서 문제의 문항이 분석 모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항 적합도 분석 결과 PCM과 RSM에서 Infit 값이 0.75보다 작거나 1.33보다 큰 문항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정서 관련 문항들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정서 문제 측정 척도가 RSM과 PCM 모형 중 PCM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범주 사이의 심리적인 간격이 각 문항에 따라 동일한 가정이 아니라 각 문항마다 척도의 동간성이 다르다는 가정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정서 문제의 문항을 4점 척도의 응답범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PCM과 RSM 두 모형에서 모두 4점 척도 응답을 잘 구분하며, 각각의 범주 간에 간격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4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PCM은 각 문항마다 척도 간 임계값을 최적의 값으로 추정한다. RSM은 PCM을 평정 척도 타입으로 한 것이다. PCM에서 척도 간 임계값을 모든 문항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이 RSM이다. PCM은 동간성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자체가 더 정교하며 모형으로부터 추정되는 값이 자료에 잘 적합한 특징이 있다. 두 모형을 비교 시 PCM은 RSM에 비해 문항별로 정확하며, RSM은 간명한 특징이 있다(김세형, 2019; Fox & Jones, 1998). 두 모형의 적합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홍세희, 2000)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경우 RSM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PCM이 RSM에 비해 적합하게 나타났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문항 내용과 통계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김세형, 2019; Fox & Jones, 1998).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서 문제를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표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정서 관련 문항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종단 문항반응이론(longitudinal item response theory)을 통해 KCYPS 2018의 자료를 분석하면 청소년 정서 문제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미숙(2017).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 **인지발달중재학회지, 8**(1), 89-104.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39.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김성일, 정용철(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5-28.

김세형(2019). Rasch RSM 과 PCM 을 적용한 청소년 자아인식 측정척도 재구성: 체육수업 운동 참여유무 집단 간 차이에 따른 타당화. **한국체육과학회지, 28**(3), 939-954.

김은정(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우울증상과의 관계: 역기능적 도식과 회피 대처의 매개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407-425.

김진아, 한귀례(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박윤현(2013). **과제 종류에 따른 3, 4, 5세 유아의 주의집중과 수인지 과제 수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지영(1994). 신체화의 평가와 치료. **가정의학회지, 15**(11), 783-791.

신현균, 임지영(2003). 한국판 청소년 분노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449-462.

염유식, 김경미(2019).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9.

이보람, 안선영(2023). 일반화 부분점수 모형을 적용한 친구관계 수준에 따른 중학생 우울 척도의 차별기능문항 판별. **교육과학연구, 54**(2), 79-98.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안현미, 김혜원(2013).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2010 Ⅳ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60.

이지선, 채드에베수타니, 윤석영, 노은정(2019). 아동 및 청소년용 한국 정서 경험 척도의 타당화 연구. **인문사회 21, 10**(1), 571-586.

정계숙(2009). 정서 관련 아동 및 부모 양육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화 증상. **아동학회지, 30**(4), 155-171.

조붕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최태산, 김자경(2016). 부모의 과잉간섭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393-414.

통계청,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4.27.).

한정아(2017). 정서문제 프로파일의 잠재적 변화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평가연구, 30**(3), 495-519.

홍세희, 이현정, 손수경, 김효진, 윤미리, 강윤경, 조기현(2018).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의 Rasch 모형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5**(2), 107-124.

홍세희, 조용래(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865-880.

홍아정, 조윤성, 이승연(2020).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직원몰입척도 타당도 검증: Rasch 측정모형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3**, 577-598.

홍원준(2020). 중학생 정서·행동문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1**(2), 291-320.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tomatic Control, 19*(6), 716-723.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2), 165.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2), 201-212.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Wiley-Interscience.

Chalmers, R. P. (2023). *mirt: Multidimensional Item Response Theory.* R package version 1.33.2. https://CRAN.R-project.org/package=mirt

Cherry, E. C. (1953). Some experiments on the recognition of speech, with one and with two ear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25*(5), 975-979.

Feshbach, N., & Sones, G. (1971).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reactions toward newcom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381.

Fox, C. M., & Jones, J. A. (1998). Uses of Rasch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30.

Kellner, R. (1991). *Psychosomatic syndromes and somatic symptoms.* American Psychiatric Pub.

Kenny, D. A. (2020). *Measuring model fit.* Avaliable at http://davidakenny.net/cm/fit.htm.

Kneisl, C. R., & Wilson, H. S. (1996). *Psychiatric nursing.* Addison-Wesley, Nursing Division.

Lipowski, Z. J. (1988). Somatization: The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Am J Psychiatry, 145(11), 1358-1368.

Pines, A., & Aronson, E. (1988). *Career burnout: Causes and cures.* Free press.

Rasch, G. (1960). *Probabalistic models for some inteligence and atainment test.* Danmarks paedagogiske instiut.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stiscs, 6*(2), 461-464.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Steckel, W. (1943).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 New York : Liveright.

Wilson, M. (2005). *Constructing measures: An item response modeling approach.*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Wright, B. D., & Masters, G. N. (1982). *Rating scale analysis.* MESA press.

Wu, M., & Adams, R. (2007). *Applying the Rasch model to psycho-social measurement: A practical approach.* Melbourne: Educational Measurement Solutions.

[부록]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도[3)]

지표	문항 번호	문항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1번	2번	3번	4번				
주의 집중	1	444(19.9%)	1,144(51.3%)	568(25.5%)	75(3.4%)	1.47	0.50	0.83	0.94
	2	346(15.5%)	1,053(47.2%)	733(32.9%)	99(4.4%)	1.71	0.72		
	3	358(16.0%)	931(41.7%)	809(36.3%)	133(6.0%)	2.12	0.76		
	4	567(25.4%)	1041(46.7%)	540(24.2%)	83(3.7%)	2.26	0.77		
	5	504(22.6)	1,100(49.3)	569(25.5%)	58(2.6%)	2.32	0.81		
	6	557(25.0%)	1,053(47.2%)	553(24.8%)	68(3.0%)	2.06	0.80		
	7	718(32.2%)	1062(47.6%)	399(17.9%)	52(2.3%)	2.08	0.76		
공격성	8	648(29.0%)	1,032(46.3%)	500(22.4%)	51(2.3%)	2.06	0.79	0.83	
	9	715(32.0%)	1,093(49.0%)	396(17.7%)	27(1.2%)	1.90	0.76		
	10	674(30.2%)	1,099(49.3%)	401(18.0%)	57(2.6%)	1.98	0.78		
	11	742(33.3%)	1,056(47.3%)	397(17.8%)	36(1.6%)	1.88	0.73		
	12	765(34.3%)	1,031(46.2%)	388(17.4%)	47(2.1%)	1.93	0.76		
	13	866(38.8%)	1,011(45.3%)	314(14.1%)	40(1.8%)	1.88	0.75		
신체 증상	14	939(42.1%)	958(42.9%)	294(13.2%)	40(1.8%)	1.87	0.77	0.85	
	15	718(32.2%)	1,016(45.5)	420(18.8%)	77(3.5%)	1.79	0.75		
	16	909(40.7%)	973(43.6%)	291(13.0%)	58(2.6%)	1.75	0.75		
	17	930(41.7%)	969(43.4%)	289(13.0%)	43(1.9%)	1.94	0.80		
	18	773(34.6%)	879(39.4%)	513(23.0%)	66(3.0%)	1.77	0.77		
	19	505(22.6%)	793(35.5%)	745(33.4%)	188(8.4%)	1.75	0.75		
	20	1,008(45.2%)	924(41.4%)	265(11.9%)	34(1.5%)	1.94	0.83		
	21	957(42.9%)	933(41.8%)	302(13.5%)	39(1.7%)	2.28	0.91		
사회적 위축	22	671(30.1%)	904(40.5%)	553(24.8%)	103(4.6%)	1.70	0.74	0.86	
	23	530(23.8%)	968(43.4%)	626(28.1%)	107(4.8%)	1.74	0.75		
	24	642(28.8%)	1,043(46.8%)	483(21.6%)	63(2.8%)	2.04	0.86		
	25	419(18.8%)	985(44.2%)	742(33.3%)	85(3.8%)	2.14	0.83		
	26	525(23.5)	904(40.5%)	698(31.3%)	104(4.7%)	1.99	0.79		
우울	27	642(28.8%)	1,184(53.1%)	364(16.3%)	41(1.8%)	2.22	0.79	0.90	
	28	856(38.4%)	1,049(47.0%)	282(12.6%)	44(2.0%)	2.17	0.84		
	29	646(29.0%)	869(39.0%)	571(25.6%)	145(6.5%)	1.91	0.72		
	30	1,191(53.4%)	818(36.7%)	203(9.1%)	19(0.9%)	1.78	0.74		
	31	1,016(45.5%)	884(39.6%)	278(12.5%)	53(2.4%)	2.10	0.89		
	32	851(38.1%)	959(43.0%)	363(16.3%)	58(2.6%)	1.57	0.69		
	33	902(40.4%)	968(43.4%)	312(14.0%)	49(2.2%)	1.72	0.77		
	34	896(40.2%)	1,066(47.8%)	243(10.9%)	26(1.2%)	1.83	0.79		
	35	830(37.2%)	1,045(46.8%)	317(14.2%)	39(1.7%)	1.78	0.76		
	36	795(35.6%)	1,075(48.2%)	324(14.5%)	37(1.7%)	1.73	0.70		

3) Cronbach α 계수

‘청소년기 정서 문제의 Rasch 모형 분석’에 대한 토론문

함은혜
공주대학교 부교수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문항 중 ‘학생 정서문제’ 측정 문항에 대한 피험자 응답을 다분 Rasch모형에 적합함으로써, 개별 문항의 기능과 문항별 척도의 기능을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사에서 학생 정서 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위축, 우울의 5요인의 총 36개 문항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4점 리커르트 척도로 설계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해당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이 고전검사이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반면, 이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문항의 기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등급반응모형(RCM)과 부분점수모형(PCM)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정서 문제 진단에서 척도 범주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가 리커르트 척도를 활용한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과 측정에서 문항반응이론의 활용과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이 무엇인지, 이 연구가 학술 현장이나 실천 현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전검사이론에 근거한 요인분석 등으로는 정서문제 척도를 타당화하거나 그 기능을 평가하는 데 어떤 제한이 있는가? Rasch모형 분석은 척도의 타당화에서 어떤 새롭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고려하여 연구문제가 진술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Rasch모형 분석 결과의 제시가 선별 혹은 정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표 3과 그림 1은 Rasch모형의 분석 결과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각 정보가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그림 1의 문항별 Category Characteristic Curves는 모두 동일하게 보이고, 연구자가 척도 범주가 모두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맥락에서, 해당 그림이 무엇을 위해 제시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둘째, 문항별 분석 결과를 문항의 내용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한다면, 정서문

제 척도의 활용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항별 척도 범주에 대한 비교가 의미가 있을지 검토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체증상20(숨쉬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우울30(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울31(울기를 잘한다) 문항의 경우, 척도 점수 1의 threshold가 .0 이상으로 높아서, 높은 수준의 신체증상이나 우울을 변별하는 데 용이한 반면, 주의집중2(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주의집중3(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사회적위축25(수줍어 한다) 등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기능하는 문항으로, 심각한 정서문제 진단에는 상대적으로 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영역별로는, 평균적으로 주의집중 문항들의 threshold가 낮은 반면, 신체증상과 우울 문항들의 threshold가 높은 편으로, 주의집중은 일반적인 수준의 정서문제를, 신체증상과 우울은 좀 더 심각한 수준의 정서문제를 진단하는 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내용 분석은 Rasch모형 분석이 고전검사이론에 기반한 요인모형과 비교하여, 문항의 기능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고 차별적인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PCM과 RCM의 비교와 관련하여, '점수 범주 간 동간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것은 흥미로웠다. 다만, RCM이 PCM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훨씬 간소한 모형으로, 사례수에 민감한 chi-square 차이 검증 결과로, RCM의 간명성보다 PCM의 적합성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들도 지적한 바 있고, 연구자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연구자가 탐색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PCM 결과에서 각 문항별 범주 간 threshold 간 거리의 편차가 큰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살펴보고, threshold 간 거리의 편차가 큰 문항은 범주 간 threshold를 자유롭게 추정하고, threshold간 거리의 편차가 작은 문항은 범주 간 threshold를 고정해서 추정함으로써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면서 좀 더 적합한 모형의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asch모형 분석 결과가 검사의 활용과 결합하여 어떤 이점이 있는지 논의를 추가한다면, 연구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Rasch모형 분석에 근거한 문항의 난이도와 threshold 정보는 향후 정서문제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진단하기 위한 standard setting 장면(심각한 수준, 주의가 필요한 수준, 일반적인 수준을 구분하는 등)이나,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daptive testing 장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연구자가 제안해 준다면, 연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Effects of Childhood Social-Emotional Competence Development Trajectories on Adolescent Mental Health: Exploring Mediational Pathway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uyeon Lee*)+·Chenxiao Wang**)

〈Abstract〉

The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SEC)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can lay the foundation for mental health among young adolescent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Using five waves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8 data, this study first identified three different profiles of childhood SEC growth trajectories, distinguished by continued level differences (i.e., high, medium, and low) in both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se SEC growth profiles significantly predicted later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More importantl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childhood SEC growth profiles on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ill be discussed with an emphasis on the need for early interventions to promote mental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Keywords: social-emotional competence (SEC), mental health, middle school transi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 The University of Hong Kong (leejy@hku.hk)
**)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hxwang@hku.hk)

I. Introduction

Over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mental health challenges faced by Korean adolescents. It has been reported that many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 a range of mental health issues, such as stress, depression, anxiety, self-harm,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Choi et al., 2021;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18). Various international surveys have also shown that Korean adolescents exhibit lower levels of mental well-being, indicated by low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compared to their peers in other countries (Rees & Main, 2015; UNICEF Innocenti, 2020). This has led to an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this issue and various initiatives aimed at promoting mental health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is a particularly critical period for youth well-being, as most adolescents face heightened mental health risks due to multidimensional changes they undergo in this phase (Mullins & Irvin, 2000; Yoo, 2007). Maintaining good mental health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optimal development and well-being throughout the rest of adolescence and beyond (Goldstein et al., 2015).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and promote mental well-being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it is necessary to provide early support to school-aged children to help them establish a solid basis of good mental health.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SEC)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as a potential foundation for Korean adolescents' mental health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Using five years of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data, this study aims to first examine different profiles of SEC growth trajectories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then examine whether and how these childhood SEC growth profiles predict mental health outcomes in middle school,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II. Background

1. Development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SEC) in middle childhood

Decades of research have demonstrated that SEC is an important protective and promotive factor of various positive youth outcomes, which is malleable throughout the school years, particularly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Chatterjee & Duraiappah, 2020; Chernyshenko et al., 2018; Domitrovich et al., 2017). A body of experimental and meta-analytic evidence has shown that school-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terventions aimed at promoting student SEC have positive effects on youth mental, behavioral, and academic outcomes (Cipriano et al., 2023; Durlak et al., 2022).

SEC i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involving diverse skills and mindsets that enable an individual to engage in positive and effective interactions with oneself and others. SEC often refers to a set of emo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 abilities that contribute to both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well-being and functioning (Domitrovich et al., 2017; Rose-Krasnor & Denham, 2009). Among various aspects of SEC, self-management (e.g., emo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positive social behavior (e.g., prosocial and collaborative behavior) have been the two most frequently studied components of SEC, commonly emphasized across different conceptual frameworks of SEC, such as the CASEL framework (CASEL, 2020) and the Big Five model (Walton et al., 2023). Self-management is often indicated by the abilities to control one's emotions, thoughts, and behaviors in an effective way, while positive social behavior is often indicated by the abilities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in a prosocial and collaborative way.

SEC is not a fixed trait but develops over time within social environments.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social and emotional abilities in early childhood has long been an important topic in developmental science. The literature suggests that, overall, toddlers and preschoolers tend to show more socially and emotionally competent

behaviors as they grow older (Hay et al., 2021;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07; Rose-Krasnor & Denham, 2009; Yates et al., 2008), although the observed extent of changes has varied across studies (Eisenberg et al., 2006; Spinrad & Eisenberg, 2009; Zahn-Waxler & Smith, 1992).

However, les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ocial-emotional developmental trajectories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years and beyond (Buckley & Saarni, 2009).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noteworthy studies of prosocial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middle childhood (e.g., Aber et al., 2003; Côté et al., 2002; Kokko et al., 2006; Sørlie et al., 2020), findings seem to be inconclusive as to the direction and shape of changes. For example, some studies have found an overall declining pattern of prosocial behavior from age 6 to 12 (Côté et al., 2002; Kokko et al., 2006), while one found that social skills showed a linearly increasing pattern, on average, from grade 4 to 7 (Sørlie et al., 2020). In another study, prosocial behavior showed a slightly decreasing pattern from age 6 to age 7.5, then an accelerated increase up to age 12.5 (Aber et al., 2003). These inconsistencies are likely due to the differences in sample characteristics, calling for more studies with diverse student populations.

As a result of the overall lack of research on social-emotional developmental trajectories among school-aged children, it is largely unknown whether there exist different subpopulations of children showing meaningfully distinct patterns of SEC development trajectories, and if so, how those patterns of SEC development during middle childhood predict later mental health outcomes during adolescence. To address these gaps,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latent profiles underlying Korean children's SEC growth trajectories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which will set the stage for further examinations of whether and how these SEC growth profiles predict mental health outcomes in middle school years.

2. Links between SEC and mental health: Self-determination theory

Previous literature has provided evidence suggesting that childhood SEC predicts later mental health outcomes. For example, emotional competence or prosocial skills assessed at around age 5-6 was found to predict mental health outcomes (e.g., internalization problems, life satisfaction) later in middle childhood (Fine et al., 2003; Guhn et al., 2016) and even in young adulthood (Jones et al., 2015). One study focused on young adolescents found that temperance (representing emo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strengths (representing communion, collectivism and convivial relationships) assessed at Grade 7 were found to predict subjective well-being and middle school adjustment at Grade 8 among Israeli students (Shoshani & Slone, 2013).

However, les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at explains the mediational mechanisms under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ier SEC and later mental health outcomes. Available evidence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SEC on mental health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could be mediated by variables related to academic and social factors. For example,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found that self-regulatory beliefs predicted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merican students experiencing middle school transition, and that this relation was mediated through academic disengagement (Rudolph et al., 2001). Recently, more broadly defined SEC was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outcomes (e.g., depression, emotional distress), through social support among Korea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ang et al., 2022) or through academic efficacy beliefs among Norwegian middle school students (Vestad et al., 2021), although the mediational claims of these studies were limited by the use of cross-sectional designs.

To build a more comprehensive model that may explain the mediational pathways from childhood SEC to adolescent mental health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Ryan & Deci, 2000) as a conceptual framework. According to SDT,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re th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for human motivation and well-being (Ryan & Deci,

2000).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fulfilling the needs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within academic and peer-related domains may become particularly important, as young adolescents going through this period typically experience increased pressures to show good academic performance and increased desires for positive peer relationships (Kingery & Erdley, 2007; Mullins & Irvin, 2000; Yoo, 2007). For example, adolescents who perceive themselves to have freedom and control over their academic learning (i.e., whose needs for academic autonomy are met), those who perceive themselves to be capable of achieving their academic goals (i.e., whose needs for academic competence are met), and those who perceive themselves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i.e., whose needs for peer relatedness are met) are more likely to show better mental health outcomes than those not.

Previous studies explicitly based on SDT have empirically supported this idea with secondary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suggesting that their perceived academic autonomy, academic competence, and peer relatedness were, together, related to various positive outcomes including subjective well-being (Hagenauer et al., 2018; Ruzek et al., 2016). In the broader literature, research has also suggested that mental health during adolescence can be explained by academic autonomy (Li & Hein, 2019; Noom et al., 1999), academic competence (Deighton et al., 2018; W. Zhang et al., 2019),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Moore et al., 2018; Oberle et al., 2018; K. M. Shin et al., 2016).

In the meantime, SEC, such as self-management and positive social behavior, seems to be an important factor that enables adolescents to fulfill thes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Regarding academic autonomy, student SEC has been correlated with autonomous motivation (Collie, 2022) and academic engagement (C. Zhang et al., 2022) among secondary and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academic competence, longitudinal research has suggested that earlier SEC predicted later academic achievement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Rhoades et al., 2011) as well a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Oberle et al., 2018). Regarding peer relatedness, the effects of earlier SEC on later peer relationship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have also been supported

by longitudinal research (Guhn et al., 2016; Jiménez-Rodríguez et al., 2022). Although most of the studies that examined the roles of SEC in the fulfillment of these three needs were conducted in the Western societies, there exist some studies that reported the effects of SEC on academic achievement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East Asian students (Nakamichi et al., 2021; Wang et al., 2019).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suggesting the relationships among SEC, the three psychological needs according to SDT, and mental health outcomes, it seems reasonable to hypothesize that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especially within the academic and peer-related domains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SEC development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s noted in Vestad et al. (2021), SEC may help young adolescents meet their psychological needs, such as academic autonomy, academic competence, and peer relatedness, which in turn can prevent later mental health problems and promote their mental well-being.

Despite the conceptual plausibility,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that examined a comprehensive mediational model linking childhood SEC to adolescent mental health, through academic autonomy, academic competence, and peer relatedness.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model for Korean adolescents experienc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childhood SEC developmental trajectory profiles predict mental health outcomes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the mediational effects of academic autonomy, academic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the first year as a middle school student.

3. Research objective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wofold: (1) identify latent profiles of SEC growth trajectories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2)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hood SEC growth profiles on later mental health outcomes during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onal roles of academic autonomy, academic competence, and peer relatednes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Figure 1 presents the conceptual

model of this study,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SEC growth trajectory profiles,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In order to estimate the relationships of main interest more accurately, various covariates were added in the actual analysis, including baseline measures of mediators and outcome variables as well as gender, family income level, and positive parenting at baseline (more detailed information is presented in the Methods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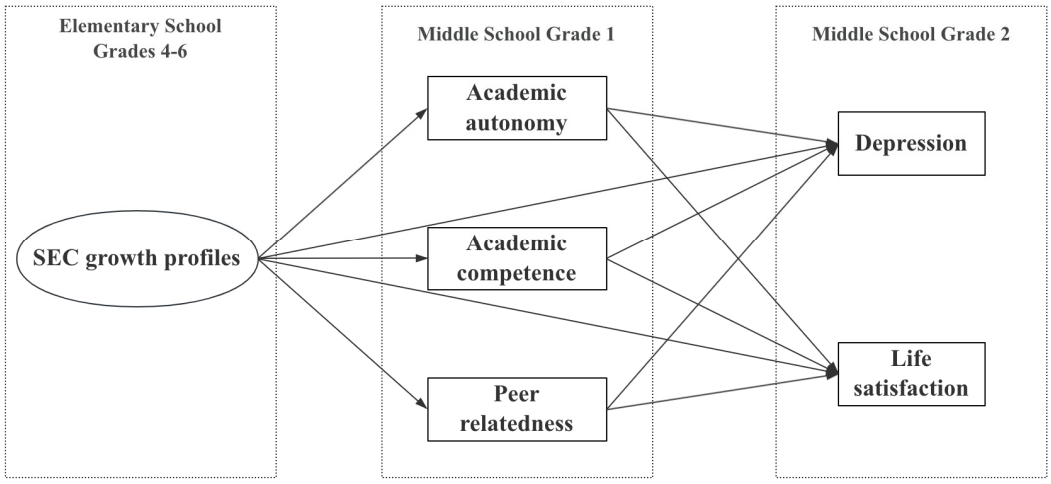


Figure 1. The conceptual model of this study.

Note: The correlations among mediators and between outcome variables, and the effects of covariates are not presented in this figure for improved legibility.

III. Methods

1. Data and Sample

The dataset used in the study comes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urvey in South Korea that includes multidimensional information o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 and well-being throughout their

school years. The KCYPS 2018 began the first wave of data collection in 2018 with two age cohorts (the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1st graders in middle school as of 2018), following the same individuals every year up to the year of 2022.

In line with our focus on the SEC growth trajectories during middle childhood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adolescence,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five waves (2018-2022) of the KCYPS 2018 data collected from the younger cohort, covering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and two years in middle school. The baseline sample size was N = 2,607 and the five-year sample attrition rate was 11.35%, resulting in a sample size of N = 2,311 at Wave 5. The results from the Little's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 tests with all the major variables of this study and the key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sample (age and gender) suggested that there was no serious violation to the MCAR assumption (Chi-Square = 149.00, df = 127, p = .09). Table 1 presents the baselin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at baseline*

Variable	Range or Category	Mean	SD	Frequency	Percent
Age (in year)	[9, 11]	10	0.10		
Gender	Girl			1294	49.64
	Boy			1313	50.64
Household size	[2, 8]	4.16	0.88		
Family income level (unit 10,000 KRW)	No income			6	0.23
	Below 100			32	1.23
	100-200			111	4.27
	200-300			233	8.95
	300-400			478	18.37
	400-500			544	20.91
	500-600			484	18.60
	600-700			259	9.95
	700-800			162	6.23
	800-900			91	3.50
	900-1000			77	2.96
	Above 1000			125	4.80
	Total			2602	98.80
	Missing			5	0.20

Variable	Range or Category	Mean	SD	Frequency	Percent
Parent-perceived family socioeconomic level	very low			36	1.39
	low			305	11.75
	middle			2020	77.81
	high			227	8.74
	very high			8	0.31
	Total			2596	99.60
	Missing			11	0.40

2. Measurement

1) Outcomes: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both negative and positive mental health outcome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fifth wave of the KCYPS 2018 (in 2022 when participants were in Grade 2 in middle school), depression was measured by 10 items (e.g., "I feel unhappy, sad, and depressed," "I worry a lot," "I have no interest or enthusiasm for anything," "I have thoughts of wanting to die"), while life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5 items (e.g., "I am satisfied with my life," "If I could live my life again,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All the items were measured on a 4-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to 4. In the current study, mean composite variables were calculated for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with higher values indicating greater levels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respectively. Table 2 presen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se two mental health outcome variable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utcome variables at Wave 5*

	Wave 5 (Grade 2 in middle school)					
	Cronbach's alpha	Mean	SD	Skewness	Kurtosis	Missing (%)
Depression (10 items)	0.89	1.75	0.53	0.64	0.39	11.35
Life satisfaction (5 items)	0.81	2.68	0.53	-0.07	0.49	11.35

2) Predicto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wo dimensions of SEC as potential predictors of mental health outcomes: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First, self-management is operationally defined as the ability to regulate one's attention, emotion, and behavior in a way that helps successful task completion and positive social interaction. In the first three waves of the KCYPS 2018 (in 2018 to 2020 when participants were Grades 4-6 in elementary school), indicators relevant to self-management include: (1) the lack of attention control (originally termed as attention deficit measured by 7 items; e.g., "I don't want to do a task that requires a long time of concentration," "I make mistakes or trouble because I don't pay attention"), (2) the lack of aggression control (originally termed as aggression measured by 6 items; e.g., "There are days when I feel angry all day," "If someone prevents me from doing what I want, I argue or fight"), and (3) perseverance or grit (measured by 8 items; e.g., "Once I start something, I always finish it," "I don't get too frustrated when facing difficulties while trying to solve a problem, and I tend to bounce back from setbacks faster than others").

Second, group collaboration is operationally defined as the ability to collaborate with others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a shared goal and problem solving in group activities. In the first three waves of the KCYPS 2018, indicators relevant to group collaboration include: (1) followership (measured by 3 items; e.g., "I do my best in my role when participating in group activities"), (2) group facilitation (measured by 3 items; e.g., "When participating in group activities, I create an atmosphere where my friends feel comfortable expressing their opinions freely," "When my friends are struggling during group activities, I willingly offer my help"), and (3) group problem-solving (measured by 5 items; e.g., "I work with friends to solve important issues or problems that arise during group activities," "When problems arise in group activities, I try to find solutions rather than pointing out who is to blam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six composite variables described above supported the two-dimensional structure of SEC across all three

waves, clustering the lack of attention control (attention deficit), the lack of aggression control (aggression), and perseverance/grit into one factor, while clustering followership, group facilitation, and group problem-solving into another factor.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two-dimensional SEC measurement model using six composite variables from all three waves, suggesting an acceptable model fit given the sample size (χ^2/df = 14.04, p < .001; CFI = 0.93; TLI = 0.91; SRMR = 0.05; RMSEA = 0.075). Based on these findings, a set of two composite variables were calculated for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at each wave, by averaging the scores of relevant items. All the included items were measured on a 4-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to 4. Some items were reverse-coded so that higher values indicate greater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skills, respectively. Table 3 presen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variables across three waves. In the main analysis, these six variables were used to identify different profiles of SEC growth trajectories during three elementary school year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redictors through Wave 1 to Wave 3*

	Wave 1 (Grade 4 in elementary school)					
	Cronbach's alpha	Mean	SD	Skewness	Kurtosis	Missing (%)
Self-management (21 items)	0.89	3.03	0.46	-0.09	-0.35	0
Group collaboration (14 items)	0.93	3.03	0.54	-0.29	0.40	0
	Wave 2 (Grade 5 in elementary school)					
	Cronbach's alpha	Mean	SD	Skewness	Kurtosis	Missing (%)
Self-management (21 items)	0.89	2.93	0.44	-0.03	-0.32	6.52
Group collaboration (14 items)	0.93	2.97	0.51	-0.35	0.75	6.52
	Wave 3 (Grade 6 in elementary school)					
	Cronbach's alpha	Mean	SD	Skewness	Kurtosis	Missing (%)
Self-management (21 items)	0.89	2.83	0.46	0.06	-0.52	7.52
Group collaboration (14 items)	0.92	2.96	0.47	-0.07	0.73	7.52

3) Mediator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middle school transition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s potential mediators between childhood SEC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Given the increased importance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eer relationships during this period,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1)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as an indicator of academic autonomy, (2) academic achievement as an indicator of academic competence, and (3)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s an indicator of peer relatedness.

In the fourth wave of the KCYPS 2018 (in 2021 when participants were in Grade 1 in middle school), the lack of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was measured by 4 items (e.g., "I do not study on my own initiative," "I have never tried to make a study plan on my own") on a 4-point Likert scale. These 4 items were reverse-coded for later calculation. Academic achievement was measured by 2 items asking one's subjective evaluation of and satisfaction with overall academic performance in the first semester of middle school, both on a 5-point Likert scale. Positive peer relationships were measured by 8 items (e.g.,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I can share my secrets with my friends," "My friends care about me") on a 4-point Likert scale. In the current study, a mean composite variable was calculated for each of these variables, with higher values indicating greater levels of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respectively. Table 4 presen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se three mediators.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ediators at Wave 4*

	Wave 4 (Grade 1 in middle school)					
	Cronbach's alpha	Mean	SD	Skewness	Kurtosis	Missing (%)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4 items)	0.80	3.08	0.58	-0.27	-0.14	12.74
Academic achievement (2 items)	0.78	3.57	0.72	-0.28	0.38	17.49
Positive peer relationships (8 items)	0.87	3.01	0.50	-0.33	0.86	12.74

4) Covariates

To statistically control for potential confounders, several covariat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e mediational model. First, all the mediators and outcome variables measured at Wave 1 were included: depression (M = 1.53, SD = 0.53, α = 0.89), life satisfaction (M = 3.10, SD = 0.57, α = 0.81), academic achievement (M = 3.99, SD = 0.75, α = 0.80),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M = 2.98, SD = 0.52, α = 0.84).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was not measured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thus could not be included as a covariate. In addition, student gender, parent-reported family income level, and student-reported positive parenting at Wave 1 were also included as covariates to account for their effects on the main relationships to be examined. Positive parenting was measured as a mean composite variable of 12 items assessing parental warmth,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provision on a 4-point Likert scale (M = 3.46, SD = 0.45, α = 0.90).

3. Analysis Methods

1) Latent Profile Growth Modeling (LPGM)

To address the first research objective, the latent profile growth modeling (LPGM) was conducted to identify subgroups underlying childhood SEC growth trajectories. Among several statistical methods investigating the growth trajectories, latent growth modeling (LGM)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recommended for longitudinal studies with a large sample size (Mok et al., 2015; T. Shin, 2007). Building upon the principles of LGM, LPGM identifies unobserved subgroups of the sample with different configural profiles of growth trajectories, indicated by multivariate patterns of change in continuous variables across multiple time points (T. Shin, 2007; Willett et al., 1994).

In a stepwise approach, we started with an unconditional model assuming one latent profile followed by models assuming an increasing number of

profiles, in order to test the relative fit of these competing models. To determine the optimal number of profiles, model fit indices were evaluated along with the interpretability of each model. In line with suggestions from previous research, a set of fit indice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cluding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 Schwarz, 1978),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BIC; Sclove, 1987), classification accuracy (i.e., entropy),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T; Lo et al., 2001) p-values, and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 McLachlan & Peel, 2000) p-values. A better model fit was indicated by lower values on AIC, BIC, and aBIC, as well as higher values on entropy (ranging from 0 to 1 with higher values indicating higher classification accuracy). In addition, a p-value less than .05 for LMRT and BLRT indicates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model fit as a result of having one more profile. Finally, the size of each profile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o enhance the interpretability and replicability of the findings: only models with all the profile sizes of at least 5% of the total sample were considered. In each model estimation, LPGM was conducted with randomly chosen starting points. The mean intercepts and slopes of the two SEC variables (i.e.,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were constrained to have no variance in each profile.

LPMG was conducted using Mplus (version 8.3; Muthén & Muthén, 1998). Based on the descriptive statistics indicating no serious violations to the normality assumption and the MCAR test results, the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approach was us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and handle missing data.

2) Mediation Analysis

In addition to exploring the heterogeneous profiles of childhood SEC growth trajectories, the LPGM approach allows the use of these profiles as a variable embedded in a more complex model. To address the second research objective, SEM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oposed mediation model. The adequacy of the model fit was first evaluated using several fit indices including the Chi-Square statistic (),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 (TLI), the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and the standardized root-mean-square residual (SRMR) (Hu & Bentler, 1999). Then,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ajor paths were estimated and tested to verify whether the indirect effects via the mediators were significant. Based on the suggestion (Shrout & Bolger, 2002),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tested using Bootstrap with 1000 replicates to calculate the 95% confidence interval (CI). The mediating effects were interpreted to be significant at the alpha level of .05 when these confidence intervals did not contain zero.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lavaan package (version 0.6-16; Rosseel, 2012) in Rstudio (version 2023.06.1+524; RStudio Team, 2019). Based on the descriptive statistics indicating no serious violations to the normality assumption and the MCAR test results, the FIML approach was us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and handle missing data.

IV. Results

1. Latent Profiles of SEC Growth Trajectories

Before conducting the main analyses, we first examined the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the key variables in the current study (see Appendix A).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repeated measures of the same SEC variables ranged from .34 to .45 ($p < .01$). Based on the LPGM results, a three-profile model was finally selected to be a best-fit model of childhood SEC growth profiles. Table 5 shows the model fit and group size of each profile for one- to four-profile models. Although the four-profile model had the lowest values of AIC, BIC, and aBIC with the highest value on entropy, the smallest profile size was below 5% of the sample size, leading to the difficulty in interpretability. In contrast, the three-profile model had the second-lowest scores on AIC, BIC, and aBIC. Additionally, although the two-profile model had a higher value on entropy than the three-profile model, the significant LMR and BLRT of the three-profile model indicated better classification accuracy for the three-profile model. Furthermore, the

three-profile model had the most meaningful classifications with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variables. Therefore, the three-profile model was selected as the final solution in the study.

Table 5. Model fit of latent profile growth modeling for SEC (N = 2607)

	AIC	BIC	aBIC	LMRT	BLRT	Entropy	Group size for each profile (%)			
							1	2	3	4
1-profile	20170.88	20229.54	20197.77				2607 (100)			
2-profile	18040.69	18128.68	18081.02	0.00	0.00	0.70	1599 (61.3)	1008 (38.7)		
3-profile	17614.21	17731.53	17667.99	0.00	0.00	0.65	1446 (55.5)	706 (27.1)	455 (17.5)	
4-profile	17411.61	17558.26	17478.83	0.00	0.00	0.70	312 (12.0)	1089 (41.8)	65 (2.5)	1141 (43.8)

In the three-profile model, the three subgroups of children were identified and named as the Medium SEC subgroup (subgroup 1), the Low SEC subgroup (subgroup 2), and the High SEC subgroup (subgroup 3), respectively. Although an adequate group size was achieved for each profile, the distribution was not balanced with 55.5% of the total sample were classified into the Medium SEC group (n = 1446), whereas 27.1% of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the Low SEC subgroup (n = 706) and 17.5% into the High SEC subgroup (n = 455).

As shown in Figure 2, these three subgroups showed significant level differences in both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consistently throughout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In other words, children in the High SEC subgroup showed consistently higher levels of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than those in the Medium SEC subgroup, while children in the Low SEC subgroup showed consistently lower levels of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than those in the Medium SEC subgroup.

Furthermore, different growth trends in both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were observed across these subgroups. Children in both high and Medium SEC subgroups had a significant decrease in both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throughout the three elementary

school years. The results from the t-tests for comparing estimates of growth rate suggested that the rate of decrease in self-management was larger for the Medium SEC subgroup than for the High SEC subgroup, while the rates of decrease in group collaboration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 two subgroups.

Meanwhile, children in the Low SEC subgroup showed somewhat different patterns of SEC growth. They also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self-management, but the rate of change was smaller than the other two subgroups, leading to a more stable trajectory. Unlike the other two subgroups, children in the Low SEC subgroup had a significant increase in group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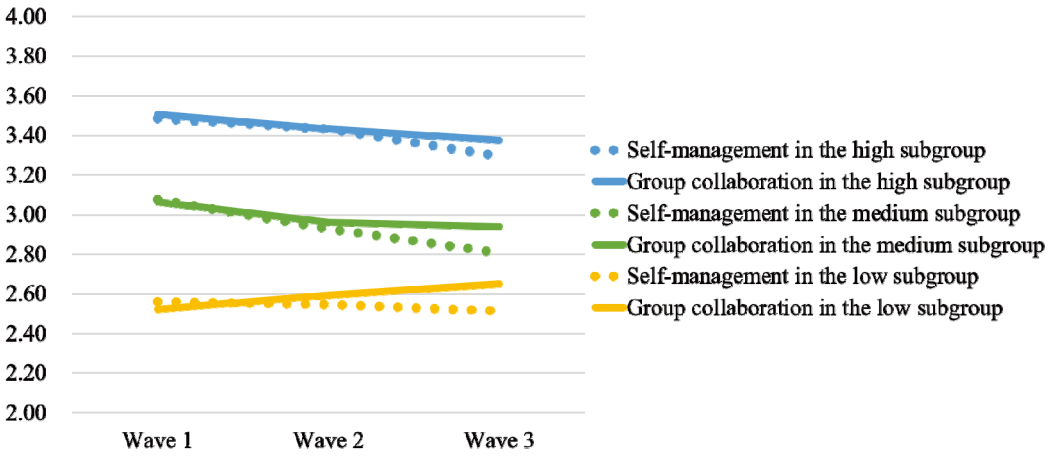


Figure 2. SEC growth trajectories across three latent subgroups (N = 2607)

2. Mediation Model

Based on the LPGM results, two dummy variables for Low SEC and High SEC subgroups were created, setting the Medium SEC subgroup as a reference group. These variables indicating different childhood SEC development trajectories were then used as main predictors of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The proposed mediation model showed a good fit to the data: $\chi^2/df < 0.001$, $p < 0.001$; RMSEA = 0.00; CFI = 1.00; TLI = 1.00; SRMR = 0.00.

All the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and the associated p-values and confidence intervals are presented in Appendix B. Figure 3 presents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the direct paths among the main variable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i.e., all the baseline measures of mediators and outcome variables as well as student gender, family income, and parenting variables). Compared to the Medium SEC subgroup, children who had consistently higher SEC growth trajectories in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showed higher levels of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β = 0.138, p <.001), academic achievement (β = 0.193, p <.001),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β = 0.126, p <.001)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In contrast, children who had consistently lower SEC growth trajectories in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showed lower levels of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β = -0.133, p <.001)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β = -0.068, p <.01)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Low SEC and the Medium SEC subgroups.

In the first two middle school years, earlier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predicted later depression (β = -0.046, p <.05) but not life satisfaction. Earlier academic achievement predicted both depression (β = -0.062, p <.001) and life satisfaction (β = 0.146, p <.001). Earlier positive peer relationships predicted both depression (β = -0.073, p <.01) and life satisfaction (β = 0.083,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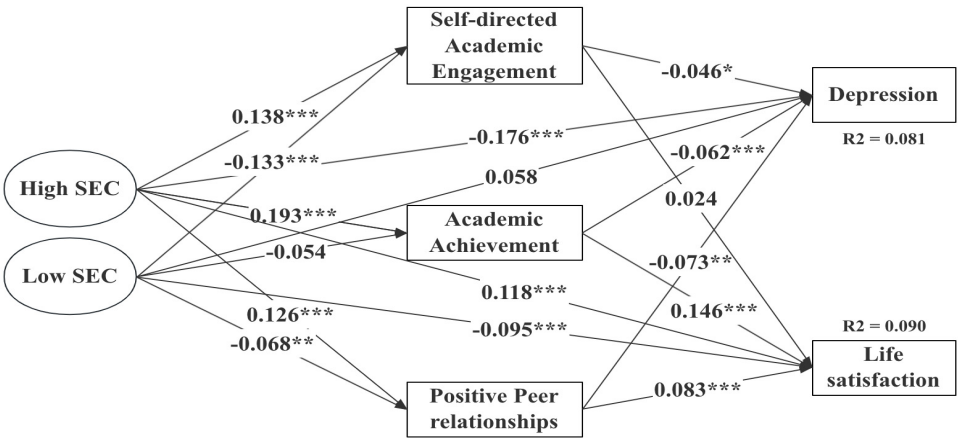


Figure 3.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mediation model

Note. SEC = social-emotional competence; * p<0.05, ** p<0.01, *** p<0.001 (two-tailed). The correlations and the effects of covariates are not presented in this figure for improved legibility.

Bootstrapping was conduct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as well as total effects. Table 6 presents the estimates and bootstrapped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ain relationships. First, those who had consistently higher SEC growth trajectories in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depression in middle school (total effects β = -0.204, 95% CI [-0.263, -0.139]). The effects of High SEC on depression were both direct (β = -0.176, p <.001) and indirect through academic achievement (β = -0.012, 95% CI [-0.022, -0.004])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β = -0.009, 95% CI [-0.018, -0.002]). The indirect effects of High SEC on depression through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were not significant at a 95% confidence level (β = -0.006, 95% CI [-0.014, 0.000]).

Also, those who had consistently higher SEC growth trajectories in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total effects β = 0.16, 95% CI [0.09, 0.225]). The effects of High SEC on life satisfaction were both direct (β = 0.118, p <.001) and indirect through academic achievement (β = 0.028, 95% CI [0.015, 0.043])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β = 0.018, 95% CI [0.003, 0.019]).

In the meantime, those who had consistently lower SEC growth trajectories in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otal effects β = 0.072, 95% CI [0.006, 0.134]). The effects of Low SEC on depression were mostly indirect through positive peer relationships (β = 0.006, 95% CI [0.001, 0.012]). The direct (β = 0.058, p = 0.065) and other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β = 0.006, 95% CI [0.000, 0.014]) and academic achievement (β = 0.003, 95% CI [-0.002, 0.009]) were found non-significant at a 95% confidence level.

Also, those who had consistently lower SEC growth trajectories in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otal effects β = -0.111, 95% CI [-0.17, -0.05]). The effects of Low SEC on life satisfaction were both direct (β = -0.095, p <.001) and indirect through positive peer relationships (β = -0.006, 95% CI [-0.013, -0.001]).

Table 6. *Summary of the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ain relationships*

Path	Coefficient estimates					Bootstrapping (95% CI)	
	Std.	Un.std.	SE	Z	p-value	Lower	Upper
Indirect effects							
High→SAE4→Dp5	-0.006	-0.007	0.004	-1.795	0.073	-0.014	0.000
High→AA4→Dp5	-0.012	-0.012	0.005	-2.658	0.008	-0.022	-0.004
High→PPR4→Dp5	-0.009	-0.006	0.004	-2.302	0.021	-0.018	-0.002
Low→SAE4→Dp5	0.006	0.006	0.004	1.746	0.081	0.000	0.014
Low→AA4→Dp5	0.003	0.004	0.003	1.256	0.209	-0.002	0.009
Low→PPR4→Dp5	0.005	0.004	0.003	1.751	0.080	0.001	0.012
High→SAE4→LS5	0.003	0.002	0.003	0.946	0.344	-0.003	0.011
High→AA4→LS5	0.028	0.028	0.007	3.83	0.000	0.015	0.043
High→PPR4→LS5	0.010	0.008	0.004	2.443	0.015	0.003	0.019
Low→SAE4→LS5	-0.003	-0.001	0.003	-0.959	0.338	-0.011	0.003
Low→AA4→LS5	-0.008	-0.01	0.006	-1.317	0.188	-0.02	0.004
Low→PPR4→LS5	-0.006	-0.006	0.003	-1.72	0.076	-0.013	-0.001
Total effects							
High→Dp5 through three mediators	-0.204	-0.197	0.031	-6.523	0.000	-0.263	-0.139
High→LS5 through three mediators	0.160	0.174	0.035	4.568	0.000	0.09	0.225
Low→Dp5 through three mediators	0.072	0.062	0.032	2.281	0.023	0.006	0.134
Low→LS5 through three mediators	-0.111	-0.114	0.030	-3.653	0.000	-0.170	-0.050

Note. Two mental health outcomes includes depression in Wave 5 (Dp5) and life satisfaction in Wave 5 (LS5); SEC subgroups includes the High SEC subgroup (High) and the Low SEC subgroup (Low), whereas the Medium subgroup was treated as the reference group; three mediators in Wave 4 include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SAE4), academic achievement (AA4),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PPR4); covariates at baseline include academic achievement (AA1), positive peer relationships (PPR1), depression (Dp1), life satisfaction (LS1), gender (Gen), parent-reported family income level (Inc), and student-reported positive parenting (SPP1).

V. Preliminary Discussion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amine the role of childhood SEC development in preventing mental health problems and promoting mental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Using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data collected from 2018 to 2022, this study aimed to (1) identify latent profiles of SEC growth trajectories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2) examine the effects of childhood SEC growth profiles on later mental health outcome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focusing on the mediational roles of academic autonomy, academic competence, and peer relatedness. In this section, we will summarize the main findings and present several points for further discussion.

First, the LPGM results suggested three distinct profiles of Korean children's SEC growth trajectories during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55.5% of the sample consistently showed medium levels of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while the other 27.1% and 17.5%, respectively, showed consistently lower and higher levels of both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Overall, self-management showed a decreasing pattern for all three subgroups throughout Grades 4 to 6, with the Medium SEC subgroup having the largest decrease, and the Low SEC subgroup having the smallest decrease. Group collaboration showed a decreasing pattern only for the Medium and High SEC subgroups, with both groups having similar rates of decrease. On the contrary, group collaboration of the Low SEC subgroup showed an increasing pattern.

Second, the mediation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sed mediation model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had an overall good fit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Korean youth. Compared to the Medium SEC subgroup, those who had consistently higher levels of SEC in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ha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second year at middle school. The key mediators of the effects of childhood High SEC on adolescent mental health were found to be academic achievement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igher levels of SEC predicted higher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in their first year at middle school, which in turn predicted lower depression and higher life satisfaction in the following year.

In contrast, those who had consistently lower levels of SEC in their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compared to the Medium SEC subgroup, ha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low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second year at

middle school. The key mediator of the effects of childhood Low SEC on adolescent mental health was found to be positive peer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elementary school children's lower levels of SEC predicted lower levels of positive peer relationships in their first year at middle school, which in turn predicted higher depression and lower life satisfaction in the following year.

Regarding our first findings on three distinct SEC growth profiles, it is worth noting that both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on average,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as children grow older. More importantly, continued disparities in SEC growth trajectories were observed: even though the Low SEC subgroup had a significant increase in group collaboration, they still had the lowest level of group collaboration by the last year of elementary school. Whil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limited and mixed literature on SEC growth trajectories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is study raises a question about what we can and should do to reverse the declining trajectories of Korean children's SEC, overall, as well as to close the existing gaps in these trajectories. Previous research has suggested that school-based universal SEL interventions may promote students' overall SEC while also preventing some disparities from further widening, in the U.S. elementary school contexts (Lee et al., 2023).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call for more research to identify effective interventions that can promote Korean children's SEC development in general and also reduce the observed disparities thereof.

Regarding our second findings about the links between childhood SEC growth profil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it is noteworthy that onl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played a mediating role in expl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ow SEC group and the Medium SEC group in their later mental health outcomes. As fo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igh SEC group and the Medium SEC group, both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respectively and together, played a mediating role linking childhood SEC growth trajectori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Although some direct paths involving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were significant, this variable was not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SEC growth profil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These findings provide some interesting insights into the

different outcomes to expect when we promote student SEC among those who have a low level of SEC versus those who already have an average or typical level of SEC. For the former, having an increased level of SEC may primarily enhance their social relationships, while for the latter, it may additionally help improving their academic performance.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although the model fit was good, the R-squared measures were generally small for both depression (R2 = 0.08) and life satisfaction (R2 = 0.09).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re research needs to be done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diational model based on SDT. One of the things that might have affected the small explanatory power and non-significant hypothesis testing results could be related to the limited operationalization of th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variables due to the use of secondary data. Another important point to note is that all the variables were self-reported. Although it is aligned with self-determination theor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perceptions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Ryan & Deci, 2017), the use of multi-informant and multi-method measurements would have strengthened the analysi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the effects of childhood SEC growth trajectories on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The overall levels of self-management and group collaboration during the upper elementary school years were found to predict later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One of the key mediators explaining the effects of childhood SEC on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was positive peer relationship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period. In addition, academic achievement was another important mediator explaining the effects of having higher-than-average levels of SEC in elementary school years on later mental health outcomes. We hope these findings inform the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efforts to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and promote mental well-being among Korean young adolescents by providing early support starting in elementary school years.

References

Aber, J. L., Brown, J. L., & Jones, S. M.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toward violence in middle childhood: Course, demographic differences, and response to school-based interv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324-348. http://dx.doi.org/10.1037/0012-1649.39.2.324

Buckley, M., & Saarni, C. (2009). Emotion regulation: Implication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R. Gilman, E. S. Huebner,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Routledge.

CASEL. (2020). CASEL's SEL Framework: What Are the Core Competence Areas and Where Are They Promoted? https://casel.org/casel-sel-framework-11-2020/?view=true

Chatterjee, S. N., & Duraiappah, A. K. (2020). Rethinking Learning: A Review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Education System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hatma Gandhi Institute of Educ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MGIEP).

Chernyshenko, O. S., Kankaraš, M., & Drasgow, F. (2018). Social and emotional skills for student success and well-being: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OECD 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Choi, J., Moon, H., Jeon, J., & Park, Y. (2021). Korean teenagers' mental health statu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tab=

Cipriano, C., Naples, L. H., Zieher, A., Durlak, J., Eveleigh, A., Funero, M., Strambler, M., Ponnock, A., McCarthy, M. F., & Chow, J. (2023). The state of evidence for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contemporary meta-analysis of universal school-based SE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Collie, R. J. (2022). Perceived social-emotional competence: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and links with social-emotional motivation and behaviors. Learning and Instruction, 82, 101656. https://doi.org/10.1016/j.learninstruc.2022.101656

Côté, S., Tremblay, R. E., Nagin, D., Zoccolillo, M., & Vitaro, F. (2002). The development of impulsivity, fearfulness, and helpfulness during childhood: Patterns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the trajectorie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5), 609-618.

Deighton, J., Humphrey, N., Belsky, J., Boehnke, J., Vostanis, P., & Patalay, P. (2018). Longitudinal pathways between mental health difficulties and academic performance during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110-126. https://doi.org/10.1111/bjdp.12218

Domitrovich, C. E., Durlak, J. A., Staley, K. C., & Weissberg, R. P. (2017).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 essential factor for promoting positive adjustment and reducing risk in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88(2), 408-416. https://doi.org/10.1111/cdev.12739

Durlak, J. A., Mahoney, J. L., & Boyle, A. E. (2022).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find out about universal, school-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meta-analyse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48(11-12), 765-782. https://doi.org/10.1037/bul0000383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3, pp. 646-718). John Wiley & Sons.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9780470147658.chpsy0311/full

Fine, S. E., Izard, C. E., Mostow, A. J., Trentacosta, C. J., & Ackerman, B. P. (2003). First grade emotion knowledge as a predictor of fifth grade self-reported internalizing behaviors in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2), 331-342. https://doi.org/10.1017/S095457940300018X

Goldstein, S. E., Boxer, P., & Rudolph, E. (2015). Middle school transition stress: Links with academic performance, motivation, and school experiences. Contemporary School Psychology, 19, 21-29.

Guhn, M., Gadermann, A. M., Almas, A., Schonert-Reichl, K. A., & Hertzman, C. (2016). Associations of teacher-rated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kindergarten to self-reported wellbeing, peer relations,

and academic test scores in middle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5, 76-84. https://doi.org/10.1016/j.ecresq.2015.12.027

Hagenauer, G., Gläser-Zikuda, M., & Moschner, B. (2018). University students' emotions, life-satisfaction and study commit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42(6), 808-826. https://doi.org/10.1080/0309877X.2017.1323189

Hay, D. F., Paine, A. L., Perra, O., Cook, K. V., Hashmi, S., Robinson, C., Kairis, V., & Slade, R. (2021). Pro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6(2), 7-103.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dx.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Jiménez-Rodríguez, T., De la Barrera, U., Schoeps, K., Valero-Moreno, S., & Montoya-Castilla, I. (2022).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 Adjustment: The Role of Attachment and Emotional Competence. Children, 9(11), Article 11. https://doi.org/10.3390/children9111711

Jones, D. E., Greenberg, M., & Crowley, M. (2015). Early Social-Emotional Functioning and Public Health: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Social Competence and Future Wellnes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11), 2283-2290. https://doi.org/10.2105/AJPH.2015.302630

Kang, Y., Ha, J., Ham, G., Lee, E., & Jo, H. (202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emotional competence,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in South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38, 106498.

Kingery, J. N., & Erdley, C. A. (2007). Peer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acros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30(2), 73-88.

Kokko, K., Tremblay, R. E., Lacourse, E., Nagin, D. S., & Vitaro, F. (2006). Trajectories of prosocial behavior and physical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Links to adolescent school dropout and physic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3), 403-428.

Li, N., & Hein, S. (2019). Parenting, Autonomy in Learning, and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in China.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9(163), 67-80. https://doi.org/10.1002/cad.20272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McLachlan, G.,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1st ed.). Wiley. https://doi.org/10.1002/0471721182

Mok, M. M. C., McInerney, D. M., Zhu, J., & Or, A. (2015). Growth trajectories of mathematics achievement: Longitudinal tracking of student academic progres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2), 154-171. https://doi.org/10.1111/bjep.12060

Moore, G. F., Cox, R., Evans, R. E., Hallingberg, B., Hawkins, J., Littlecott, H. J., Long, S. J., & Murphy, S. (2018). School, Peer and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Subjective Wellbeing and Mental Health Symptoms in Wales: A Cross Sectional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11(6), 1951-1965. https://doi.org/10.1007/s12187-017-9524-1

Mullins, E. R., & Irvin, J. L. (2000). Transition into middle school. Middle School Journal, 31(3), 57-60.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 Mplus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User's Guide. Muthén & Muthén.

Nakamichi, K., Nakamichi, N., & Nakazawa, J. (2021).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predict school adjustment in Grade 1.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1(2), 159-172. https://doi.org/10.1080/03004430.2019.1608978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07).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losing the gap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we do.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Harvard University.

Noom, M. J., Deković, M., & Meeus, W. H. J.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6), 771-783. https://doi.org/10.1006/jado.1999.0269

Oberle, E., Guhn, M., Gadermann, A. M., Thomson, K., & Schonert-Reichl,

K. A. (2018). Positive mental health and supportive school environments: A population-level longitudinal study of dispositional optimism and school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214, 154-161.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8.06.041

Rees, G., & Main, G. (2015).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15 countries: An initial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survey, 2013-14. Children's Worlds Project (ISCWeB). https://isciweb.org/wp-content/uploads/2019/12/ChildrensWorlds2015-FullReport-Final.pdf

Rhoades, B. L., Warren, H. K., Domitrovich, C. E., & Greenberg, M. T. (2011). Examining the link between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first grade academic achievement: The role of attention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6(2), 182-191. https://doi.org/10.1016/j.ecresq.2010.07.003

Rose-Krasnor, L., & Denham, S. (2009).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P. Laurs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162-179). Guilford Publications.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 1-36. https://doi.org/10.18637/jss.v048.i02

RStudio Team. (2019). RStudio: Integrated Development for R. [Computer software]. RStudio, Inc. http://www.rstudio.com/

Rudolph, K. D., Lambert, S. F., Clark, A. G., & Kurlakowsky, K. D. (2001). Negotiat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The role of self-regulator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2(3), 929-946.

Ruzek, E. A., Hafen, C. A., Allen, J. P., Gregory, A., Mikami, A. Y., & Pianta, R. C. (2016). How teacher emotional support motivates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perceived peer relatedness, autonomy support, and competence. Learning and Instruction, 42, 95-103. https://doi.org/10.1016/j.learninstruc.2016.01.004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https://doi.org/10.1214/aos/1176344136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https://doi.org/10.1007/BF02294360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18).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 and adolescent population—School based researc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948

Shin, K. M., Cho, S.-M., Shin, Y. M., & Park, K. S. (2016). Effects of Early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 6- to 8-Year Follow-Up Study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13(4), 383-388. https://doi.org/10.4306/pi.2016.13.4.383

Shin, T. (2007). Comparison of Three Growth Modeling Techniques in the Multilevel Analysis of Longitudinal Academic Achievement Scores: Latent Growth Model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d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8(2), 262-275.

Shoshani, A., & Slone, M. (2013). Middle school transition from the strengths perspective: Young adolescents' character strengths, subjective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 1163-1181.

Sørlie, M.-A., Hagen, K. A., & Nordahl, K. B. (2020).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during middle childhood: Growth trajectories and school-related predi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School & Educational Psychology, 1-19.

Spinrad, T. L., & Eisenberg, N. (2009). Empathy, prosocial behavior, and positive development in schools. In R. Gilman, E. S. Huebner,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Routledge.

UNICEF Innocenti.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6). UNICEF Office of Research - Innocenti, Florence. https://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Report-Card-16-Worlds-of-Influence-child-wellbeing.pdf

Vestad, L., Bru, E., Virtanen, T. E., & Stallard, P. N. (2021). Associations of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academic efficacy beliefs, and

emotional distress among students in lower secondary scho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4(2), 413-439. https://doi.org/10.1007/s11218-021-09624-z

Walton, K. E., Murano, D., Burrus, J., & Casillas, A. (2023). Multimethod support for using the Big Five Framework to organize social and emotional skills. Assessment, 30(1), 144-159.

Wang, Y., Yang, Z., Zhang, Y., Wang, F., Liu, T., & Xin, T. (2019). The Effect of Social-Emotional Competency on Child Development in Western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10.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19.01282

Willett, J. B., 到外部网站的链接，此链接将在新窗口中打开, & Sayer, A. G. (1994).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o detect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individual change over time. Psychological Bulletin, 116(2), 363-381. https://doi.org/10.1037/0033-2909.116.2.363

Yates, T., Ostrosky, M. M., Cheatham, G. A., Fettig, A., Shaffer, L., & Santos, R. M. (2008). Research Synthesis on Screening and Assessing Social-Emotional Competence. The Center on the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s for Early Learning.

Yoo, S. H. (2007). Student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 355-375.

Zahn-Waxler, C., & Smith, K. D. (199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Van Hasselt V. B. & Hersen M.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pp. 229-256). Springer.

Zhang, C., Mao, L., Li, N., & Gu, X. (2022). Chinese EFL Student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rit, and Academic Engagement. Frontiers in Psychology, 13.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2.914759

Zhang, W., Zhang, L., Chen, L., Ji, L., & Deater-Deckard, K. (2019). Developmental changes in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from late childhood to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0(2), 178-188. https://doi.org/10.1111/jcpp.12927

Appendix A

Table A.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the key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Wave 1 (Grade 4 in elementary school)															
1. Self-management	—														
2. Group collaboration	.52**	—													
3. Depression	-.58**	-.38**	—												
4. Life satisfaction	.48**	.44**	-.48**	—											
5. Academic achievement	.35**	.31**	-.25**	.34**	—										
6. Positive peer relationships	.31**	.53**	-.27**	.34**	.19**	—									
Wave 2 (Grade 5 in elementary school)															
7. Self-management	.45**	.28**	-.30**	.27**	.20**	.15**	—								
8. Group collaboration	.23**	.35**	-.16**	.19**	.15**	.23**	.43**	—							
Wave 3 (Grade 6 in elementary school)															
9. Self-management	.35**	.20**	-.22**	.21**	.14**	.13**	.46**	.21**	—						
10. Group collaboration	.23**	.34**	-.16**	.19**	.15**	.23**	.25**	.39**	.36**	—					
Wave 4 (Grade 1 in middle school)															
11.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20**	.18**	-.14**	.15**	.16**	.11**	.18**	.15**	.24**	.19**	—				
12. Academic achievement	.17**	.19**	-.11**	.15**	.26**	.11**	.16**	.14**	.15**	.18**	.30**	—			
13. Positive peer relationships	.12**	.20**	-.11**	.12**	.05*	.25**	.11**	.19**	.12**	.25**	.26**	.17**	—		
Wave 5 (Grade 2 in middle school)															
14. Depression	-.13**	-.11**	.18**	-.13**	-.07**	-.09**	-.17**	-.08**	-.23**	-.13**	-.13**	-.14**	-.11**	—	
15. Life satisfaction	.12**	.10**	-.12**	.14**	.07**	.06**	.21**	.13**	.20**	.15**	.12**	.23**	.13**	-.35**	—

Note. * $p < 0.05$, ** $p < 0.01$ (2-tailed)

Appendix B

Table B. Regression coefficients for direct paths

	Path	Coefficient Estimates					Bootstrapping (95% CI)	
		Std.	Un.std	SE	Z	p-value	Lower	Upper
Direct effects of predictors on outcomes								
1	High→Dp5	-0.176	-0.172	0.031	-5.663	0.000	-0.113	-0.176
2	Low→Dp5	0.058	0.048	0.031	1.849	0.065	-0.006	0.117
3	High→LS5	0.118	0.136	0.034	3.496	0.000	0.053	0.184
4	Low→LS5	-0.095	-0.097	0.03	-3.184	0.001	-0.154	-0.035
Direct effects of predictors on mediators								
5	High→SAE4	0.138	0.148	0.037	3.721	0.000	0.071	0.212
6	Low→SAE4	-0.133	-0.127	0.034	-3.915	0.000	-0.201	-0.068
7	High→AA4	0.193	0.201	0.046	4.22	0.000	0.105	0.285
8	Low→AA4	-0.054	-0.068	0.04	-1.361	0.174	-0.129	0.027
9	High→PPR4	0.126	0.105	0.032	3.984	0.000	0.064	0.188
10	Low→PPR4	-0.068	-0.076	0.027	-2.528	0.011	-0.123	-0.02
Direct effects of mediators on outcomes								
11	SAE4→Dp5	-0.046	-0.047	0.022	-2.065	0.039	-0.09	-0.002
12	AA4→Dp5	-0.062	-0.062	0.018	-3.39	0.001	-0.096	-0.026
13	PPR4→Dp5	-0.073	-0.055	0.026	-2.812	0.005	-0.123	-0.021
14	SAE4→LS5	0.024	0.011	0.023	1.012	0.311	-0.024	0.07
15	AA4→LS5	0.146	0.14	0.018	8.105	0.000	0.11	0.183
16	PPR4→LS5	0.083	0.076	0.028	2.923	0.003	0.025	0.139
Direct effects of covariates on mediators and outcomes								
17	Dp1→Dp5	0.114	0.098	0.029	3.985	0.000	0.058	0.172
18	LS1→Dp5	0.011	-0.012	0.026	0.389	0.697	-0.0429	0.065
19	AA1→Dp5	0.046	0.029	0.018	1.741	0.082	-0.006	0.067
20	PPR1→Dp5	-0.023	-0.007	0.028	-0.848	0.397	-0.077	0.031
21	Inc→Dp5	0.01	0.004	0.005	0.444	0.657	-0.008	0.012
22	Gen→Dp5	0.09	0.08	0.024	3.959	0.000	0.048	0.1418
23	SPP1→Dp5	0.003	-0.013	0.031	0.12	0.904	-0.06	0.065
24	DP1→LS5	-0.009	-0.004	0.027	-0.354	0.724	-0.061	0.044
25	LS1→LS5	0.05	0.057	0.027	1.849	0.064	-0.005	0.104
26	AA1→LS5	-0.042	-0.044	0.017	-2.446	0.014	-0.074	-0.01
27	PPR1→LS5	-0.062	-0.042	0.026	-2.426	0.015	-0.114	-0.012
28	Inc→LS5	0.007	0.005	0.005	1.283	0.199	-0.005	0.017
29	Gen→LS5	-0.061	-0.06	0.024	-2.542	0.011	-0.11	-0.011
30	SPP1→Ls5	0.048	0.038	0.033	1.48	0.139	-0.018	0.113

	Path	Coefficient Estimates					Bootstrapping (95% CI)	
		Std.	Un.std	SE	Z	p-value	Lower	Upper
31	Dp1→SAE4	-0.039	-0.025	0.03	-1.301	0.193	-0.1	0.017
32	Ls1→SAE4	-0.007	0.021	0.031	-0.233	0.816	-0.067	0.056
33	AA1→SAE4	0.061	0.058	0.02	2.977	0.003	0.02	0.101
34	PPR1→SAE4	-0.003	-0.001	0.028	-0.106	0.916	-0.058	0.054
35	Inc→SAE4	0.027	0.024	0.005	4.839	0.000	0.016	0.038
36	Gen→SAE4	0.074	0.058	0.027	2.768	0.006	0.017	0.125
37	SPP1→SAE4	0.05	0.041	0.034	1.494	0.127	-0.017	0.115
38	Dp1→AA4	-0.007	0.024	0.036	-0.184	0.854	-0.078	0.06
39	LS1→AA4	0.000	0.024	0.036	-0.007	0.994	-0.069	0.074
40	AA1→AA4	0.198	0.188	0.024	8.292	0.000	0.156	0.245
41	PPR1→AA4	0.025	0.028	0.035	0.71	0.478	-0.044	0.092
42	Inc→AA4	0.024	0.023	0.007	3.248	0.001	0.011	0.038
43	Gen→AA4	-0.028	-0.031	0.031	-0.919	0.358	-0.09	0.033
44	Pp1→AA4	0.018	0.022	0.046	0.382	0.703	-0.076	0.114
45	Dp1→PPR4	-0.012	-0.017	0.024	-0.508	0.611	-0.055	0.037
46	LS1→PPR4	0.001	0.005	0.025	0.054	0.957	-0.049	0.047
47	AA1→PPR4	-0.021	-0.017	0.015	-1.368	0.171	-0.049	0.008
48	PPR1→PPR4	0.198	0.183	0.026	7.668	0.000	0.148	0.25
49	Inc→PPR4	0.004	0.006	0.005	0.903	0.366	-0.005	0.014
50	Gen→PPR4	0.084	0.082	0.022	3.739	0.000	0.04	0.128
51	SPP1→PPR4	0.004	-0.007	0.029	0.144	0.885	-0.054	0.063

Note. Two mental health outcomes includes depression in Wave 5 (Dp5) and life satisfaction in Wave 5 (LS5); SEC subgroups includes the high SEC subgroup (High) and the low SEC subgroup (Low), whereas the Medium subgroup was treated as the reference group; three mediators in Wave 4 include self-directed academic engagement (SAE4), academic achievement (AA4),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PPR4); covariates at baseline include academic achievement (AA1), positive peer relationships (PPR1), depression (Dp1), life satisfaction (LS1), gender (Gen), parent-reported family income level (Inc), and student-reported positive parenting (SPP1).

‘The Effects of Childhood Social-Emotional Competence Development Trajectories on Adolescent Mental Health: Exploring Mediational Pathway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토론문

김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사회정서역량(social-emotional competence, SEC)의 발달 궤적이 이후 시기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그 예측경로에 있어서 학업적 자율성과 학업성취, 또래관계의 매개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모형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는데, 이 이론은 인간의 동기부여와 정서적 안녕 추구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심리요소를 규명한 이론입니다. 이 밖에도 광범위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사회정서역량과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서 분석에 대한 이론적 근거설정이 특히 탄탄한 연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분석모형은 다소 복잡한 편이었는데 먼저 사회정서역량을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 협동심(group collaboration)으로 정의하고 데이터의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구인을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3개 시점의 측정치로 개개 대상자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이후 이 궤적의 높이와 양상을 기준으로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매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 3개의 변수(중학교1학년 시점의 학업적 자율성과 학업성취, 또래관계)를 데이터에서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구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시기에 이르는 사회정서역량 궤적에 따른 집단 구분이 중학교2학년 시기의 정서적 건강을 의미하는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혹은 예측)을 중학교1학년 시점의 학업적 자율성과 학업성취, 또래관계가 매개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습니다.

예측인자이자 독립변수인 3개년의 사회정서역량 궤적 집단 구분은 더미변수로 코딩되어 투입하였으므로 결과의 해석은 '중'집단을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의 경로별 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을 해석해야하는 다소 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논의'에서 간명한 결과해석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주요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함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결과의 의미와 결과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는 상-중-하 집단별 궤적의 양상을 비교하고, 집단별 매개효과와 종속변수(결과변수)에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정서역량 제고를 위한 개입이 사회정서역량이 낮은 집단에게는 또래관계의 개선을 가져오고, 사회정서역량이 평균적인 집단에는 또래관계의 개선을 포함하여 학업성취 향상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함의는 여러 후속연구 아이디어를 파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결과로 생각됩니다.

매개효과 검증 모형이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추후 본 연구의 발전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CFI와 TLI가 상한선 값으로 도출되고, 특히 RMSEA가 0으로 분석된 점은 적합도 계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변인 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진행한 후 이 결과를 2단계 모형에 투입함으로서 오차의 누적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mixture 구조방정식모형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그 안에서 적절한 문항을 추출하고 구인을 설정하였으며 이론을 바탕으로 매개모형을 구성한 부분은 이 연구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추출되어 새롭게 구성된 구인들은 구인타당도 검증이나 3개년 사회정서역량 궤적 파악을 위한 측정동일성(불변성)검증이 추가된다면 보다 고도화된 양적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제안 드린 구인타당도나 측정동일성 검증은 물론 검증의 기준은 있겠으나,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여 이후 단계 진행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결과 해석을 위한 참고로 활용 또는 제시해보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좋은 연구와 발표 감사합니다.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과 이질성에 대한 종단 연구

이빈*

〈국문 초록〉

형제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을 공유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동시에 독립된 개인 간 집합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기도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형제간에는 유사성과 이질성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4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패널 참여자와 형제패널 참여자를 연결하여 형제 쌍을 형성하였고,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잠재성장모형을 응용한 이변수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결과,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높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초기치와 초기치, 기울기와 기울기 사이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r = .30 ~ .60). 이는 각 형제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평균적으로 유사하고, 변화하는 수준도 유사함을 뜻한다. 한편, 이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형제간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1표준편차만큼 유의하였고, 그 차이는 4년에 걸쳐 유의하게 늘거나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형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닮았지만, 같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부모나 가정과 같은 공유된 환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형제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 형제, 삶의 만족도, 공유된 환경, 이변수잠재성장모형, KCYPS 2018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cabikae@gmail.com

Ⅰ. 서론

청소년 형제*는 각자의 삶에 만족하는 수준도 닮았을까? 형제는 유전자를 공유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특별한 사회적 단위로 볼 수 있다(Jensen, Whiteman, & Fingerman, 2018; Steinberg & Morris, 2001).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쌍은 서로 닮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Anderson, Keltner, & John, 2003), 삶의 만족도와 같은 안녕감에서도 형제간 유사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닮았다는 것이 같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부모 아래 성장한 형제라 할지라도, 각자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Plomin & Daniels, 2011),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Kowal & Kramer, 1997). 부모에 대한 태도나 형제와의 관계 등을 연구한 사례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사이에는 형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els & Plomin, 1985; Kowal et al., 2002). 따라서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이 얼마나 될지,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크게 나타날 지는 경험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되, 손위-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과 이질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서 삶의 만족도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로(Diener, 1994;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의 수준을 뜻한다(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인인 만큼(이국희, 최종안, 이현응, 홍영일, 최인철, 2020;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2012),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탐구할 때, 청소년 개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 형제라는 독특한 사회적 단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개인에 대한 연구에서 얻을 수 없는 고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요인(예, 유전자)은 변화하지 않지만 유동적인 요인(예, 환경)은 변화한다는 점에서, 형제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면 안정적인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채 유동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직관적인 예시로, 특정한 시점에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가 동일한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형제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다음 시점에 측정한 삶의 만족도가 각각 1점씩 하락하거나, 어머니의 승진으로 삶의 만족도가 1점씩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 본 연구에서 '형제'라는 용어는 남자인 형과 동생 사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관계 없이 한 가정 내 동기를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nd).

대해서 환경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유된 유전자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환경에서 변화가 있었으므로, 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Wortman & Lucas, 2016). 반면, 같은 예시에서 형제의 삶의 만족도가 제각각 변화하여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면 이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지는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서 형제간 유사성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환경의 영향력이 결정적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삶의 만족도의 형제간 유사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손위, 손아래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유사성은 상관관계로 나타나는데, 상관이 1이어도 차이가 0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제간 삶의 만족도가 매우 유사하게 변화한다고 하여도, 무시할 수 없는 개인차가 있다면 이는 형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은 독립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차이 그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쌍을 연구 단위로 할 때 차이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일례로 같은 부모를 둔 형제가 지각한 양육 행동에서 큰 차이를 보고한다면, 이는 건강한 가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wal et al., 2002). 부모의 편애에 대한 형제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부모가 자신 또는 형제에 대해 편애한다고 믿으면 그 형제의 안녕감은 낮고, 불안이나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Kowal et al., 2002). 심지어, 자신이 긍정적 편애를 받는다고 인식한 경우에도(즉, 상대 형제보다 자신이 더 사랑받는다고 인식한 경우), 공평한 사랑을 받는다고 믿는 가정의 형제보다 안녕감 수준이 낮았다. 이처럼 밀접한 쌍 사이의 차이가 고유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반복된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성인기 부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혼을 포함한 갈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erstorf et al., 2013; Lucas, 2007; Wortman & Lucas, 2016). 자신과 배우자 사이 큰 차이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때때로 부부 관계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요컨대, 밀접한 쌍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그 자체로 주의 깊게 살펴볼 변수가 될 수 있다(Gerstorf, Windsor, Hoppmann, & Butterworth, 2013).

종합하면,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과 이질성을 직접적으로 탐색하고 그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다. 형제라는 쌍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과 유전과 같은 안정적 요인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과 이질성을 종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의 특성에 대해 고유한 이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변화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 상 개인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가 두드러지고, 부모나 형제 등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Steinberg & Morris, 2001). 청소년은 이 같은 변화와 발달을 겪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도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생애에 걸쳐 추적한 연구들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의 변화는 대체로 U자형 궤적을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Galambos, Fang, Krahn, Johnson, & Lachman, 2015; Ranta, Chow, & Salmela-Aro, 2013), 학령기 청소년 시기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다수의 연구에서 학령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찰 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이빈, 우정민, 황선영, 이선영, 2023; 정윤화, 봉초운, 홍세희, 2018; Daly, 2022), 이후 20대 성인기가 되면 다시 상승하여 노년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öcke & Lachman, 2008). 이 같은 경향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데, 이런 현상을 두고 단순히 '그럴 때가 있다'고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 그 자체가 청소년이 안녕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부정적 결과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인기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O'Connor, Sanson, Toumbourou, Norrish, & Olsson, 2017),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방대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인 관계에 집중한 국내 연구 사례를 찾자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중요한 어른의 영향을 탐색한 사례가 많았고(예, 이빈, 외, 2023), 학급 친구나 팬덤활동 등 또래 관계에 집중한 연구도 다수 찾아 볼 수 있었다(예, 김다희, 최진아, 2017;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그럼에도 가장 밀접한 관계 중 하나인 형제에 집중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형제는 가정 안팎에서 매일 만나는 중요한 타인 중 하나로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형제의 영향에 대한 심리학 내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설경옥, 김유나, 2018).

2. 청소년 개인이 아니라 형제라는 쌍을 분석하는 이유

몇몇 심리학자들은 분석의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쌍으로 삼는 방식이 고유한 시사점 있다고 강조하였다(Kenny & Zautra, 1995). 대표적으로 부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 연구 사례를 들 수 있다(Hoppmann et al., 2011; Wortman & Lucas, 2016). 개개인이 아니라 부부라는 쌍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연구에서는 부부의 행복감(happiness) 사이 상관계수(r)가 .5 이상으로 나타날 만큼 부부 간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Hoppmann et al., 2011), 이는 개인의 행복감에 대해 환경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전적 유사성이 없는 두 남녀 사이에 공유하는 것은 환경적 변인과 둘 사이 상호작용 뿐인데, 부부가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는 것은 공유된 환경과 부부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Anderson et al., 2003; Wortman & Lucas, 2016). 이와 같은 논리를 확대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 전에 비해 이혼 후에는 유사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부부가 이혼 후, 이혼 전에 높았던 유사성 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Wortman & Lucas, 2016). 이 같은 발견과 통찰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획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개인이 아닌 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고유한 시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삶의 만족도에서 형제간 유사성은 어떠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청소년 형제라는 독특한 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부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기(혹은 노년기)에 대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로 10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부부는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두 명이 의도적으로 맺은 관계이지만, 형제는 유전자를 공유하는 생득적 관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쌍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형제간 삶의 만족도 사이 관련성이 부부의 것과 같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추론해보건대, 삶의 만족도의 형제간 유사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모두 가능하다. 먼저, 형제간 삶의 만족도에서도 높은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 가정에서 성장한 형제라면 부모의 양육 행동, 경제적 지원 등 환경을 공유하고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부와 달리 형제는 환경 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도 공유하기 때문에 더 높은 유사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출생 직후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자란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둘 사이에 높은 유사성이 있다면 유전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유사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면 환경의 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Neale & Cardon, 2013). 반면, 형제의 삶의 만족도 간에 유사성이 적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 형제가 유전자를 공유하고 환경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주관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Kowal et al., 2002), 비슷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은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 가정 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부모 및 가정에 대한 인식은 상이함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으며(Daniels & Plomin, 1985; Kowal et al., 2002; Kowal et al., 2006),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성인기에 비해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으므로(Pollard & Lee, 2003), 한 가정 내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유사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성인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겪는 발달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청소년 형제의 안녕감 사이 유사성이 성인기 부부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공유된 환경(즉, 가정)보다 또 다른 제 3의 변인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서 형제간 유사성과 이질성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을 추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추정법을 제안한다. 하나는 형제의 삶의 만족도를 각각 평균한 뒤 두 평균 사이 상관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을 구한 뒤 두 변화량 사이의 상관을 구하는 것이다(Hoppmann et al., 2011; Kenny & Zautra, 1995).

전자인 평균 사이 상관이 크다는 것은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수준에서 유사성을 추정하는 방법이지만, 이 평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안정적인 요인과 유동적인 요인의 영향과 더불어 그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유전자나 성격 등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은 환경의 변화에 관계 없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Lucas & Donnellan, 2007). 따라서 한 시점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안정적인 것(예, 유전), 유동적인 것(예, 환경, 둘 사이 상호작용)이 모두 혼합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의 평균에서 형제간 상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인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인지 알기는 어렵다.

반면, 후자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뒤 유동적인 요인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환경을

공유한 형제가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에서 높은 상관을 보인다면 이는 삶의 만족도에서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유전자에서는 변화가 없고 환경에서만 변화가 있었는데 삶의 만족도가 변화하였다면, 환경이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추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Wortman & Lucas, 2016). 다만,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에서 형제간 높은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환경이 유전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Schimmack & Lucas, 2010). 앞서 유전자와 같은 안정적인 요인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 역시 환경과 같은 유동적인 변인의 영향 뿐 아니라 안정적인 변인과의 상호작용까지 혼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형제의 삶의 만족도가 변화하는 양상이 비슷하다고 하여 그것이 환경(또는 형제 사이 상호작용)의 영향만이 유의하고 유전은 영향을 주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성과 이질성을 탐색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앞서 성인기 부부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상관이 높게 나타남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노년기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 사이에 부부간 상관이 .85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Hoppmann et al., 2011). 추측컨대, 노년기에 접어들며 삶의 만족도가 안정되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발달 단계의 특성상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형제간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연구 대상의 발달 단계 상 특징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부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보다 형제 사이 유사성이 더 크거나 작게 나타난다고 하여 그것이 청소년기에는 성인기에 비해 유전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크거나 작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부부와 마찬가지로 형제도 환경을 공유하므로 삶의 만족도의 변화 수준이 매우 유사하다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형제의 삶의 만족도 평균 간에 높은 상관이 있고 변화량 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유전자 등 안정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단, 유동적인 요인의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평균 간에 상관이 없고 변화량 간에 상관이 크다면, 환경 등 유동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단, 안정적인 요인의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평균과 변화량 모두에서 높은 상관이 있다면, 안정적인 요인과 유동적인 요인의 영향이 모두 크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 경우에 둘 중 무엇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지는 알기 어렵다. 요컨대, 형제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와 더불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변화하는 양은 얼마나 유사한지까지 동시에 추정하여야 종합적인 이해

를 얻을 수 있다.

끝으로 닮음이 같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삶의 만족 수준에서 형제끼리 비슷하다는 것이 곧 형제간 차이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동일한 사건을 겪은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에서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변화의 세기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유사성 분석을 통해 형제간 삶의 만족도가 매우 유사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여도, 만약 무시할 수 없는 개인차가 있다면 이는 형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은 독립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성과 더불어 이질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KCYPS 2018에서는 쌍둥이 여부를 포함하고 있어, 쌍둥이 형제와 그렇지 않은 형제를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하다.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과 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쌍이다. 이란성 쌍둥이인 경우에도 적어도 나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연령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쌍둥이 형제가 그렇지 않은 형제에 비해 차이가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지는 알려진 바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상관과 차이에 대해 종단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평균 수준에서 유사한지와 더불어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수준에서 유사함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사하다는 것이 같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제간 삶의 만족도 사이 차이를 구하여 이질성에 대해서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은 어떠한가?

1-1. 청소년 형제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사이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인가?

1-2.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변화량 사이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이질성은 어떠한가?

2-1.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가?

2-2. 이 차이는 쌍둥이 형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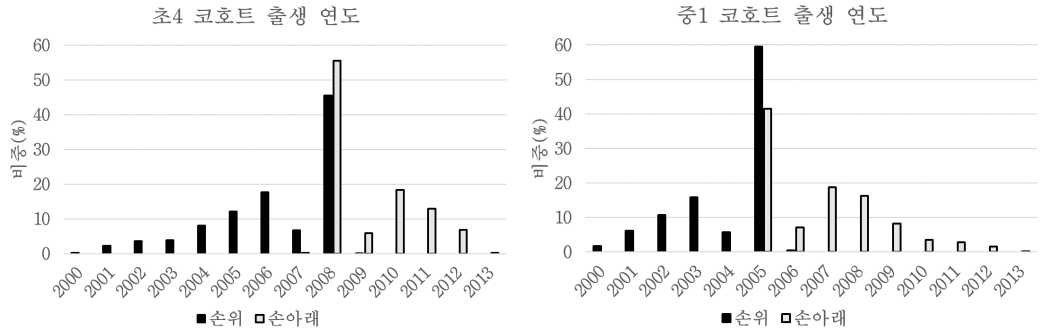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을 포괄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의 중1 코호트와 초4 코호트를 각각 분석하였다. KCYPS 2018은 한국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변화를 통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는 패널 조사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연구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본 패널은 한 가정을 기준으로 원패널 참여자와 그 형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처럼 형제간의 관계를 탐색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형제에 대한 조사는 2차년 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2차년부터 5차년까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초4 코호트의 경우 원패널이 초등학교 5학년인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인 때까지, 중1 코호트의 경우 원패널이 중학교 2학년인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일 때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 가정에서 원패널 참여자가 두 명 이상이거나, 형제패널 참여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무작위로 각각 1명씩만 선정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패널과 형제간에 쌍둥이인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가정 당 한 쌍의 형제만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중1 코호트는 956쌍, 초4 코호트는 784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 가정 내에서 출생 년과 월을 기준으로 손위, 손아래 형제를 구별하였으며, 출생연월이 같은 경우(즉, 쌍둥이)는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코호트별 손위, 손아래 형제의 성비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코호트별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의 출생 연도는 〈그림 1〉에 시각화하였다.

〈표 1〉 코호트별 손위, 손아래 형제의 성비

구분	중1 코호트		초4 코호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손위	50.7	49.3	49.9	50.1
손아래	51	49	47.6	52.4



〈그림 1〉 코호트별 손위, 손아래 형제의 출생 연도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Diener 외(1985)의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척도 5문항 중 4문항을 활용하였다. 1개 문항은 내적 신뢰도를 떨어뜨려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문항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등이다. Likert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년부터 5차년까지 수집한 중1 코호트 자료의 신뢰도 α는 각각 .80, .81, .80, .80으로, 초4 코호트 자료의 신뢰도 α는 각각 .79, .79, .81, .8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1) 데이터 처리

쌍을 분석 단위로 하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Cook & Kenny, 2005; Hoppmann et al., 2011), 형제의 삶의 만족도는 첫 시점(본 연구의 경우 2차년 측정치)을 기준으로, 손위 또는 손아래 측정치를 각각 T점수로 변환하였다(M = 50, SD = 10). 이 같은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두 형제 중 한 명과 다른 한 명을 나누는 기준을 나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 사이 관련성을 추정할 때 각자의 나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Cook & Kenny, 2005).

2) 본분석

① 이변수 잠재성장모형(two variable latent growth model)

형제와 같은 쌍 자료는 관측치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분석을 실시하면 그 검정 결과가 편향되며(Kenny & Zautra, 1995), 쌍 사이 관계를 탐색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측정치의 비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김민재, 심미경, 김수영,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변수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종단적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을 응용한 것으로(Hoppmann et al., 2011; McArdle, 1988; Schade et al., 2016), 형제나 부부와 같이 밀접한 쌍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모형이다.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도식화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고정 효과(초기치와 기울기의 추정치)와 무선 효과(초기치와 기울기에서의 개인차)를 추정할 수 있다. 절편(즉 초기치)과 기울기를 전체 집단 수준에서 추정하였으며, 각각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종단 연구의 특성상 결측치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보완하기 위해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Arbuckle et al., 1996).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홍세희, 2000), 통상적인 기준인 RMSEA .05 이하, CFI와 TLI .90 이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Hu & Bentler, 1999). 잠재성장모형 분석에는 *M*plus 7.0(1998-2012)을 사용하였다.

총 2단계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1단계에서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의 잠재 평균과 기울기를 각각 추정한 뒤, 평균과 평균끼리 혹은 기울기와 기울기끼리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형제 각각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추가하여, 삶의 만족도에서 형제간 관련성이 성별에 따른 효과가 아님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형제라는 쌍을 허물고 무작위로 쌍을 지었을 때에도 둘 사이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만약 무작위로 설정한 쌍에서도 삶의 만족도 사이 밀접한 관련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형제 사이에 고유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코로나와 같이 특정 시점에 패널 조사 참여자 모두가 경험한 공통 사건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에게 난수로 식별 번호를 부여한 뒤 임의로 쌍을 지어 1단계와 동일한 절차로 분석하였다. 즉, 형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무작위 쌍을 형성하여 분석한 결과를 실제 형제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1단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도 측정 연도는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형제간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연도에 의한 효과는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예측된 변화량 사이의 상관을 비교함으로써 형제일 때에 비해 무작위 쌍일 때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였고, 주요 결과를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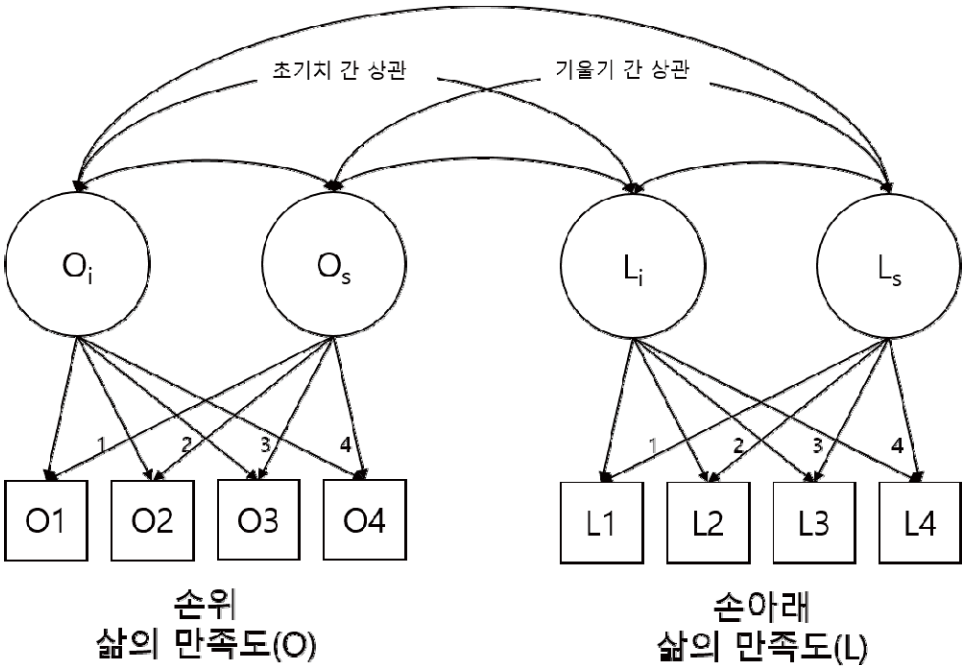
②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

손위-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 수준이 비슷하고, 변화하는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여 형제간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간 안녕감의 차이를 뺄셈으로 구한 뒤, 이 값의 절댓값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Gerstorf et al., 2013). 이 차이의 절댓값의 평균적인 크기와 변화하는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③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가 아닌 형제 사이 비교

마지막으로, 쌍둥이 형제간 차이와 그렇지 않은 형제간 차이가 쌍둥이 여부에 따라 다른지도 검증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할 때 T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쌍둥이의 사례가 적고 두 집단의 표본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T검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맨 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손위-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변수 잠재성장 모형. i는 초기치, s는 기울기를 뜻한다. 손위의 초기치와 손아래의 초기치 간 공분산, 기울기와 기울기 간 공분산을 추정하였다.

Ⅴ.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손위, 손아래 형제의 시점별 삶의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첫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모든 코호트에서 4년에 걸쳐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집단의 평균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한 청소년이 본인의 형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에 본분석에서는 이변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형제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표 2〉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T점수) 기술 통계치

측정 연도	초4 코호트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					
	손위 형제			손아래 형제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2019	784	50.00	10.00	784	50.00	10.07
2020	677	49.19	10.05	698	48.88	9.76
2021	614	48.36	10.00	676	47.55	10.43
2022	589	46.74	9.94	689	46.56	9.97
	중1 코호트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					
	손위 형제			손아래 형제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2019	956	50.00	10.00	956	50.00	10.00
2020	768	49.83	10.79	805	49.39	10.08
2021	661	49.73	9.59	757	49.22	10.08
2022	557	48.59	10.15	713	48.26	10.18

2. 이변수 잠재성장모형 분석

1단계 분석 결과인 형제간 이변수 잠재성장모형을 〈표 3〉과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초기치와 기울기 사이 유사성을 탐색하였다.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모두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초4 코호트의 경우, CFI = .974, TLI = .966, RMASEA = .033. 중1 코호트의 경우, CFI = .948, TLI = .933, RMASEA = .041).

1단계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쌍 효과'로, 그중 '손위 초기치 – 손아래 초기치' 사이 상관계수와 '손위 기울기 – 손아래 기울기' 사이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며, 그 크기 역시 작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4 코호트의 경우 초기치와 초기치 사이 높은 상관이 나타나(r = .54, p 〈 .001), 두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평균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울기와 기울기 사이에도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므로(r = .30, p 〈 .001), 삶의 만족도가 해마다 변화하는 수준에서도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중1 코호트에서도 반복되었다. 초기치와 초기치 사이 상관이 r = .37(p 〈 .001), 기울기와 기울기 사이 상관이 r = .60(p 〈 .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형제는 학령기 전반에 걸쳐 삶의 만족도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각 형제의 성별을 투입하였으므로 이 같은 경향은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분석에서는 이 같은 쌍 효과가 같은 연도에 동일한 시대적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는 쌍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효과임을 보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무작위로 쌍을 지은 뒤 같은 분석 절차를 반복한 결과를 1단계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손위와 손아래의 삶의 만족도의 예측된 변화량 간의 상관이 형제일 때에 비해 무작위로 쌍을 지었을 때 그 수준이 줄어들거나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무작위로 짝을 지었기 때문에 무작위 쌍 효과는 매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10회 이상 무작위 쌍을 새로이 형성하고 분석하여도 예측된 변화량 사이 상관계수는 실제 형제일 때보다 항상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요컨대,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나타난 유사한 관련성이 연도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실제 형제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초4 코호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변수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모수	개인 효과			
	손위 형제		손아래 형제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고정효과				
초기치	50.42***	.46	49.88***	.48
기울기	-1.29***	.21	-0.91***	.21
무선효과				
초기치의 분산	43.90***	5.11	45.96***	5.00
기울기의 분산	3.69***	1.13	4.07***	1.17
초기치와 기울기의 상관	-.26*		-.39***	
잔차 분산				
시점1	58.89***	5.21	60.47***	5.26
시점2	53.63***	3.69	48.90***	3.43
시점3	55.42***	4.01	63.68***	4.25
시점4	42.30***	5.25	51.67***	5.47

	쌍 효과(r)
손위 초기치 - 손아래 초기치	**.54*** **
손위 기울기 - 손아래 기울기	**.30****
손위 초기치 - 손아래 기울기	-.09
손위 기울기 - 손아래 초기치	-.27**
$\chi^2(df)$	62.597(34)
CFI / TLI	.974 / .966
RMSEA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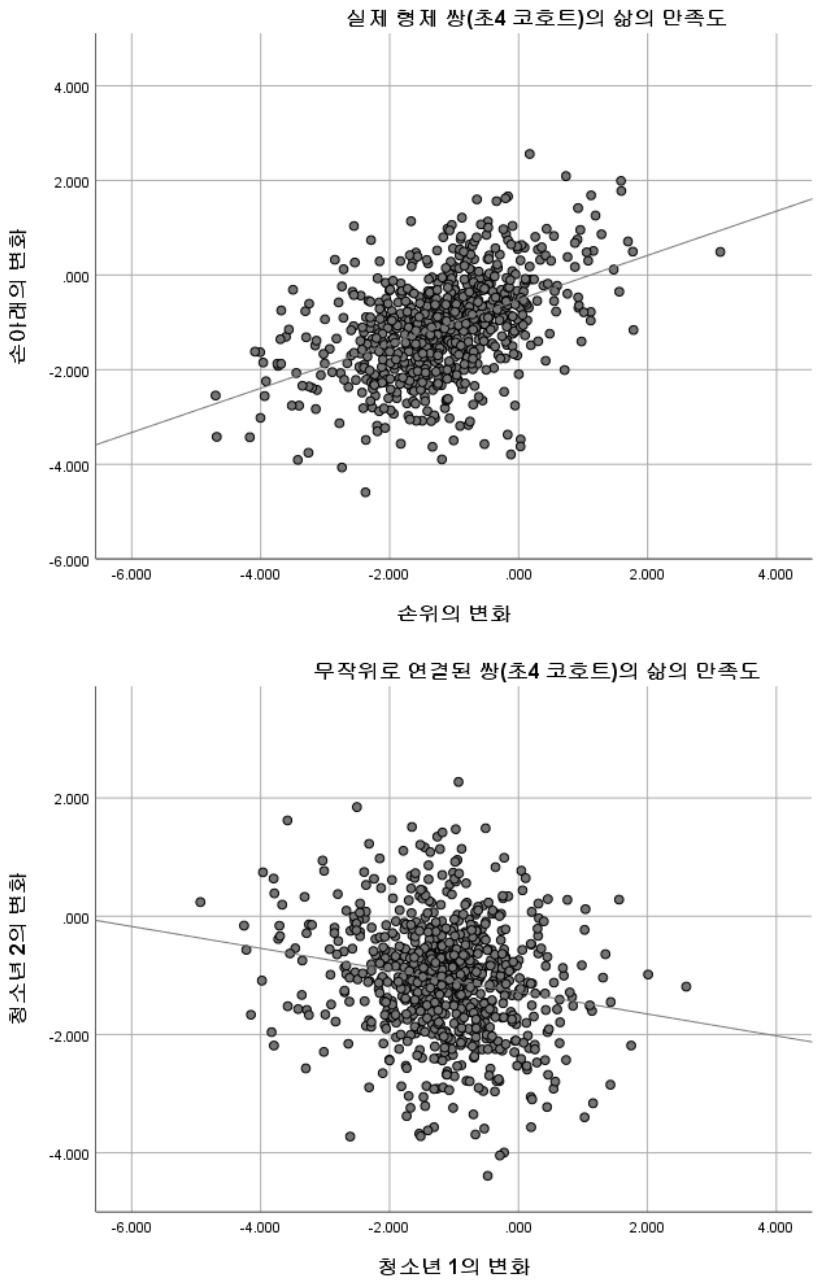
*p<.05, **p<.01, ***p<.001

〈표 4〉 중1 코호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변수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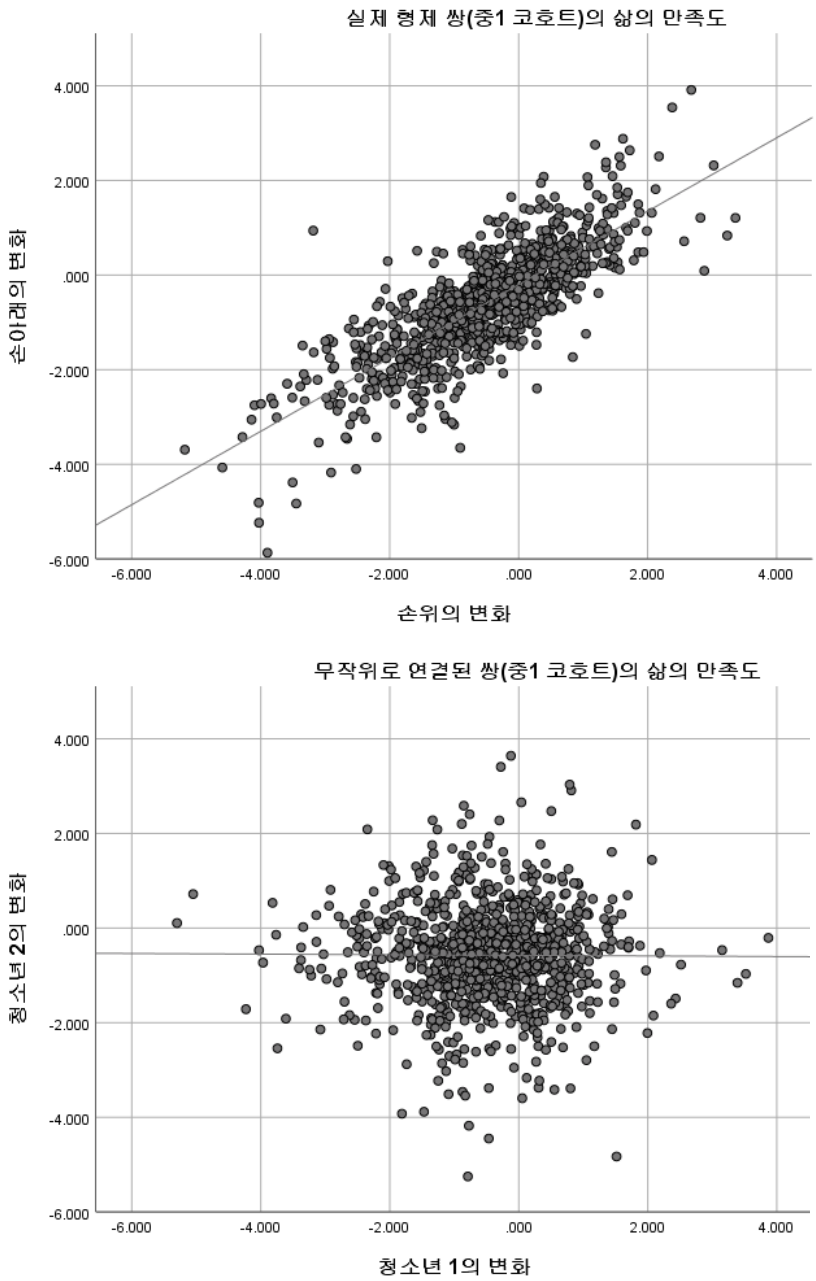
모수	개인 효과			
	손위 형제		손아래 형제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고정효과				
초기치	50.22***	.43	51.06***	.42
기울기	-.42**	.21	-.97***	.19
무선효과				
초기치의 분산	50.69***	5.22	44.03***	4.77
기울기의 분산	4.84***	1.20	4.41***	1.09
초기치와 기울기의 상관	-.51***		-.38***	
잔차 분산				
시점1	51.04***	5.07	56.49***	4.86
시점2	68.56***	4.30	60.82***	3.78
시점3	56.51***	4.04	58.22***	3.82
시점4	58.02***	5.85	50.93***	5.18

	쌍 효과(r)
손위 초기치 - 손아래 초기치	**.37***
손위 기울기 - 손아래 기울기	**.60***
손위 초기치 - 손아래 기울기	-.18**
손위 기울기 - 손아래 초기치	-.25**
$\chi^2(df)$	87.520(34)
CFI / TLI	.948 / .933
RMSEA	.041

*p<.05, **p<.01, ***p<.001



〈그림 3〉 초4 코호트의 손위, 손아래 형제 각각의 삶의 만족도의 예측된 변화량으로 산포도를 그리는 경우 높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상단), 같은 표본으로 형제 관계를 무시하고 무작위로 연결된 쌍을 지었을 때는 상관이 감소하였다(하단).



〈그림 4〉 중1 코호트에서도 초4 코호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각 형제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 간 상관이 높았지만(상단), 형제가 아닌 쌍으로 연결할 경우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하단).

3.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

두 번째 분석에서는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차이의 절댓값을 구한 뒤, 이 값을 변수로 삼아 잠재성장모형으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고, 추가로 나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손위, 손아래 형제의 연령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모두 초기치가 각각 9.19, 10.15로, 1표준편차 정도로 추정되었다(T점수의 표준편차는 10). 따라서 손위, 손아래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코호트 모두에서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p 〉 .05), 손위, 손아래의 삶의 만족도 간 차이는 적어도 4년간 늘거나 줄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전반에 걸쳐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는 일관되게 1표준편차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초기치의 분산이 초4 코호트는 7.03(p 〈 .01), 중1 코호트는 21.62(p 〈 .001)로 나타났다. 이는 형제간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중1 코호트에서 더 흩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손위, 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의 시간 동안 유의하게 줄거나 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손위-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 차이의 절댓값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 결과

모수	삶의 만족도(T점수) 차이의 절댓값 모형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고정효과				
초기치	9.19***	.43	10.15***	.41
기울기	-.21	.24	-.44	.23
무선효과				
초기치의 분산	7.03*	3.51	21.62***	3.74
기울기의 분산	1.11	1.08	1.79	1.04
초기치와 기울기의 상관	.47		-.39**	
잔차 분산				
시점1	41.72***	4.03	41.72***	4.03
시점2	58.58***	3.80	58.58***	3.80
시점3	50.07***	3.87	50.07***	3.87
시점4	43.01***	5.39	43.01***	5.39
$\chi^2(df)$	18.431(9)		18.210(9)	
CFI / TLI	.907 / .855		.947 / .917	
RMSEA	.037		.033	

*p〈.05, **p〈.01, ***p〈.001

4.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가 아닌 형제 사이 비교

마지막으로 형제의 삶의 만족도 간 차이의 절댓값에 대해 쌍둥이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쌍둥이의 사례 수가 적어 T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맨 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코호트의 모든 연도에서 쌍둥이와 그렇지 않은 형제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04 ≦ |Z| ≦ 1.80, 모든 경우에 p 〉 .05). 따라서 쌍둥이인 경우에도 형제의 삶의 만족도 간 차이가 보통의 형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쌍둥이인 형제와 쌍둥이가 아닌 형제의 삶의 만족도 차이의 평균과 집단 간 비교 (Mann-Whitney U 검증)

측정 연도	연도별 형제간 삶의 만족도 차이의 절댓값 초4 코호트						Z	p
	쌍둥이(2008년생)			쌍둥이가 아닌 형제				
	n	평균	평균 순위	n	평균	평균 순위		
2019	17	10.09	354.47	767	9.65	393.34	-0.70	.48
2020	13	6.26	276.77	595	8.38	305.11	-0.58	.56
2021	14	14.49	331.21	535	9.41	273.53	-1.34	.18
2022	14	8.23	244.07	476	9.04	245.54	-0.04	.97

측정 연도	중1 코호트						Z	p
	쌍둥이(2005년생)			쌍둥이가 아닌 형제				
	n	평균	평균 순위	n	평균	평균 순위		
2019	23	9.24	446.85	933	10.04	479.28	-0.56	.58
2020	16	6.46	249.69	655	10.19	338.11	-1.80	.07
2021	17	9.75	290.88	536	9.13	276.56	-0.36	.72
2022	14	8.81	201.68	391	8.76	203.05	-0.04	.97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과 이질성을 종단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 형제의 안녕감은 평균적으로 비슷하며, 한 해 한 해 변화하는 수준도 비슷하여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손위-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1표준편차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매우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즉,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청소년 형제는 닮았지만 같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형제간 관련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같은 해에 비슷한 사회적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거나 성별에 의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중1 코호트에서 기울기와 기울기 사이 상관이 크게 추정되었다는 점이다(r = .60, p 〈 .001). 초4 코호트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r = .30, p 〈 .01). 그렇다면 10대 초반보다 10대 후반일 때 형제의 삶의 만족도 간 유사성 수준이 더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하였듯 삶의 만족도의 궤적이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을 분석한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중1 코호트와 초4 코호트를 비교하기에 앞서 노년기 부부의 삶의 만족도 사이 유사성을 탐색한 연구 결과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로, 한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 사이 상관계수가 .85로(Hoppmann et al., 2011), 다른 한 연구에서는 .65로 나타나는 등(Wortman & Lucas, 2016) 그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해석할 때에는 얼마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애초에 노년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안정화 되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hodabakhsh, 2022).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삶의 만족도 사이 높은 상관이 나타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데이터의 특성(즉, 노년기는 매우 안정되어 변화가 적음)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의 폭이 Hoppmann외 (2011)이 추정한 노년기 성인의 추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게다가 초4 코호트의 손위 형제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기울기는 -1.29(p 〈 .001), 손아래 형제의 기울기는 -0.91(p 〈 .001), 중1 코호트 경우 손위, 손아래의 기울기가 각각 -.42(p 〈 .01), -.97(p 〈 .001)로 나타났는데,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중1 코호트의 손위 형제가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성인에 가까워지며 점차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4 코호트에 비해 중1 코호트에서 상관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여, 정말로 중1 코호트의 삶의 만족도 사이 형제간 유사성이 더 크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두 코호트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학령기 전반에 걸쳐, 형제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수준으로나 변화량으로나 작지 않은 상관이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환경과 같은 유동적인 변인이 청소년 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형제 사이 이질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형제의 삶의 만족도 사이 차이가 4년에 걸쳐 1표준편차만큼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로 형제가 아무리 닮았다 하여도, 독립된 개인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가 적어도 4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위, 손아래 형제의 삶의 만족도가 서로 얼마간 다르며, 그 차이가 몇 년 사이에 크게 줄거나 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둥이와 쌍둥이가 아닌 형제 사이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뜻밖이다. 쌍둥이 형제는 보통의 형제보다 유사성이 높으므로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도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으나, 적어도 본 분석에 의하면 쌍둥이가 아닌 형제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사례 수가 너무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잠재구인으로 설정하지 않고 하나의 평균치를 사용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측정 문항이 여러 개일 경우 잠재구인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모형의 간명함을 고려해 본 분석에서는 4문항의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단일 문항을 이용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추정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예, Hoppmann et al., 2011), 그리고 이렇게 추정한 것과 여러 문항으로 잠재구인을 설정한 모형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Diener et al., 2013),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에서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에는 형제간 유사성과 이질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결과 변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클 경우, 혹은 부부 사이 안녕감에서 차이가 클 경우,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삶의 만족도에서도 형제간 유사성과 이질성에 따른 이점이나 문제점은 없을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선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서 형제간 유사성이 크다는 것은 가정 환경 등 공유된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도 있지만, 매일 매일 일어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형제 내 상호작용 등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비록 본 연구에서 유전과 환경 그리고 형제 내 상호작용의 영향을 완전히 분리하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적어도 환경의 변화와 형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고양하고자 할 때,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다희, 최진아 (201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관계의 질,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8**, 25-44.

김민재, 심미경, 김수영. (2022). 구분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방정식 APIM 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61**(3), 205-229.

설경옥, 김유나 (2018).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91-110.

이국희, 최종안, 이현응, 홍영일, 최인철 (2020). 행복수업이 중학생의 행복증진에 미치는 효과: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1), 75-104.

이빈, 우정민, 황선영, 이선영 (20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안녕감 및 학업열의 간 종단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37**(1), 29-54.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 의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1-47.

정윤화, 봉초운, 홍세희 (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 181-210.

표준국어대사전 (nd). 국립국어원. 2023년 9월 14일 검색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3), 195-220.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Anderson, C., Keltner, D., & John, O. P. (2003). Emotional convergence between peopl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54.

Arbuckle, J. L., Marcoulides, G. A., & Schumacker, R. E.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243*, 277.

Anderson, C., Keltner, D., & John, O. P. (2003). Emotional convergence between peopl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54.

Arbuckle, J. L., Marcoulides, G. A., & Schumacker, R. E.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243, 277.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Daly, M. (2022). Cross-na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for a rapid decline in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94*(3), 422-434.

Daniels, D., & Plomin, R. (1985). Differential Experience of Siblings in the Sam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747-760. https://doi.org/10.1037/0012-1649.21.5.747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https://doi.org/10.1007/BF01207052

Diener, E., Emmons, R., Larsen,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mt*, *49*(1),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Diener, E., Inglehart, R., & Tay, L. (2013). Theory and validity of life satisfaction scal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 497-527.

Galambos, N. L., Fang, S., Krahn, H. J., Johnson, M. D., & Lachman, M. E. (2015). Up, not down: The age curve in happiness from early adulthood to midlife in two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1*(11), 1664.

Gerstorf, D., Windsor, T. D., Hoppmann, C. A., & Butterworth, P. (2013). Longitudinal change in spousal similarities in mental health: Between-couple and within-couple perspectives. *Psychology and Aging*, *28*(2), 540-554. https://doi.org/10.1037/a0032902

Hoppmann, C. A., Gerstorf, D., Willis, S. L., & Schaie, K. W. (2011a). *Spousal Interrelations in Happiness in the Seattle Longitudinal Study : Considerable Similarities in Levels and Change Over Time*. *47*(1), 1-8. https://doi.org/10.1037/a0020788

Hoppmann, C. A., Gerstorf, D., Willis, S. L., & Schaie, K. W. (2011b). Spousal Interrelations in Happiness in the Seattle Longitudinal Study: Considerable

Similarities in Levels and Change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47*(1), 1-8. https://doi.org/10.1037/a0020788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Jensen, A. C., Whiteman, S. D., & Fingerman, K. L. (2018). "Can't live with or without them:" Transitions and young adults'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2*(3), 385.

Kenny, D. A., & Zautra, A. (1995). The Trait-State-Error Model for Multiwave Dat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1), 52-59. https://doi.org/10.1037/0022-006X.63.1.52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C.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https://doi.org/10.1037/0022-3514.82.6.1007

Kowal, A. K., Krull, J. L., & Krumer, L. (2006). Shared understanding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in families. *Social Development*, *15*(2), 276-295.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6.00341.x

Kowal, A., & Kramer, L. (1997). Children's understanding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Child Development*, *68*(1), 113-126.

Kowal, A., Kramer, L., Krull, J. L., & Crick, N. R. (2002).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parental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eir socio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3), 297-306. https://doi.org/10.1037/0893-3200.16.3.297

Lucas, R. E., & Donnellan, M. B. (2007). How stable is happiness? Using the STARTS model to estimate the stabi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5), 1091-1098.

Lykken, D., & Tellegen, A. (1996).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7*(3), 186-189. https://doi.org/10.1111/j.1467-9280.1996.tb00355.x

McArdle, J. J. (1988). Dynamic bu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repeated measures data. In *Handbook of multivariate experimental psychology*(pp. 561-614). Springer.

Neale, M., & Cardon, L. R. (2013). *Methodology for genetic studies of twins and families*(Vol. 67).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Galambos, N. L., Fang, S., Krahn, H. J., Johnson, M. D., & Lachman, M. E. (2015). Up, not down: The age curve in happiness from early adulthood to midlife in two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1*(11), 1664.

Plomin, R., & Daniels, D. (2011). Why are children in the same family so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0*(3), 563-582.

Pollard, E. L., & Lee, P. D. (2003).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 59-78.

Röcke, C., & Lachman, M. E. (2008). Perceived trajectories of life satisfaction across past, present, and future: profiles and correlates of subjective change in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Psychology and aging*, *23*(4), 833.

Schade, H. M., Hülür, G., Infurna, F. J., Hoppmann, C. A., & Gerstorf, D. (2016). Partner dissimilarity in life satisfaction: Stability and change, correlates, and outcomes. *Psychology and Aging*, *31*(4), 327-339. https://doi.org/10.1037/pag0000096

Schimmack, U., & Lucas, R. E. (2010). Environmental influences on well-being: A dyadic latent panel analysis of spousal similar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8*(1), 1-21. https://doi.org/10.1007/s11205-009-9516-8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83-110.

Wortman, J., & Lucas, R. E. (2016a). Spousal similarity in life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4), 625-633. https://doi.org/10.1037/pspp0000065

Wortman, J., & Lucas, R. E. (2016b). *Spousal Similarity in Life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Divorce*. *110*(4), 625-633.

Session
3

11주제 I

부모/양육 B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이은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에 주목하여 생물생태학적 체계이론의 PPCT모델 및 교류모델의 이론적 틀에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의 1차년도(중1), 2차년도(중2), 3차년도(중3)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도 청소년의 수면의 질은 청소년의 우울을, 청소년의 우울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각각 청소년의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우울의 초기값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모형에서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에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도 각 변인 간의 초기값 수준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개인의 정서 문제를 통해 가족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우울을 예측하는 안정적인 지표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개선 방안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주제어 : 수면의 질, 우울, 삶의 만족도, KCYPS 2018,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잠재성장모형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Ⅰ. 서론

청소년의 수면은 뇌 가소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archiapone et al., 2014). 일반적으로 인간의 수면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수면과 각성을 반복하는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과 오랫동안 깨어있으면 수면 욕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수면 항상성(homeostasis)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지는데, 청소년기는 이러한 두 체계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보고되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Carskadon & Dement, 2005). 청소년기는 수면-각성 체계에서 일주기 리듬의 지연이 나타나 흔히 늦게 잠이 들고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항상성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깨어있더라도 수면 압력이 느리게 축적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면증이나 야간 각성 횟수의 증가, 과도한 주간 졸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수면 습관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Crowley, Acebo, & Carskadon, 2007). 동시에 환경적 측면에서도 전자 매체 사용의 증가와 막대한 학업량 및 학업 스트레스와 같이 청소년의 수면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박이슬, 김선미, 김영희, 2022; Lemola, Perkinson-Gloor, Brand, Dewald-Kaufmann, & Grob, 2015).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된 수면 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변화가 어렵고, 만성화 되어 성인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Dregan & Armstrong, 2010).

한편, 우울은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히 호소되는 정신건강 문제이다(Thapar, Collishaw, Pine, & Thapar, 2012).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남자 청소년의 24.2%, 여자 청소년의 33.5%가 우울을 경험했으며, 우울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교육부, 질병관리청, 2023). 청소년기의 우울은 아동 및 성인과는 구분되는 양상으로 표현되는데, 성마름이나 분노 감정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주의집중의 어려움, 두통, 피로와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등 다소 은폐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손지아, 김선희, 2017; Desha, Nicholson, & Ziviani, 2011) 우울의 진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면은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강조된다(Goldstone et al., 2020). 수면 문제는 뇌의 정서와 관련된 중간 전전두엽 피질(mPFC)과 편도체 및 해마의 기능 손상으로 이어져 감정 조절이나 충동 억제에 어려움을 보이며, 우울과 같은 정신 장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Kreutzmann, Havekes, Abel, & Meerlo, 2015; Lapidaire et al., 2021). 특히 수면의 질은 수면의 객관적 측면을 보여주는 수면 시간과 달리, 자신의 수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서 상태와 더 깊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은혜, 이소연, 2017; Krystal & Edinger 2008). 또한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반면(박이슬 외, 2022; 윤현정, 2020; 정은혜, 이소연, 2017; 최홍일, 정현주, 2023), 다수의 국외 연구들은 수면의 깊이나 패턴, 효율성과 같은 청소년이 인식한 수면의 질이 수면 시간보다 정서 문제에 더욱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Peltz, Rogge, & O'Connor, 2019; Shanahan et al., 2014; Yip, 2015),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수면의 질과 정서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외 연구 중 소수의 연구들은 수면의 질과 우울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 발달한다는 양방향적 관계도 보고하고 있어(Kouros et al., 2022; Lovato & Gradisar, 2014), 종단적 관점에서 어떠한 요인이 선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아동 요인이 부모의 온정성, 반응성과 같은 양육태도나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동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수정, 정익중, 2016; Kerr & Stattin, 2003). 국내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행복과 불행은 가정의 화목이나 부모-자녀 갈등과 같이 가족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또한 국내 중학생과 그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자녀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과 관련된 변인만이 주요 예측 변인으로 보고된 것과 달리,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는 자녀와 관련된 요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박소영, 정혜원, 2021), 아동 요인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국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수면 문제나 우울은 부모와의 갈등 또는 가족 기능의 문제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된다(Bell & Belsky, 2008; Michael, Torres, Seemann, 2007). 이는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자녀의 수면 문제나 우울이 가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 내 상호교류 과정을 통해 부모의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Powdthavee & Vignoles, 2008). 그러나 청소년기의 낮은 수면의 질이나 우울이 비교적 많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같은 가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며(조성희, 박소영, 2015; Dew & Huebner, 1994),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박서영, 박성연, 2007; Berger & Spiess, 2011), 청소년의 수면의 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부모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경우, 지지적인 가족 관계를 통해 자녀

의 수면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Fuligni, Tsai, Krull, & Gonzales, 2015). 또한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하규, 민영, 2020; Berger & Spiess,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 및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조사하여 인과적 방향성을 살펴보고, 청소년과 부모 변인의 관계에서 자녀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수면의 질,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청소년의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틀

본 연구는 생물생태학적 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 2005)과 교류 모델(Sameroff, 2009)을 근간으로 한다. 두 이론은 개인의 생물심리사회적 특성은 개인을 둘러싼 생태 환경과 지속적인 양방향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Bronfenbrenner(2005)는 기존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개인-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더욱 강조하면서 생물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정립하였다. 해당 이론에서 개인의 발달은 PPCT(Process-Person-Context-Time)모델을 통해 설명되며, 개인과 가장 밀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하는 근접 과정(proximal process)은 발달을 주도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근접 과정의 개념은 개인의 특성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발달의 결과 또는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수면의 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정환경 요인인 부모의 삶의 만족도 역시 청소년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PPCT 모델의 첫 번째 요소인 개인의 특성(Person)은 능력, 지식과 같이 발달을 활성화하는 자원 특성과 유전적 결함, 기능 장애와 같은 파괴적 특성을 모두 포

함한다. 또한 개인의 특성이 근접 과정의 선행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여, 두 명 이상의 사람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그 과정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도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선행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이 결과 요인으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맥락(Context)은 개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및 거시체계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 중 가정환경과 같은 미시체계(Microsystem)는 근접 과정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근접 과정의 효과는 강한 정서적 관계가 있을 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Bronfenbrenner & Evans, 2000; Bronfenbrenner & Morris, 2006), 청소년의 발달을 살펴봄에 있어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간(Time)은 생물생태학적 이론 이전의 연대체계(Chronosystem)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와 중대한 사건과 같은 역사적 시간과, 사춘기의 진입이나 질병과 같은 개인의 유전학적 시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청소년기가 유전학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중요하며, 수면의 질 및 우울과 관련하여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더불어, 교류 모델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이 환경에 따른 결과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 생물생태학적 이론의 상호성의 개념과 연결된다. 또한, 교류 모델에서 나아가 교류적 가족 역학의 관점에서는(Peltz & Rogge, 2022; Schermerhorn & Cummings, 2008), 개별 가족 구성원이 부모 간 관계와 같은 가족 내 관계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변인 간의 관계

1)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뇌 발달과 그로 인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Baglioni, Spiegelhalder, Lombardo, & Riemann, 2010). 구체적으로, 급속안구운동(Rapid Eye Movement, 이하 REM) 수면 과정은 아드레날린이 억제되고 편도체와 해마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결합되면서, 정서적 경험을 재처리하고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Van

Der Helm et al., 2011). 그러나 청소년기는 뇌 조직의 재구성이 일어나면서, REM 수면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서 조절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와 뇌 영역 간의 연결 문제로 이어져 불안과 우울 같은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Anastasiades, De Vivo, Bellesi, & Jones, 2022; Dahl, 1996). 이와 함께,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모두가 우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성적인 수면 문제가 세로토닌 분비와 관련된 유전적 취약성(5-HTTLPR S' 유전자형)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Carskadon, Sharkey, Knopik, & McGeary, 2012; Vanderlind et al., 2014), 수면의 질이 유전적 요인과 결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국내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 미국, 호주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된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낮은 수면의 질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높이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윤현정, 2020; Lee, Kim, Jeon, Kim, & Park, 2022; Shen, Van Schie, Ditchburn, Brook & Bei, 2018; Supartini et al., 2016; Xue et al., 2022), 수면 치료와 중재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urke et al., 2022; Yip, 2015).

한편, 주요 우울 장애를 진단하는 데 수면 문제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반대로 청소년의 우울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전에 걱정과 반추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수면 전 각성을 높이게 되어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Yeh, Wung, & Lin, 2015). 또한 다수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의 양방향적 관계를 보고한다. 수면 일기나 액티그래피(Actigraphy)를 사용하여 매일의 기분과 수면의 질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낮 동안의 부정적인 기분이 그날 밤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되며, 전날 밤 낮은 수면의 질은 다음 날 긍정적인 기분의 수준을 낮추는 양방향성이 나타났다(Kouros et al., 2022; van der Helm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큰 틀에서 가족 체계의 관점에 근거하며(Cox & Paley, 1997), 구체적으로는 가족 내 정서적 전달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Westman & Vinokur, 1998).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삶의 만족도나 심리적 고통과 같은 정서가 3단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전달된다고 설명한다. 먼저 (a)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b) 구성원 간의 정서적 차원에서의 공감 반응을 통해 스트레스 또는 긴장이 직접 전달되며, (c) 행동적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정서적 전달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의 우울, 심리적 고통과 같은 정서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주로 설명하였으나(Almeida et al., 1999; Larson & Gillman, 1999), 청소년기의 경우 아동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보고되고 있다. 1,175명의 영국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나 심리적 고통이 1년 후 아버지의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Powdthavee & Vignoles, 2008), 국내 연구에서도 청소년 자녀의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승희, 전현정, 이정민, 정혜원, 2019).

더불어 긍정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긍정성이 가족 체계에 전달되는 과정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로 이어져 자녀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Berger & Spiess, 2011). 또한 생애 과정의 관점에서(Elder, 1985),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세대에 걸친 정신적 유산으로 자녀의 우울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숙, 정정호, 2016; 장정수, 양지웅, 2023; Lin, & Yi, 2019).

한편, 우울에 대한 환경 이론들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의 순환 과정을 제시한다. 스트레스 생성 이론(Hammen, 1991)과 가족 체계와 우울에 대한 대인관계 이론(Joiner & Coyne, 1999)은 우울한 개인이 친구나 부모, 교사 등 대인관계 상황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주변의 지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더욱 우울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여(Branje, Hale, Frijns, & Meeus, 2010),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요인 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가족 체계 이론과 가족 역학의 틀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Minuchin, 1985; Schermerhorn & Cummings, 2008), 가족 건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국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불규칙한 수면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모들은 반항이나 게으름과 같은 태도의 문제로 오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족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

니라 부모의 절망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다(Díaz Morales, Escribano, Puig-Navarro, & Jankowski, 2023; Montie et al., 2019). 또한, 일주일간 매일 일기를 통해 청소년 및 부모의 수면의 질과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Peltz & Rogge, 2022), 청소년이 높은 수면의 질을 보고한 날 저녁의 부모의 심리적 고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가족 체계 내에서 청소년 자녀의 수면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수면에 대한 반대 과정 이론(opponent-process theory on sleep; Dahl, 1996)은 수면의 생물학적 행동의 관점에서 수면과 각성의 반대 과정을 강조한다. 이는 뇌가 주변 환경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경우, 각성 수준을 높여 수면의 시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안전한 수면 환경으로서 가족의 역할에 주목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돼 있거나,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지지적인 가족 환경은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Brand, Hatzinger, Beck, & Holsboer-Trachsler, 2009; Rojo-Wissar et al., 2020). 이를 통해,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인 가족 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전한 수면 환경으로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면 문제와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간의 상호 관계가 나타나(Bell & Belsky, 2008),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양방향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4)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먼저, 수면 장애를 보이는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Chardon et al., 2018). 연구 결과, 청소년의 내재화 증상과 수면 장애와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수면 장애를 보일수록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증상과 부모의 심리적 고통 간의 정적 관계가 증가함을 보여, 청소년의 수면 문제가 우울과 부모 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의 양과 질이 부정 정서를 통해 대인일탈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남기은, 이선희, 지옥영, 2018). 수면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 정서와 같은 심리적 기제가 존재하며, 수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부모의 감독과 같은 양육 태도를 매개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수정, 정익중, 2016), 수면 문제가 개인의 발달 및 적응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하지만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각각의 변화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청소년 우울의 매개효과가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초기 청소년기는 성인과 비슷한 수면 체계를 보이는 후기 청소년기에 비해 수면-각성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Crowley, Wolfson, Tarokh, & Carskadon, 2018), 부모-자녀 간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가변성 및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Granic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제1~3차(2018~2020년)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총 조사대상수는 2,591명이었으나, 제1~3차까지 조사에 모두 응한 학생은 2,325명이었으며,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모가 응답한 경우만을 포함하여 최종 2,288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1,222명(53.4%), 여학생은 1,066명(46.6%)이었다.

2. 연구 도구

1) 청소년의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의 제1~3차년도 중1패널 설문에서 수면의 질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질문한 문항을 각각 하나의 관측변인으로 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응답은 "1=매우 못 잔다" ~ "4=매우 잘 잔다"의 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제1~3차의 시점별로 .777, .793, .791 이었다.

2)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의 제1~3차년도 중1패널 설문에서 우울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김광일 등(1984)이 개발하고,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 문항을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문항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의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 문항에 대한 하위변인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 방식을 사용하여 3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제1~3차년도의 시점별로 .921, .916, .915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의 제1~3차년도 중1패널의 보호자 설문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의 번안문항으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등의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제1~3차년도의 시점별로 .854, .824, .818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변화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청소년 우울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인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과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각 변인의 기초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분석은 SPSS 26.0(IBM Co., Armonk, NY)과 AMOS 22.0(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였으며, 모수치의 추정방법으로 결측치 처리를 위해 FIML(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TLI, CFI, RMSEA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홍세희, 2000). χ2는 표본 수에 민감하여 쉽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며,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고,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5와 .08 사이는 적절한 적합도, .1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로 해석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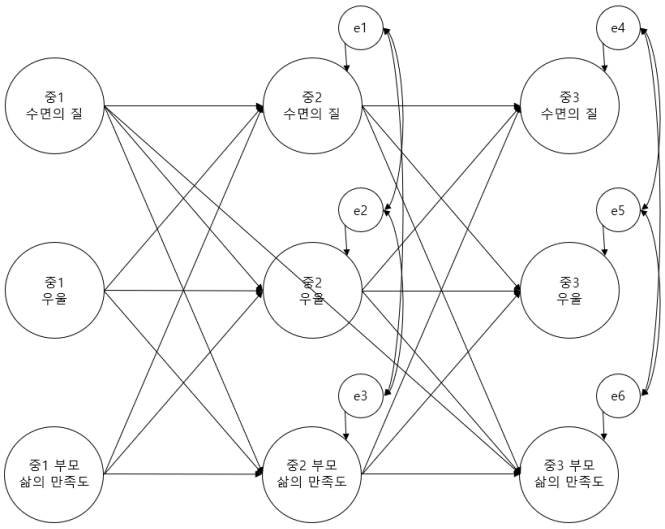


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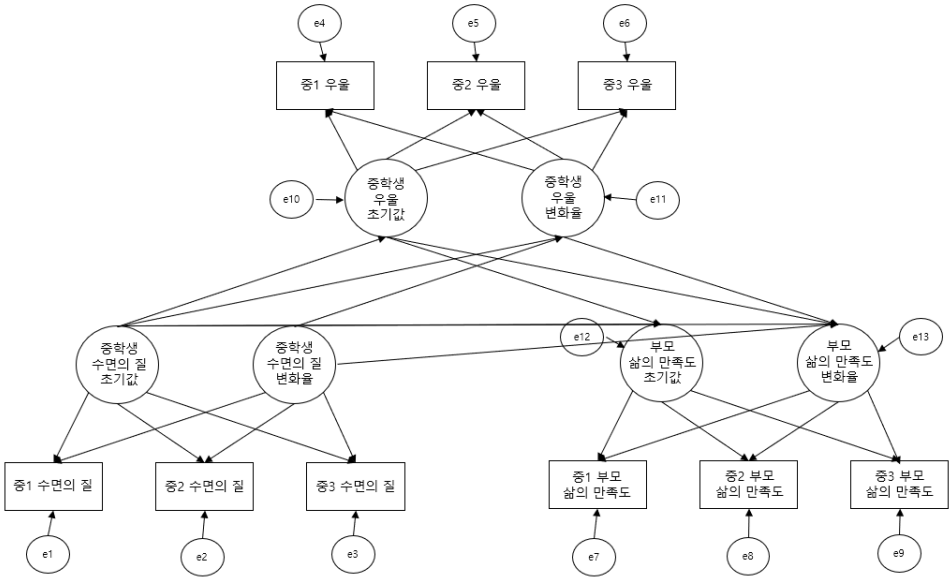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 모형

Ⅳ. 연구결과

1. 예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모두 중1 시점에서 중2 시점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2 시점에서 중3 시점이 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변인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큰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자료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1. 연구 변인 간의 상관 계수와 기술통계치

	변인	1차년도(중1)			2차년도(중2)			3차년도(중3)		
		1	2	3	4	5	6	7	8	9
1차년도	1. 청소년 수면의 질									
	2. 청소년 우울	-.268**								
	3. 부모 삶의 만족	.005	-.100**							
2차년도	4. 청소년 수면의 질	.285**	-.126**	.015						
	5. 청소년 우울	-.191**	.367**	-.071**	-.260**					
	6. 부모 삶의 만족	.068**	-.132**	.455**	.065**	-.103**				
3차년도	7. 청소년 수면의 질	.247**	-.113**	.065**	.278**	-.173**	.102**			
	8. 청소년 우울	-.149**	.328**	-.085**	-.165**	.446**	-.132**	-.253**		
	9. 부모 삶의 만족	.037	-.088**	.397**	.047*	-.104**	.431**	.072**	-.150**	
	평균	3.273	18.007	13.072	3.226	17.618	13.023	3.228	17.933	13.054
	표준편차	.582	6.359	2.585	.565	6.037	2.442	.560	6.058	2.395
	왜도	-.487	.598	-.182	-.336	.549	-.262	-.285	.677	-.273
	첨도	.310	-.012	.476	.290	-.318	.738	.225	.256	.522

*p< .05, **p< .001 ***p< .001

연구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3개 조사 시점의 측정치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각각 안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시점에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s = -.268~-.113, p < .01),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서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s = -.150~-.071, p < .01). 즉,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1차년도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1차년도 및 3차년도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 2차년도의 수면의 질과 1차년도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외 시점에서는 변인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rs= .047~.102, p<.05) 시점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2.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수면의 질,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인 연구 변인의 안정성과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경로동일성(path coefficient invariance), 오차공분산 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이 확립되어야 하기에(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림 1과 같은 순차적 연구모형(모형1~모형16)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에 순차적으로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2~모형4), 경로동일성 제약(모형5~모형7),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모형8~모형13)과 오차공분산 제약(모형14~모형16)을 설정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차이는 ΔCFI 값이 .010을 초과하여 작아지지 않았고(Cheung & Rensvold, 2002), ΔRMSEA의 값이 .015를 초과하여 커지지 않았기에(Chen, 2007) 동일성 모형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16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그림 3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변인인 청소년의 수면의 질,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99~.483, p< .001). 이는 연구 변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며,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이후 시점의 각 변인을 예측함을 의미한다.

표 2. 청소년의 수면의 질,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 2$	df	CFI	RMSEA(90%CI)	$\triangle\chi 2$	$\triangle df$	△CFI	△RMSEA
모형1	946.065***	349	0.982	0.027(.025-.029)				
모형2	948.409***	351	0.982	0.027(.025-.029)	2.344	2	0.000	0.000
모형3	1029.234***	355	0.980	0.029(.027-.031)	80.825	4	-0.002	0.002
모형4	1044.576***	363	0.979	0.029(.027-.031)	15.342	8	-0.001	0.000
모형5	1045.095***	364	0.979	0.029(.027-.031)	0.519	1	0.000	0.000
모형6	1063.833***	365	0.979	0.029(.027-.031)	18.738	1	0.000	0.000
모형7	1064.540***	366	0.979	0.029(.027-.031)	0.707	1	0.000	0.000
모형8	1064.586***	367	0.979	0.029(.027-.031)	0.046	1	0.000	0.000
모형9	1065.762***	368	0.979	0.029(.027-.031)	1.176	1	0.000	0.000
모형10	1069.143***	369	0.979	0.029(.027-.031)	3.381	1	0.000	0.000
모형11	1071.956***	370	0.979	0.029(.027-.031)	2.813	1	0.000	0.000
모형12	1079.176***	371	0.979	0.029(.027-.031)	7.220	1	0.000	0.000
모형13	1083.575***	372	0.978	0.029(.027-.031)	4.399	1	-0.001	0.000
모형14	1085.419***	373	0.978	0.029(.027-.031)	1.844	1	0.000	0.000
모형15	1085.970***	374	0.978	0.029(.027-.031)	0.551	1	0.000	0.000
모형16	1087.576***	375	0.978	0.029(.027-.031)	1.606	1	0.000	0.000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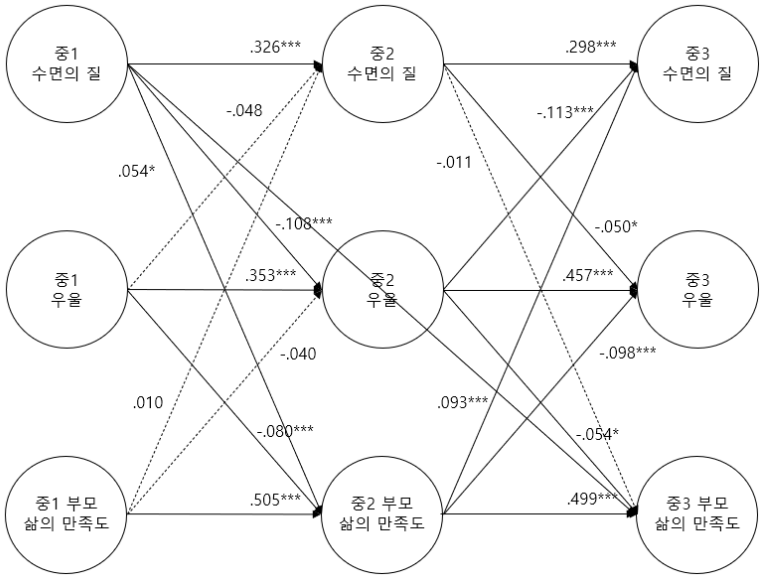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은 이후 시점의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중2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β=-.108, p< .001),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중3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부적 영향(β=-.050, p< .05)에는 유의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중1 청소년의 우울이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β=-.080, p< .001), 중2 청소년의 우울이 중3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β=-.010, p< .05)에는 유의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청소년의 우울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은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β=.054, p< .05),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중2 청소년의 우울이 중3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β=-.027, p< .001), 중1 청소년

의 우울이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중3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093, p< .001), 중3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β=-.530, p< .001), 중1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계수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	.304***	.029	.326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중3 청소년의 수면의 질	.299***	.029	.298
중1 청소년의 우울 → 중2 청소년의 우울	.325***	.022	.353
중2 청소년의 우울 → 중3 청소년의 우울	.448***	.022	.457
중1 부모의 삶의 만족도 →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	.440***	.023	.505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 → 중3 부모의 삶의 만족도	.483***	.026	.499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중2 청소년의 우울	-.421***	.095	-.108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중3 청소년의 우울	-.203*	.094	-.050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	.039*	.017	.054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중3 부모의 삶의 만족도	-.008	.018	-.011
중1 청소년의 우울 →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	-.010	.006	-.048
중2 청소년의 우울 → 중3 청소년의 수면의 질	-.027***	.006	-.113
중1 청소년의 우울 →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	-.013***	.004	-.080
중2 청소년의 우울 → 중3 부모의 삶의 만족도	-.010*	.004	-.054
중1 부모의 삶의 만족도 → 중2 청소년의 수면의 질	.011	.027	.010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 → 중3 청소년의 수면의 질	.122***	.032	.093
중1 부모의 삶의 만족도 → 중2 청소년의 우울	-.191	.105	-.040
중2 부모의 삶의 만족도 → 중3 청소년의 우울	-.530***	.116	-.098

*p< .05, ***p< .001



*p< .05, ***p< .001

그림 3.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경로도

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율을 매개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연구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발달 궤적을 보이는지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의 잠재성장 모형을 검증하였다(홍세희, 2015). 모형 경쟁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변인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에서 전반적으로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므로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형 변화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4. 청소년의 수면의 질,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변수 구분		$\chi 2$	df	TLI	CFI	RMSEA
청소년의 수면의 질	무변화	15.622**	4	.981	.974	.036
	선형변화	3.915*	1	.981	.994	.036
청소년의 우울	무변화	26.300***	4	.982	.976	.049
	선형변화	8.945**	1	.974	.991	.059
부모의 삶의 만족도	무변화	11.187*	4	.995	.994	.028
	선형변화	.974	1	.981	1.001	1.000

*p< .05, ***p< .001

선형 모형에서 얻어진 청소년의 수면의 질, 청소년의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값은 표 5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청소년의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의 초기값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평균의 변화율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났으므로, 세 시점 사이에서 선형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평균 초기값은 3.215(p<-.001)이고, 평균 변화율은 -.022(p<-.01)이므로 중1 청소년이 지각하는 수면의 질의 평균 추정치는 3.215이며, 매년 -.022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청소년의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분산의 초기값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개인 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변화율에서도 유의한 값을 보여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공분산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서만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에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부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초기에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부모는 변화율이 가파르게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5. 청소년의 수면의 질, 청소년의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발달 궤적 추정치

변수 구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공분산(표준오차)
청소년의 수면의 질	초기값	3.215***(.011)	.106***(.014)	-.031(.008)
	변화율	-.022**(.007)	.010(.007)	
청소년의 우울	초기값	3.215***(.011)	.106***(.014)	-1.414(.848)
	변화율	-.014(.075)	2.515***(.739)	
부모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	13.058***(.052)	3.284***(.248)	-.414**(.140)
	변화율	-.008(.029)	.239*(.116)	

*p< .05, **p< .01, ***p< .001

청소년의 수면의 질, 청소년의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발달 궤적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이 선형 변화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 변인 간의 관련성과 각 연구 변인의 변화에 따른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연구 모형(그림 2)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6과 같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연구 모형	$x2$	df	TLI	CFI	RMSEA
	97.478***	24	.963	.976	.037

***p< .001

이 연구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은 청소년의 우울의 초기값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4, p< .001). 또한, 청소년의 우울의 초기값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8, p< .001). 즉,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낮게 나타나며,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변화율은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43, p< .001). 이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율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이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우울의 초기값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청소년의 우울 초기값	-6.741***	.594	-.611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청소년의 우울 변화율	-8.825***	1.977	-.852
청소년의 수면의 질 초기값 → 청소년의 우울 변화율	-.502	.495	-.114
청소년의 우울 → 부모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	-.113***	.017	-.249
청소년의 우울 → 부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	-.184	.027	-.634
청소년의 우울 초기값 → 부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	.011	.009	.098
청소년의 수면의 질 → 부모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	-.309	.027	-.062
청소년의 수면의 질 → 부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	-.970		-.322
청소년의 수면의 질 초기값 → 부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	.215	.009	.167

***p< .001

4.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 결과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에서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에서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붓스트랩 방법(1000번 반복 시행)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종단적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매개효과 추정 결과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 → 중2 청소년의 우울 → 중3 부모의 삶의 만족도	.020**	.010	.002 ~ .042

**p< .0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도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붓스트랩 방법(1000번 반복 시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치 간의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치가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치가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변화율을 중심으로 한 종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매개효과 추정 결과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 초기치 → 중2 청소년의 우울 초기치 → 중3 부모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	.632**	.129	.386 ~ .908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 변화율 → 중2 청소년의 우울 변화율 → 중3 부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	.819	.409	.223 ~ 1.778

**p< .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에 주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첫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면 이후 시점의 상태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경우, 청소년의 수면과 약물 사용 간의 종단적 양방향 관계를 살펴본 국외 연구에서 수면 시간 뿐만 아니라 수면 패턴이 두 시점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Pasch, Latimer, Cance, Moe, & Lytle, 2012). 국내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3개월 단기 종단 연구에서 수면의 질의 지속성이 나타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나(곽진영, 2017),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수면의 질의 안정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우울의 경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울의 안정적인 특성을 보고한 것(김경호, 2019; 홍태화, 황순택, 2015)과 일치한다. 더불어, 30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현재의 삶의 만족이 미래의 삶의 만족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와(Yang, 2008),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종단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임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과도 일관된 결과이다(김용회, 한창근, 2017; 허영주, 2019).

둘째,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청소년의 우울은 낮아지고,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다음 시점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우울이 다음 시점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전 시점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다음 시점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중1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은 중2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중2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은 중3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중1의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중2의 청소년의 수면에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중2의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중3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연구 변인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탐색한 결과,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수면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인과적 방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나, 연구 변인 간의 선행 요인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경로를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 변인 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수면의 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수면 문제와 우울증의 상호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초기 수면 문제가 이후의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았던 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다(Lovato & Gradisar, 2014). 또한 수면과 우울의 관계는 복잡하고 일부 결과들은 여전히 양방향

의 관계를 지지하지만(Kahn, Sheppes, & Sadeh, 2013),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과 학교와 같은 미시체계 내에서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수면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여 이러한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건강 정책인 'Healthy People 2030'의 목표로 수면 건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면과 수면 장애의 치료를 건강과 생산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강조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0).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수면을 위한 프로젝트(NHSAP, National Healthy Sleep Awareness Project)를 통해 일상에서 수면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 및 보급하여,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전 연령에서 수면과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면 건강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우울을 예측하는 원인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감정 조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O'Leary, Bylsma, & Rottenberg, 2017; Van Der Helm et al., 2011; Walker & Van Der Helm, 2009), 추후 연구 설계에서는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감정 조절의 매개 경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명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일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녀 요인이 부모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동 효과가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과 부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또래관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김소연, 정익중, 김재연, 2023), 청소년의 우울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가 우울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의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높여 죄책감,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불러온다는 국외 연구 결과와(Moses, 2010; Stapley, Midgley, & Target, 2016),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보고하는 행복의 조건 중 자녀의 성장과 건강 등의 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내 연구 결과와도(김의철 외, 2012)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은(문수정, 백지숙, 2016;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일관적으로 또래애착이 부모애착보다 청소년의 우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의 요인들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자율성 및 독립성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통해(Branje, 2018),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일관적인 경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청소년의 수면과 부모의 심리적 고통감 또는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부모 수면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Kalak et al., 2012; Peltz, & Rogge, 2022). 이러한 결과들은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의 수면 문제의 경우 부모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과는 달리(Kouros & El-Sheikh, 2017; Varma, Conduit, Junge, & Jackson, 2020), 청소년기에서는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경로보다는 매개요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나타났음을 보고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수면 문제가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한 연구에서(Montie et al., 2019), 자녀의 수면 문제가 학교 결석이나 낮은 성적, 건망증이나 부주의함과 같은 문제로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어,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부모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결과를 논의하면 첫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각각 청소년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개인 내적으로도 초기시점인 중1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중1 청소년의 우울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더 크게 향상될수록 우울이 더 크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수면 장애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독립적으로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국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Raudsepp, 2019). 또한 청소년의 수면 문제가 인지 기능과 정서적 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하여 더 높은 우울 증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이해해 볼 수 있다(Berger, Wahlstrom, & Widome, 2019).

둘째, 청소년의 우울의 초기값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기값과 변화율 또는 변화율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중1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중1 시점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자녀 우울의 초기값이나 변화 궤적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중년기 성인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궤적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이현엽, 현승주, 최윤영, 강성록, 2023), 연령의 증가에 따른 5가지 삶의 만족도 지표들(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변화 궤적 중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함께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경제상태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며,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일정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한다. 이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다양한 영역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의 초기값은 유의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며 청소년 우울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변화율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수면의 질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본 연구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비일관적이었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문제 3을 통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도 각 변인 간의 초기값 수준에서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나 연구 변인 간의 구체적인 경로가 드러났다. 즉,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청소년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이 부정적인 정서 및 자기 통제, 공감 능력과 같은 다양한 매개 요인을 통해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남기은 외, 2018; Christian & Ellis, 2011; Gordon & Chen, 2014). 또한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우울을 관찰하고 중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귀인하는지에 따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귀인 이론에 근거해 볼 때(Kelley & Michela, 1980),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자녀의 어려움에 적극적인 개입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대규모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 기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이 포함되었는데, 코로나19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Kourti et al., 2021; Janssens et al., 2021), 연구 변인 간의 관계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의 청소년기 전반의 종단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을 함께 고려하거나, 아동기

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초기 청소년기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전후에 따라 연구 변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가 각각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에서, 청소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가 1년 후 아버지의 정신건강에만 영향을 미쳤으며(Powdthavee & Vignoles, 2008),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를 구분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 문항의 특성상,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대한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수면의 질은 수면의 좋고 나쁜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Buysse, Reynolds, Monk, Berman, & Kupfer, 1989), 누웠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잠에 들거나, 야간 수면 시의 각성 횟수가 적고, 자는 도중 뒤척임이 적은 것 등 다양한 행동을 포함하여 살펴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을 세분화하여 연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청소년의 수면의 질을 개인의 발달 측면에서만 고려하거나, 관련된 요인과의 관계에서 단방향적 경로에 주목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개인의 정서 문제를 통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종단적 관점에서 연구 변인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함께 분석하여 엄밀하고 정확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구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추후 청소년 상담이나 부모교육의 현장에서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생물학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을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복지의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우울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족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질병관리청. (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곽진영. (2017). **여대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 및 행동적 회피 요인의 매개효과: 3 개월 단기 종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호. (2019).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39**(3), 239-279.

김선숙, 정정호. (2016). 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257-267.

김소연, 정익중, 김재연. (2023). 코로나 19 발생 전후 청소년의 우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부정적 또래관계 간의 종단적 상호영향관계. **한국사회복지학, 75**(1), 59-84.

김수정, 정익중. (2016). 초중고생의 수면 시간이 부모양육태도의 매개를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3), 13-26.

김용회, 한창근. (2017). 부모 삶의 만족도와 아동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3), 29-55.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9**(2), 197-225.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남기은, 이선희, 지옥영. (2018). 대학생의 수면의 양과 질이 대인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기연구를 이용한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2), 583-593.

문수정, 백지숙. (2016).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3), 149-160.

박서영, 박성연.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 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29-51.

박소영, 정혜원. (2021). 청소년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주요 예측변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3), 63-96.

박이슬, 김선미, 김영희. (2022).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주의집중 문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면의 질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3), 219-241.

백승희, 전현정, 이정민, 정혜원. (2019). 모와 자녀가 지각한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

적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행위자 상대자 상호의존모형 (APIM) 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30**(2), 93-118.

손지아, 김선희. (2017).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관계: 부모, 또래 및 교사요인의 영향. **아동학회지, 38**(6), 1-15.

윤현정. (2020). 중학교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가정간호학회지, 27**(2), 189-197.

이현엽,현승주,최윤영,강성록. (2013). 중년기 성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1), 27-39.

장정수, 양지웅. (2023). 부모-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2), 751-766.

조성희, 박소영. (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801-818.

정은혜, 이소연.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119-146.

최홍일, 정현주. (2023).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에 미치는 영향-수면의 질과 우울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1), 75-99.

하규, 민영. (2020).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정서행동문제의 매개효과: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다집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39-6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제1-3차 유저가이드.**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허영주. (2019). 부모의 삶의 만족도, 자녀의 컴퓨터 게임 및 성인물 의존도, 교우관계의 종단적 구조에 대한 남녀 비교. **교육종합연구, 17**(4), 171-195.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홍세희. (2015). **양적변화 자료 분석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서울: 에스앤엠 리서치 그룹.

홍태화, 황순택. (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545-568.

Almeida, D. M., Wethington, E., & Chandler, A. L. (1999). Daily transmission of tensions between marital dyads and parent-child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6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 S. M. T. F.,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Vol. 5, No. 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astasiades, P. G., De Vivo, L., Bellesi, M., & Jones, M. W. (2022). Adolescent sleep and the foundations of prefrontal cortical development and dysfunction. *Progress in Neurobiology,* 102338.

Baglioni, C., Spiegelhalder, K., Lombardo, C., & Riemann, D. (2010). Sleep and emotions: a focus on insomnia. *Sleep medicine reviews, 14*(4), 227-238.

Bell, B. G., & Belsky, J. (2008). Parents, parenting, and children's sleep problems: Exploring reciprocal effec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579-593.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Berger, E. M., & Spieß, C. K. (2011). Maternal life satisfaction and child outcomes: Are they related?.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1), 142-158.

Berger, A. T., Wahlstrom, K. L., & Widome, R. (2019). Relationships between sleep duration and adolescent depression: a conceptual replication. *Sleep Health, 5*(2), 175-179.

Bourke, M., Patten, R. K., Dash, S., Pascoe, M., Craike, M., Firth, J., ... & Parker, A. G. (2022). The effect of interventions that target multiple modifiable health behaviors on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young people: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70*(2), 208-219.

Brand, S., Hatzinger, M., Beck, J., & Holsboer-Trachsler, E. (2009). Perceived parenting styles, personality traits and sleep pattern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5), 1189-1207.

Branje, S. (2018). Developmen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Conflict interactions as a mechanism of chang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3), 171-176.

Branje, S. J., Hale, W. W., Frijns, T., & Meeus, W. H. (2010).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751-763.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 (2005). *Making human beings human: Bioecological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sage.

Bronfenbrenner, U., & Evans, G. W. (2000). Developmental science in the 21st century: Emerging questions, theoretical models, research designs and empirical findings. *Social development, 9*(1), 115-125.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 W. E.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793-828). West Sussex: Wiley.

Buysse, D. J., Reynolds III, C. F., Monk, T. H., Berman, S. R., & Kupfer, D. J. (1989).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 new instrument for psychiatric practice and research. *Psychiatry research, 28*(2), 193-213.

Carskadon, M. A., & Dement, W. C. (2005). Normal human sleep: an overview. *Principles and practice of sleep medicine, 4*(1), 13-23.

Carskadon, M. A., Sharkey, K. M., Knopik, V. S., & McGeary, J. E. (2012). Short sleep as an environmental exposure: a preliminary study associating 5-HTTLPR genotype to self-reported sleep duration and depressed mood in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Sleep, 35*(6), 791-796.

Chardon, M. L., Stromberg, S. E., Lawless, C., Fedele, D. A., Carmody, J. K., Dumont-Driscoll, M. C., & Janicke, D. M. (2018). The role of child and adolescent adjustment problems and sleep disturbance in parent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7*(3), 374-381.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Cox, M. J., & Paley, B. (1997).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243-267.

Christian, M. S., & Ellis, A. P. (2011). Examining the effects of sleep deprivation on workplace deviance: A self-regulatory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5), 913-934.

Crowley, S. J., Acebo, C., & Carskadon, M. A. (2007). Sleep, circadian rhythms, and delayed phase in adolescence. *Sleep medicine, 8*(6), 602-612.

Crowley, S. J., Wolfson, A. R., Tarokh, L., & Carskadon, M. A. (2018). An update on adolescent sleep: New evidence informing the perfect storm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67*, 55-65.

Dahl, R. E. (1996). The regulation of sleep and arous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1), 3-27.

Desha, L. N., Nicholson, J. M., & Ziviani, J. M. (2011). Adolescent depression and time spent with parents and sib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 233-238.

Dew, T., & Huebner, E. S. (1994). Adolescents' perceived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2), 185-199.

Díaz Morales, J. F., Escribano, C., Puig-Navarro, Y., & Jankowski, K. S. (2023). Factors Underpinning the Shift to Eveningness during Early Adolescence: Pubertal Development and Family Confli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2*(3), 561-569.

Dregan, A., & Armstrong, D. (2010). Adolescence sleep disturbances as predictors of adulthood sleep disturbances—a cohort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5), 482-487.

Elder Jr, G. H., Van Nguyen, T., &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361-375.

Fuligni, A. J., Tsai, K. M., Krull, J. L., & Gonzales, N. A. (2015). Daily concordance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sleep habi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6*(2), 244-250.

Goldstone, A., Javitz, H. S., Claudatos, S. A., Buysse, D. J., Hasler, B. P., de Zambotti, M., ... & Baker, F. C. (2020). Sleep disturbance predicts depression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initial findings from the 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6*(5), 567-574.

Gordon, A. M., & Chen, S. (2014). The role of sleep in interpersonal conflict: do sleepless nights mean worse fight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2), 168-175.

Granic, I., Hollenstein, T., Dishion, T. J., & Patterson, G. R. (2003). Longitudinal analysis of flexibility and reorganization in early adolescence: a dynamic systems study of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9*(3), 606.

Hammen, C. (1991). Generation of stress in the course of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55.

Janssens, W., Pradhan, M., de Groot, R., Sidze, E., Donfouet, H. P. P., & Abajobir, A. (2021). The short-term economic effects of COVID-19 on low-income households in rural Kenya: An analysis using weekly financial household data. *World Development, 138*, 105280.

Joiner, T. E., & Coyne, J. C. (1999).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Advances in interpersonal approaches* (pp. xiv-42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ahn, M., Sheppes, G., & Sadeh, A. (2013). Sleep and emotions: bidirectional links and underlying mechanism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89*(2), 218-228.

Kalak, N., Gerber, M., Kirov, R., Mikoteit, T., Pühse, U., Holsboer-Trachsler, E., & Brand, S. (2012). The relation of objective sleep patterns, depressive symptoms, and sleep disturbances in adolescent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sleep-EEG study with 47 familie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10), 1374-1382.

Kelley, H. H., & Michela, J. L. (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1), 457-501.

Kerr, M., & Stattin, H. (2003). *Parenting of adolescents: Action or reaction.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121-151.

Kouros, C. D., & El-Sheikh, M. (2017). Within-family relations in objective sleep duration, quality, and schedule. *Child development, 88*(6), 1983-2000.

Kouros, C. D., Keller, P. S., Martín-Piñón, O., & El-Sheikh, M. (2022).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nightly sleep and daily happiness

and negative mood i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93*(5), e547-e562.

Kourti, A., Stavridou, A., Panagouli, E., Psaltopoulou, T., Tsolia, M., Sergentanis, T. N., & Tsitsika, A. (2021). Play behavior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ren, 8*(8), 706.

Kreutzmann, J. C., Havekes, R., Abel, T., & Meerlo, P. (2015). Sleep deprivation and hippocampal vulnerability: changes in neuronal plasticity, neurogenesis and cognitive function. *Neuroscience, 309*, 173-190.

Krystal, A. D., & Edinger, J. D. (2008). Measuring sleep quality. *Sleep medicine, 9*, S10-S17.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Lapidaire, W., Urrila, A. S., Artiges, E., Miranda, R., Vulser, H., Bezivin-Frere, P., ... & IMAGEN consortium. (2021). Irregular sleep habits, regional grey matter volume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s. *PLoS One, 16*(2), e0243720.

Lee, H., Kim, Y. J., Jeon, Y. H., Kim, S. H., & Park, E. C. (2022). Association of weekend catch-up sleep ratio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Scientific reports, 12*(1), 10235.

Larson, R. W., & Gillman, S. (1999). Transmission of emotions in the daily interactions of single-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1-37.

Lemola, S., Perkinson-Gloor, N., Brand, S., Dewald-Kaufmann, J. F., & Grob, A. (2015). Adolescents' electronic media use at night,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smartphone 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2), 405-418.

Lovato, N., & Gradisar, M. (2014). A meta-analysis and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S*leep medicine reviews, 18*(6), 521-529.

Lin, W. H., & Yi, C. C. (2019). The effect of family cohesion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adolescence on later adolescent outcomes: A prospective study. *Youth & Society, 51*(5), 680-706.

Montie, K., Quaedackers, L., Perlitius, V., van der Horst, E., Vandenbussche, N., Overeem, S., & Pillen, S. (2019). The impact of delayed sleep phase disorder on adolescents and their family. *Sleep Medicine, 64*, 15-22.

Michael, K. C., Torres, A., & Seemann, E. A. (2007). Adolescents' health habits, coping styles and self-concept are predicted by exposure to interparental conflict.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8*(1-2), 155-174.

Minuchin, P. (1985).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289-302.

Moses, T. (2010). Exploring parents' self-blame in relation to adolescents' mental disorders. *Family Relations, 59*(2), 103-120.

O'Leary, K., Bylsma, L. M., & Rottenberg, J. (2017). Why might poor sleep quality lead to depression? A role for emotion regulation. *Cognition and Emotion, 31*(8), 1698-1706.

Pasch, K. E., Latimer, L. A., Cance, J. D., Moe, S. G., & Lytle, L. A. (2012). Longitudinal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sleep and youth substance 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 1184-1196.

Peltz, J., & Rogge, R. (2022). Adolescent and parent sleep quality mediates the impact of family processes on family members' psychological distress. *Sleep Health, 8*(1), 73-81.

Peltz, J. S., Rogge, R. D., & O'Connor, T. G. (2019). Adolescent sleep quality mediates family chao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daily diary-based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3*(3), 259.

Powdthavee, N., & Vignoles, A. (2008). Mental health of parents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 within-family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 397-422.

Raudsepp, L. (2019). Brief report: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and sleep disturbances are longitudinal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76*, 197-201.

Rojo-Wissar, D. M., Owusu, J. T., Nyhuis, C., Jackson, C. L., Urbanek, J.

K., & Spira, A. P. (2020).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leep among adolescents: Modification by race/ethnicity. *Sleep Health, 6*(2), 145-152.

Sameroff, A. (2009). *The transactional mode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rchiapone, M., Mandelli, L., Carli, V., Iosue, M., Wasserman, C., Hadlaczky, G., ... & Wasserman, D. (2014). Hours of sleep in adolescents and its association with anxiety, emotional concerns, and suicidal ideation. *Sleep medicine, 15*(2), 248-254.

Schermerhorn, A. C., & Cummings, E. M. (2008). *Transactional family dynamics: A new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family influence processes. I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6, pp. 187-250). JAI.

Shanahan, L., Copeland, W. E., Angold, A., Bondy, C. L., & Costello, E. J. (2014). Sleep problems predict and are predicted by generalized anxiety/depression an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3*(5), 550-558.

Shen, L., van Schie, J., Ditchburn, G., Brook, L., & Bei, B. (2018).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sleep duration and qua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 2584-2595.

Supartini, A., Honda, T., Basri, N. A., Haeuchi, Y., Chen, S., Ichimiya, A., & Kumagai, S. (2016). The impact of sleep timing, sleep duration, and sleep quality o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st Japanese freshmen: The EQUSITE study. *Sleep disorders,* 2016.

Stapley, E., Midgley, N., & Target, M. (2016). The experience of being the parent of an adolescent with a diagnosis of depress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 618-630.

Thapar, A., Collishaw, S., Pine, D. S., & Thapar, A. K. (2012). Depression in adolescence. *The lancet, 379*(9820), 1056-1067.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0). What is the

Healthy People 2030 framework? Development of Healthy People 2030.

Van Der Helm, E., Yao, J., Dutt, S., Rao, V., Saletin, J. M., & Walker, M. P. (2011). REM sleep depotentiates amygdala activity to previous emotional experiences. *Current biology, 21*(23), 2029-2032.

Vanderlind, W. M., Beevers, C. G., Sherman, S. M., Trujillo, L. T., McGeary, J. E., Matthews, M. D., ... & Schnyer, D. M. (2014). Sleep and sadness: exploring the relation among sleep, cognitive control,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Sleep medicine, 15*(1), 144-149.

Varma, P., Conduit, R., Junge, M., & Jackson, M. L. (2020). Examining sleep and mood in parents of children with sleep disturbances. *Nature and Science of Sleep,* 865-874.

Walker, M. P., & van Der Helm, E. (2009). Overnight therapy? The role of sleep in emotional brain processing. *Psychological bulletin, 135*(5), 731.

Westman, M., & Vinokur, A. D. (1998). Unraveling the relationship of distress levels within couples: Common stressors, empathic reactions, or crossover via social interaction?. *Human relations, 51*(2), 137-156.

Xue, B., Xue, Y., Zheng, X., Shi, L., Liang, P., Dong, F., ... & Zhang, C. (2022). Association of sleep with mental health in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Sleep Research, 31*(6), e13697.

Yeh, Z. T., Wung, S. K., & Lin, C. M. (2015). Pre-sleep arousal as a mediator of relationships among worry, rumination, and sleep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1), 21-34.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Yip, T. (2015). The effects of ethnic/racial discrimination and sleep quality on depressive symptoms and self-esteem trajectories among divers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 419-43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학업무기력의 이중매개를 중심으로

정부민*·김미애**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의 진로적응력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학업무기력이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중1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고1 학생 2,2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우울 및 학업무기력의 개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학습무기력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무기력이 순차적 매개를 통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여러 측면에서 진로적응력을 저해하는 선행변인이며, 우울 및 학업무기력과 함께 진로적응력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적극적으로 진로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진로 준비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부정적 양육태도, 진로적응력, 우울, 학업무기력, 순차적 이중매개, 패널연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수료
** 경북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석사과정, aldowkd34@knu.ac.kr

Ⅰ.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작용한다. 이로 인해, 직업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이전의 세대와 다른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였고,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요즘 청소년들은 AI 전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빅데이터 전문가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2). 또한,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어 없어지거나 전혀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한정아, 2023; 김희중, 2017). 이와 같은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단지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직업적 안정성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새로운 직업적 자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Di Fabio & Kenny, 2015; Savickas, 2005).

구성주의 진로발달에서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진로적응력'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적응력(Carrer Adaptability)은 Super와 Knalsel(1981)이 제안하고 Savickas(2005)가 정립한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진로 개념이다. 진로적응력은 현재 상황의 진로발달과 미래 직업전환에 대한 준비, 더 나아가 직업적 전환(ex.이직)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불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Savickas, 1997; Savickas, 2005). 진로적응력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 능력이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적응력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박소영, 정혜원, 2020; 한정아, 2023; 김국현, 김진숙, 2021).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Erikson, 1963),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탐색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기와 중장년기의 건강한 인생설계를 위해서 청소년 시기부터 진로적응력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이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진로적응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심도있는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진학을 결정할 수 있으며(조정자, 이종연, 2017;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그로 인해 대학교와 전공에 대한 부적응, 편입과 자퇴 등을 고민하는 진로 관련 방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박성열, 장윤숙, 주민호, 2018).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진로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기의 진로적응력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진로적응력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박은규, 이서정, 2018; Savickas & Porfeli, 201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가족중심적 문화로 진로 선택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부모가 많은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금명자, 2003; 박정민, 유정이, 이영선, 2003), 부모 관련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위해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열광하는 것은 그만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대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위해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중점으로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진로적응력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신혜진, 2023; 윤석은, 하창순, 2017; 강덕원, 안귀여루, 2015).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위험성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위해성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얼마나 주의해야하는 가를 밝혀야한다. 즉, 청소년기에 부모가 비일관적이라고 느낄수록 자신이 나아가는 진로에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므로(한정아, 2023), 진로적응력의 저해요인을 살펴보고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애경, 윤채영, 2018; 백성은, 2023), 이는 대학생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정은교, 안도희, 2018).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부모와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로탐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임애경, 윤채영, 2018), 이는 고등학생과 그 이후의 진로적응력 발달에서 가족과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진로적응력에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요인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정아, 2023; 백성은, 2023). 중·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한정아, 2023), 학생의 개인 내적 요인 중 '학업무기력', '학업열의', 우울 등의 '정서문제', '자아존중감', '그릿'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학업무기력과 우울 등의 정서문제는 진로적응력과 부적인 관계로, 학업무기력과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진로적응력의 저해요인이 학업무기력, 우울 등 정서문제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상태는 진로적응력을 낮추고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예진, 2010; 석민

경, 조한익, 2016, 한주원, 2017). 그리고 학업무기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다고 보고되었다(남정은, 김진숙, 2022).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 학업무기력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과 진로적응력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간에도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먼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부모의 강요와 비일관적인 태도, 거부는 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미숙, 김선경, 2020; 구희정, 2013; 배지수, 채규만, 2014; 홍원준, 2020; Mennen & Trickett, 2011).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또 다른 내적변인인 학업무기력과도 관계가 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은 높게 나타났으며(최혜선, 한세영, 2021),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무기력한 학업태도를 매개로 진로적응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백성은, 2023). 따라서 진로적응력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우울, 학업무기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을 살펴볼 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로적응력을 저해하는 선행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은 인간의 발달단계 및 성숙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 진로적응력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그 이후까지 연속해서 작용하는 요인이고, 우울 등의 정서상태는 양육태도와 같은 지속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 다음으로 형성되는 요인이다. 학업무기력 또한 학업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전에 높아진 우울감이 작용하여 그 양상이 더욱 짙어짐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는 순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우울, 학업무기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진로적응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소연희, 2023; 이지은, 2021; 이정연, 2022; 정은교, 안도희, 2018;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장다온, 강영배, 2019). 하지만 대학 입학과 전공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큰 결정이기에 고등학교에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적응력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김예은, 2018). 그러므로 고등학생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개인내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자료 중에서 응답자

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4차년도 자료를 선정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2018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중학교 1학년(2,590명)의 표본을 구축하고 매년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다단계층화집락표집을 통해 자료 수집 대상에 대한 무작위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 고등학생의 응답을 분석할 수 있으며, 비교적 최신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의 진로적응력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 우울이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 진로적응력 발달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 또는 학습무기력을 매개로 진로적응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과 학습무기력의 순차적 이중매개를 통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은 Super와 Knasel(1981)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현대사회의 진로 선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재선택의 반복이라는 관점으로 소개되었다. Super와 Knasel(1981)은 진로적응력을 '계속해서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다양한 주변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도'로 정의하였다. Savickas(1997)가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면서 진로적응력을 '미래의 순조로운 직업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업무의 역할에 대한 준비와 수행, 그리고 직장 및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생기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후 Savickas(2012)는 진로적응성이 관심/통제/호기심/자신감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있음을 밝히며, '진로적응성의 각 4가지 차원은 독립적인 차원으로, 직업역할에서 기대되는 과업·전환·외상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구성'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4가지 차원을 하위요인으로 가지는 진로적응능력척도(Career Adapt-Ability Scale: CAAS)를 개발하였다(Savickas & Porfeli, 2012).

즉, 진로적응성이란 개인이 직업역할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진로과업·직업적 전환·일과 관련된 외상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불안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자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Savickas가 제시한 진로적응력은 4가지 차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Savicka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첫 번째 하위요인은 '관심(concern)'으로, 자신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미래의 가능성을 파악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미래지향성을 말한다. 두 번째는 '통제(control)'로, 직업적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실행에 책임을 갖고 스스로 통제력을 갖는 개인 내적과정을 말한다. 세 번째는 '호기심(curiosity)'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고 진로를 선택하며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은 '자신감(confidence)'으로, 직업적 환경에서 직면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과 신념을 말한다.

Savickas와 Porfeli(2011)의 후속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Adaptability Form)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제(control)요인이 진로적응성 모델을 강화하기보다 '진로 결정 과정에서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정도(consultation)'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여, 진로적응력 총 점수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진로적응력 척도는 관심, 호기심, 자신감의 총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통제요인은 진로 의사결정 경향성을 판단하는 자문요인(consulta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진로적응력 척도 형식을 따랐으며, 김국진, 김진숙(2021)에서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진로적응력은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진로적응력은 주위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응하는가의 문제임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Savickas & Porfeli, 2012). 따라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위 환경적 요인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은 부모와 가족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있으며 개인 내적 요인은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 '학업무기력'등이 지목되고 있다.

2.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내적, 외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이화림, 2001). 이은주(2001)는 양육방식을 가족 내에서 자녀의 성격, 가치, 태도, 행동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태도를 말하며, 부

모의 행동과 자녀의 인식, 태도, 행동에 관한 부모 반응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Ba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부모가 보이는 양육행동을 기준으로 6차원 모형에 적용하여 양육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Skinner, Johnson & Snyder, 2005; 김태명, 이은주, 2017).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에 해당하는 차원은 긍정적 양육태도, 거부, 강요, 비일관성에 해당하는 차원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판단한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온정적이며 자율성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제시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거부적이며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지배적이며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Skinner et al., 2005),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야기시킨다(하문선, 김은선, 한은지, 안수연, 2021; 한은지, 하문선, 2021).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지수, 채규만, 2014; 구희정, 2013; 김진아, 한귀례, 2014). 그리고 학업무기력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야기하여 학업무기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김재윤, 한희수, 박은영, 강민주, 2020; 한은지, 하문선, 2021). 특히 학업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유발된 역기능적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결국 자신감이 낮아져 무기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혜, 하문선, 2021).

더불어, 부정적 양육태도가 우울과 학업무기력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가 강압적이거나 비일관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우 자녀의 우울, 학업무기력 및 비행,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지수, 채규만, 2014; 하문선 외, 2021).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무기력과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한은지, 하문선, 2021; 최준호, 김태균, 2022),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습무기력 사이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밝혀졌다(김나현, 안상근, 2022).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 학업무기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과 학업무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력의 환경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이 모두 상호작용하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우울, 학습무기력 그리고 진로적응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3. 우울과 학업무기력

우울(Depression)은 의욕 저하와 낙담한 기분이 주된 느낌으로, 다양한 인지,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증상이다(APA, 2013).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 타인과 세상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Beck, 1995),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이 어려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또래나 부모에 대한 거부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Berkowitz, 1989).

학업무기력(Acadamic Helplessness)은 학습된 무기력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용어로,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기력감을 나타낸다(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습된 무기력이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기대나 동기가 감소하여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이다(강혜원, 김영희, 박병기, 2004). 종합하여 보면, 학업무기력은 행동 통제가 어렵고 학습 동기가 부족하여 학업에 대한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학업에서의 성취감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학업무기력은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로 구성되어 있다(박병기 외, 2015).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은 하루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 만큼 학업에 부정적 문제를 일으키는 우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의 우울에 비해 위중한 정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 우울은 발달적 과업달성, 자아정체성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업 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유발하여 가출, 폭력, 자살 시도와 같은 부적응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조윤영, 배희진, 정현희, 2019; 한은지, 하문선, 2021; Mufson, Dorta, Wickramaratne, Nomura, Olfson & Weissman, 2004).

따라서 우울과 학업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은 학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조한익, 2012; Steel, 2007), 우울과 불안, 위축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고도 보고하였다(문명현, 2016). 또한 우울 증상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고(Puig-Antich, Luckens, Davis, Goats, Btrnnan-Quattrock, & Todak,

1985),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이 학업무기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현진, 2022; 박시현, 2014).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우울이 지속될수록 학업무기력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하여 총 네 개의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1차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응답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는 고등학교 시기 중 다른 학년보다 진로 결정에 대한 다양성이 가장 많이 열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신혜진, 2023).

이에 진로적응력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는 우울과 학업 무기력을 선정하여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중학교 1학년 4차 원 패널 2,590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2,275명으로, 남학생 1,145명(50.3%), 여학생 1,130명(49.7%)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kinner et al.(2005)이 제작한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율성 지지(4문항), 따스함(4문항), 구조제공(4문항), 강요(4문항), 거부(4문항), 비

일관성(4문항)의 6개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지지, 따스함, 구조제공을 긍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고, 강요, 거부, 비일관성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최혜선, 한세영, 2021),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 거부, 비일관성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강요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거부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비일관성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양육태도의 Cronbach's α는 강요(.746), 거부(.811), 비일관성(.776)이며 문항 전체 신뢰도는 .868이다.

2)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의 간이 정신진단검사 13문항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과 이계오(2010)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울 문항의 예로는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Cronbach's α는 .903이다.

3) 학업무기력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병기 외(2015)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학업무기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통제신념 결여(4문항), 학습동기 결여(4문항), 긍정정서 결여(4문항), 능동수행 결여(4문항)의 4개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신념 결여 문항의 예로는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습동기 결여 문항의 예로는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긍정정서 결여 문항의 예로는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능동수행 결여 문항의 예로는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무기력의 Cronbach's α는 통제신념 결여(.817), 학습동기 결여(.854), 긍정정서 결여(.760), 능동수행 결여(.796) 이며 문항 전체 신뢰도는 .915이다.

4) 진로적응력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국현, 김진숙(2021)이 한국판 고등학생 진로적응력 척도를 타당화한 한국판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진로 관심(3문항), 진로 호기심(5문항), 진로 자신감(5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관심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진로 호기심 문항의 예로는 '나는 직업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진로 자신감 문항의 예로는 '사람마다 나에게 하는 말이 달라 나는 어떤 분야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적응력의 Cronbach's α는 진로 관심(.831), 진로 호기심(.863), 진로 자신감(.864)이며 문항 전체 신뢰도는 .930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 학업무기력,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6.0 와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 학업무기력, 진로적응력의 일반적 경향과 정규성 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한 후, 적합도 지수인 χ^2값, TLI, CFL, RMSEA, RMR, GFI, NFI를 살펴보았다.

넷째,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일 때 개별 간접효과는 제시되지 않으므로, 연구모형에 따른 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percentile 95%, Bias-corrected 95%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5,000회를 적용하여 실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표1과 같다. 본 연구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왜도 절대값이 2.0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7.0 미만이므로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2에서 살펴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우울, 학업무기력, 진로적응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모든 하위변인과 우울, 학업 무기력, 진로적응력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우울과 학업 무기력, 진로적응력 간에도 모든 하위변인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학업무기력과 진로적응력의 하위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 간의 상관은 표 2와 같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및 정규성 검증 N = 2,275

변인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1.886	1.00	4.00	.650	.670	.228
	강요	2.199	1.00	4.00	.604	.197	-.071
	비일관성	2.113	1.00	4.00	.609	.301	.086
	전체	2.066	1.00	4.00	.511	.375	.282
우울	전체	1.724	1.00	4.00	.542	.582	.036
학업 무기력	통제신념 결여	1.967	1.00	4.00	.542	.202	.003
	학습동기 결여	1.976	1.00	4.00	.627	.354	-.005
	긍정정서 결여	1.931	1.00	4.00	.550	.237	-.140
	능동수행 결여	1.922	1.00	4.00	.577	.268	-.140
	전체	1.949	1.00	3.75	.477	.084	-.297
진로 적응력	진로관심	2.253	1.00	4.00	.681	-.103	-.430
	진로호기심	2.284	1.00	4.00	.632	-.224	-.310
	진로자신감	2.286	1.00	4.00	.649	-.178	-.276
	전체	2.274	1.00	4.00	.586	-.300	-.219

표 2.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부정적양육태도	1													
2. 거부	.808***	1												
3. 강요	.821***	.463***	1											
4. 비일관성	.842***	.509***	.582***	1										
5. 우울	.323***	.282***	.201***	.313***	1									
6. 학업무기력	.376***	.347***	.258***	.323***	.379***	1								
7. 통제신념결여	.308***	.293***	.227***	.239***	.220***	.759***	1							
8. 학습동기결여	.309***	.278***	.210***	.274***	.332***	.864***	.558***	1						
9. 긍정정서결여	.335***	.321***	.212***	.290***	.356***	.857***	.538***	.631***	1					
10. 능동수행결여	.302***	.265***	.211***	.269***	.348***	.842***	.453***	.647***	.692***	1				
11. 진로적응력	.240***	.205***	.172***	.214***	.257***	.428***	.327***	.344***	.388***	.365***	1			
12. 진로관심	.230***	.225***	.143***	.196***	.197***	.417***	.330***	.334***	.390***	.337***	.881***	1		
13. 진로호기심	.213***	.166***	.160***	.201***	.268***	.417***	.304***	.339***	.369***	.376***	.911***	.698***	1	
14. 진로자신감	.200***	.158***	.160***	.177***	.228***	.314***	.242***	.251***	.283***	.270***	.897***	.657***	.761***	1

*** $p < .001$

2. 구조모형분석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 적합지수인 χ^2, RMR, GFI, RMSEA 값과 증분적합지수인 NFI, TLI, CFL 값을 제시하였다. GFI, NFI, TLI, CFL 값은 .09이상 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 RMR 값은 .05이하, RMSEA 값은 .08이하면 양호, .05이하면 좋음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377.254(df=39, p<.001)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값이 나타났다(표 3). 하지만 χ^2 값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적합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절대적합지수를 참고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우종필, 2012). 절대적합지수인 RMR=.013, RMSEA=.062 GFI=.971로 양호한 값이고, 증분적합지수인 NFI=.966, TLI=.956, CFI=.969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입증되었다. 또한,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48이하로 나타나 구조변인 간의 변별 타당도 평가기준(.85이하)를 만족시켰다(문수백, 2009).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64 이상으로 절대값이 .40 이상이면 유의하다는 기준(송태민, 김계수, 2012)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C.R(Critical Ratio) 값이 모두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RMR	GFI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377.25	39	.013	.971	.966	.956	.969	.062

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 학업무기력,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이 RMR=.013, RMSEA=.062, GFI=.971, NFI=.966, TLI=.956, CFI=.969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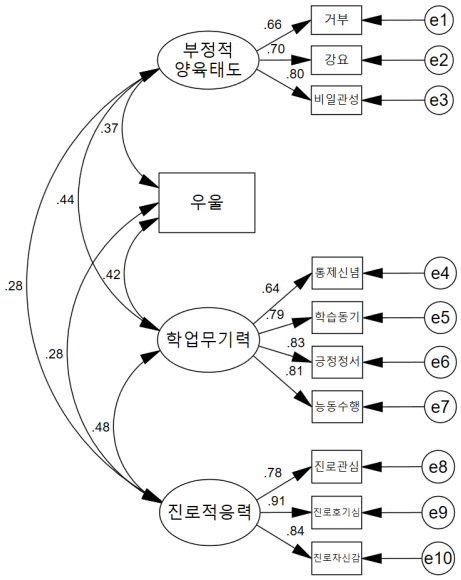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χ^2	df	RMR	GFI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377.254	39	.013	.971	.966	.956	.969	.06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우울(β=.369, p<.001)과 학업무기력(β=.336, p<.001), 진로적응력(β=.062, p<.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우울은 학업무기력(β=.294, p<.001), 진로적응력(β=.081,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업무기력도 진로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β=.42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고등학교 1학년 자녀는 우울감을 갖고 학업에 무기력하였으며 진로적응력 또한 낮았다.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측정모형			β	B	S.E.	C.R.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369	.408	.026	15.478***
부정적 양육태도	→	학업무기력	.336	.237	.019	12.293***
우울	→	학업무기력	.294	.187	.015	12.564***
부정적 양육태도	→	진로적응력	.062	.068	.029	2.306*
우울	→	진로적응력	.081	.080	.023	3.546***
학업무기력	→	진로적응력	.423	.651	.045	14.41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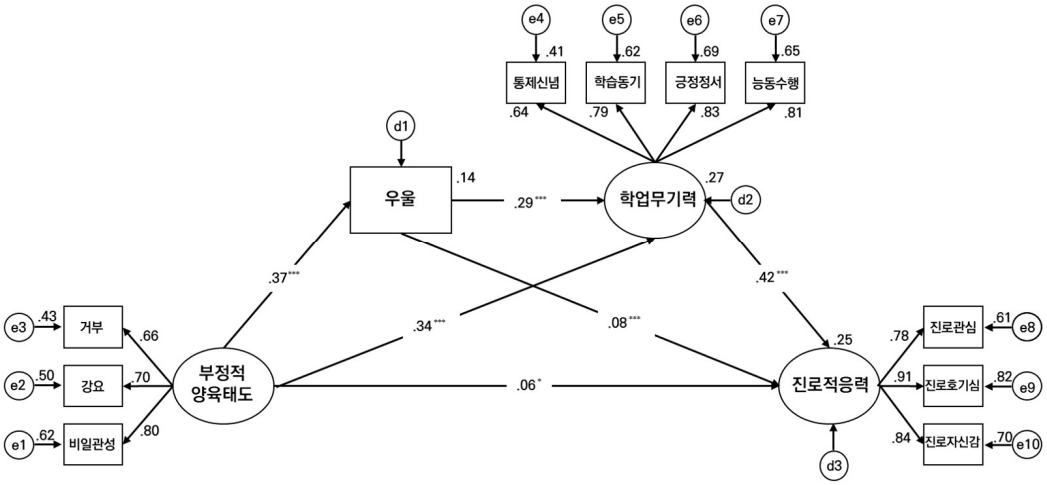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3) 직접효과 및 개별 간접효과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우울과 학업무기력을 통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우울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β=.108, p<.001). 즉,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우울이 높아지고 이는 학업무기력을 높인다. 자녀의 우울이 학업무기력을 통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β=.124, p<.001). 이는 자녀의 우울이 학업무기력을 높이고 이는 진로적응력을 낮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218, p<.001).

본 연구는 연속 다중매개모델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우울과 학업무기력을 통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경로를 분석한다. 따라서, 팬텀변수를 통해 모든 경로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7과 같이 부정적 양육태도가 우울을 통해 진로적응력으로 가는 경로(B=.033, p<.01),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무기력을 통해 진로적응력으로 가는 경로(B=.155,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우울과 학업무기력을 통해 진로적응력으로 가는 경로(B=.050, p<.001)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우울은 높아지고, 높아진 자녀의 우울은 학업무기력을 증가시키며 높은 학업무기력감은 결국 진로적응력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표 6에서 다

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을 13.6%,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은 학업무기력을 27.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 학업무기력은 진로적응력을 24.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효과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369**		.369**	.136
부정적 양육태도	→	학업무기력	.336***	.108***	.445***	.272
우울	→	학업무기력	.294***		.294***	
부정적 양육태도	→	진로적응력	.062*	.218***	.280***	
우울	→	진로적응력	.081**	.124***	.206***	.246
학업무기력	→	진로적응력	.423***		.423***	

*p<.05, **p<.01, ***p<.001

표 7. 간접효과 및 유의성 결과

경로					*B*	95% *CI* [하한, 상한]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	학업무기력	.076***	[.062, .094]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	진로적응력	.033**	[.014, .054]
부정적 양육태도	→	학업무기력	→	진로적응력	.155***	[.121, .194]
우울	→	학업무기력	→	진로적응력	.050***	[.038, .064]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 학업무기력	→	진로적응력	.050***	[.038, .064]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 학업무기력 및 진로적응력 간의 경로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비롯해, 청소년 개인 내적 변인인 우울 또는 학업무기력을 통한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에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애경, 윤채영, 2018; 백성은, 2023)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강원덕, 안귀여루, 2015; 신혜진, 2023; 윤석은, 하창순, 2017)를 통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언어 및 행동 태도가 자녀의 진로적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자녀가 느끼기에 부모가 강요적으로 말하고 자녀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며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본인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 및 고민하며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수용과 지지를 받은 청소년 자녀의 경우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대처하지만(신혜진, 2023), 부모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의 경우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임애경, 윤채영, 2018).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무기력의 매개적 역할을 고려한 이후에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적응력 간의 직접 경로가 여전히 유의미하여 부분매개모델이 지지되었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 및 학업무기력을 통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간접경로를 확인하였다. 먼저 우울을 매개로 하는 경로부터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을 통해 진로적응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을 높이고 이는 진로적응력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수용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청소년의 우울을 매개로 진로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전지승, 유비, 최진영, 2019)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부모가 거부, 강요, 비일관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아져 진로에 대한 자신감, 관심, 흥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을 높였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춘경, 조민규, 2014; 이영애, 정연희, 2017; 한지혜, 김경희, 2020; 하문선 외, 2021).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청소년의 내재적 문제인 우울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청소년의 우울은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성숙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신효정, 이문희, 2011)와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

서 상태가 진로적응력을 낮추었다는 선행연구(한주원, 2017)를 통해서도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감은 자신의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준비 행동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진로적응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을 통해 진로적응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을 높이고 이는 진로적응력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 역시 부모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녀를 양육할 때, 지지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무기력감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진로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지시적이고 엄격하게 대하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무기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들(유지영, 김춘경, 2014; 최현진, 2022; 채인석, 장효열, 이선미, 202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의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태도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무기력감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은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과 진로성숙도가 부적 상관이 있다는 김은영(2009)의 연구와 학습된 무기력이 높아질수록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력이 낮아진다는 서윤미(2014)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무기력과 진로적응력에 관한 연구(조현재, 2017),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무기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연구(남정은, 김진숙, 2022)가 일반고 고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시기의 학업무기력은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필요한 시기에 진로 관심, 자신감을 낮춰 결국 진로적응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학업무기력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성적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게 하며(이명진, 봉미미, 2013), 성적 위주의 평가체계와 학벌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는 강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한다(류진열, 2010). 학업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학업적 좌절을 경험하여 무기력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반복적 실패와 유사한 경험은 학업무기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조현재, 2017). 이렇게 형성된 학업에 대한 무기력은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과제인 진로 탐색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에 대한 무기력감을 우선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기에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과 학습무기력의 순차적 이중매개를 통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우울과 학업무기력의 순차적인 매개를 통해 진로적응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부정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은 높아지고 이는 학업에 대한 무기력감을 높여 진로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직업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 및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네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부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이 가능하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의 학습무기력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정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을 완화시키고 학업무기력을 감소시켰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을 야기하며 학업무기력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최현진, 2022).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우울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배지수, 채규만, 2014; 구희정, 2013; 김진아, 한귀례, 2014; 강미숙, 김선경, 2020; 홍원준, 2020),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이 학업무기력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문명현, 2016; 박시현, 2014; 최현진, 2022)와 맥을 같이한다. 즉,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이 청소년의 우울을 높이고 이러한 우울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학업에 대한 통제감,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무기력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무기력이 순차적 이중매개를 통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학업무기력, 더 나아가 진로적응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진로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이제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함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양육스트레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부모의 역할 갈등 등으로 인해 유발된다고 보고됨으로(김효정, 김성숙, 조동혁, 2022; 김선희, 윤재희, 2021),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자유롭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등의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미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육아공동체'와 같은 제도에서 또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참여형 커뮤니티가 실시되고 있으나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탄력근무제와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벌지향적 사회 분위기 환기와 현재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학생들이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과 무기력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성적과 학벌을 강조하는 지배담론이 사회가 만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패배자로 보는 시각을 만들고 이는 부모들이 학생들을 더 압박하게 만든다. 이런 순환적 관계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켜,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을 강화하여 진로적응력을 낮추는 순차적 관계를 견고하게 만든다. 이에 교육 현장을 감싸고 있는 지배담론을 해체하여, 학생들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적성에 따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배담론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직업 결정에 '대입'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러 갈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직업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변화하는 미래의 직업 세계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저마다의 대응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CYPS 2018 중1패널 데이터의 4차년도 자료(고등학교 1학년)만을 활용하였기에 진로적응력의 종단적 효과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성숙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신효정, 이문희, 2011)를 통해 진로적응력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종단적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CYPS 2018 데이터에서는 2개년(4차, 5차)의 진로적응력만 조사되어 종단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에 대한 종단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진로적응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을 저해하는 요인만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진로적응력의 보호요인과 본 연구에서 밝혀낸 저해요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저해요인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의 경로를 밝혀냄으로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적응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학업무기력은 학벌주의와 그에 따른 입시 위주 교육에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소득수준, 학력, 사교육 정

도, 대입 입시 관련 활동 빈도 등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변인의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진로적응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개인 내적 변인인 우울, 학업무기력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진로적응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환경의 개선이 세부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적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진로적응력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였다(김국현, 김진숙, 2021; 김예은, 2018; 신혜진,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밝힌 것은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변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진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무기력을 증진시키는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 제도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예방적 대안 마련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진로적응력을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미숙, 김선경. (2020).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인터넷 중독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21**(5), 299-314.

강원덕, 안귀여루.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39-764.

강혜원, 김영희. (2004).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883-897.

교육부. (2022).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2.12.19.).

구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295-315.

금명자. (2003).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93-113.

김나현, & 안상근. (2022).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우울, 그릿, 학업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아동교육, 31**(3), 19-39.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김국현, 김진숙. (2021). 한국판 고등학생 진로적응력 척도 타당화: 한국판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 **청소년학연구, 28**(2), 239-269.

김선희, 윤재희. (2021).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5**(3), 197-225, 10.32349/ECERR.2021.6.25.3.197

김예은. (2018). 진로적응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2006~2017). **상담교육연구, 1**(1), 115-133.

김은영. (200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습된 무기력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재윤, 한희수, 박은영, 강민주.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 **가족과 환경연구, 58**(4), 601-611.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Ⅰ**.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김춘경, 조민규. (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PSCQ_KA) 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김현정. (2011). **진로성격유형에 따른 부모진로 지지와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Holland 진로탐색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효정, 김성숙, 조동혁. (2022). 일-가정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3**(2), 232-256.
김희중. (2017). 4차 산업혁명과 자기학(2) - 4차 산업혁명과 미래고용 전망 -. **한국자기학회지, 27**(4), 153-162.
남정은, 김진숙. (2022).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6), 2725-2739.
류진열. (2010). **빈곤층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명현 (2016). **청소년의 인지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대학생의 인간관계와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5**(3), 39-60.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박성열, 장윤숙, 주민호 (2018).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진로결정 관련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279-296.
박소영, 정혜원. (2020). 중학생의 진로 결정 예측변수 탐색: 머신러닝 기법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21**(3), 727-753.
박시현. (2014). **지각된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대인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침심을 매개변인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은규, 이서정 (2018). 대학생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8**(3), 35-56.
박정민, 유정이, 이영선. (2003). 청소년의 진로 불안 감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23.
배지수, 채규만. (2014).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유형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15-133.
백성은. (2023).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학업태도

의 병렬 이중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21**(1), 43-56.

서윤미. (2014). **진로성숙도, 학습된 무기력,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석민경, 조한익 (2016). 청소년의 불안 / 우울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사회적지지 및 갈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1), 1-23.

소연희. (202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0**(2), 65-78.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송태민, 김계수. (2012).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한국복지패널 활용방안: 교차타당성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2**(5), 61-67.

신혜진. (2023).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grit)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24**(1), 17-37

신효정,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7), 139-161.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유지영, 김춘경. (2014).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학습된 무기력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347-372

윤석은, 하창순. (2017).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진로적응성 관계: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239-256.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이시혜, 하문선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69-181.

이영애, 정연희. (2017).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 우울 및 공격성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53-79.

이예진 (2010). 동**기체계이론에 기초한 진로동기수준 군집유형과 진로 적응성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주.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분화수준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연. (2022). 부모애착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5**(1), 41-56.

이지은 (2021).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릿(Grit),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4), 543-550.

이화림. (2001). **부모양육태도와 중·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애경, 윤채영. (2018).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인식 및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교육혁신연구, 28**(1), 313-331.

장다온, 강영배. (201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7**(1), 59-70.

전지승, 유비, 최진영. (2019). 부모의 수용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청소년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19**(2), 221-228.

정은교, 안도희(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1**(2), 171-192.

조윤영, 배희진, 정현희. (2019).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 양육경험과 우울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학교 내 대인관계의 다중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7**(4), 673-704.

조정자, 이종연. (2017). 고등학생의 부모양육태도 셀프리더십 및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38**(1), 79-113.

조한익. (2012). 초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성취정서,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6**(4), 1001-1021.

조현재. (2017).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진로적응성, 자아존중감의 구조관계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4**(4), 93-109.

채인석, 장효열, 이선미. (2022).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2), 187-207.

최준호, 김태균. (2022).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효학연구, 36**, 93-120.

최현진 (2022).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하문선, 김은선, 한은지, 안수연.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사이버비행 및 현실비행 간 관계. **중등교육연구, 69**(2), 209-244.

한은지, 하문선.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무기력 및 우울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4), 667-684.

한정아 (2023).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중·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 영향 요인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6(2), 329-351.

한주원(2017).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낙관성과 우울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비서학논총, 26**(2), 5-30.

한지혜, 김경희. (2020). 부모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64**, 145-164.

홍원준. (2020). 중학생 정서·행동 문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1**(2), 291-32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Sec*tion III: emerging measures and model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Beck, C. T. (1995). The effects of postpartum depression on maternal-infant interaction: a meta-analysis. *Nursing research, 44*(5), 298-304.

Becker, W.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Hoffman & L.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pp. 174-175.). New York: Russel Sage.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73.

Di Fabio, A., & Kenny, M. E.(2015). The Contribu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for Adaptive Career Progress Among Italian Yout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2*(1), 48-59.

Erikson, E. H. (1963). Yout*h: Change and challenge.* New York: Basic books.

Mennen, F. E., & Trickett, P. K. (2011). Parenting attitudes, family environments, depression, and anxiety in caregivers of maltreated children. *Family Relations, 60*(3), 259-271.

Mufson, L., Dorta, K. P., Wickramaratne, P., Nomura, Y., Olfson, M., & Weissman, M. M. (2004). A randomized effectiveness trial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fordepressed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1*(6), 577-584.

Puig-Antich, J., Luckens, E., Davis, M., Goets, D., Btrnnan-Quattrock, J., & Todak, G. (1985). Psychosocial functioning in prepubertal major depressive disorder: I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the depressive episo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500-507.

Savickas, M. L.(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 space theory. -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1), 13-19.

Savickas, M. L. & Porfeli, E. J.(2011).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adaptability for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4), 355-374.

Savickas, M. L. & Porfeli, E. J.(2012). Career adapt-ability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Skinner, E., Johnson, S., Snyder, T.(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

Super, D. E. & Knasel, E. G.(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Session
3

12주제 I

학교/학업 B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코로나19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와 영향요인

신혜숙*·민병철+**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의 중학교 1~2학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전후의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에 학업무기력이 높아졌다. 중등패널과 초등패널을 비교해 본 결과, 코로나 이전 중학생(중등패널)에 비해, 코로나 이후 중학생(초등패널)의 학업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특성에 따라서는 부모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교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어 : 학업무기력, 코로나19, 미시적 사회자본, 부모양육태도, 교사/친구관계, 이중차분법

* 저자 1, 강원대학교
** +교신저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bcmin80@gmail.com

Ⅰ. 서론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유입되고 같은 해 2월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교육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였다(이정현,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임인숙, 장진아, 홍옥수, 2021). 무엇보다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초중고 및 대학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학교 대신 가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관리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되었고(강미애, 남성욱, 2020; 김혜진, 2020; 이준희, 김시현, 2021), 학생들 역시 스스로 학교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감소하고, 가정에서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가 1년 넘게 지속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겪은 가장 심각한 상황은 학업의 결손과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다. 특히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학생들은 또래집단과 함께 교실에서 교사의 면대면 수업을 받기 못하고 가정에서 홀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철균, 위은주, 남경은, 2021). 또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학생들이 친구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제한되었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서미 외, 2021).

이러한 배경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무기력이 점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이보람, 이은별, 송무석, 2023; 서미 외, 2021). 학업무기력은 스스로의 노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에 없기에, 학업적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김아영, 주지은, 1999; Hiroto & Seligman, 1975; Miller & Norman, 1979). 학업무기력은 학습부진으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을 가져오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문은식, 배정희, 2010). 또한 학업무기력은 청소년기 발달의 방해요인이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수, 2006). 즉, 학업무기력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적응 및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학업무기력은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업의 난도가 높아지고 학습의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이다(노언경, 송주연, 우연경, 2022; 문은식, 배정희, 2010; 서미 외, 2021;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Filippello et al., 2015).

지난 3년간 팬데믹 시기 많은 청소년이 학업무기력 등을 포함한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많으나(정익중 외, 2020; 서미 외, 2021),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이 어느 정도 심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중학교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간의 본격적인 학업경쟁이 시작되어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가 끝나는 시점에 최초로 등급화된 성적표를 받기 때문에 학업무기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학업무기력의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의 학년별 차이에 비하여 코로나19 전후의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다. 코로나 전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학업무기력을 조사한 실증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조사 중 중학패널은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초등패널은 코로나 이후에 중학교 1~2학년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이러한 연구설계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 및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학생 개인특성과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학업무기력의 예측변인으로 활용하고, 이들 예측변인과 코로나 시기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들 변인이 학업무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학업무기력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둘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이후의 교육환경 변화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가장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박미희, 2020; 이정현 외, 2023; 임인숙 외, 2021. 급속도로 감염자가 증가하던 당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임으로써 코로나의 전파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20년 초반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이후 한동안 휴교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되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특히 수업방식은 대면수업 위주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패러다임이 대폭 변화하였고,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강미애, 남성욱, 2020; 김혜진, 2019; 임인숙 외, 2021).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의 결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학교수업을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대면 비대면의 융합방식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을 지원하는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강미애, 남성욱, 2020; 이준희, 김시현, 2021). 교육부(2020)에서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 활용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과제중심 수업 등을 제시하였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상당히 지속되었다. 특히 교사 및 또래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학이나 체육 등의 일부 교과에서 실습, 토론 및 탐구활동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임인숙 외, 2021; 한국과학창의재단, 2020).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성취격차와 정서적 어려움 등이다(서미 외, 2021; 이보람 외, 2023; 정익중 외, 2020). 특히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학생들은 또래집단과 함께 교실에서 교사의 면대면 수업을 받기 못하고 가정에서 홀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철균 외, 2021; 이정연 외, 2020).

무엇보다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시급한 문제는 누적적 학업의 실패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박탈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서미 외, 2021, 이정연 외, 2020; 정익중 외, 2020). 이 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는 이후의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 학업적응, 그리고 학업적 성공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문은식, 배정희, 2010; 손유나, 2022). 그동안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학업결손 및 교육격차의 원인이자 결과인 학업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학업무기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업무기력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학업무기력의 개념과 관련 요인

무기력은 이후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무기력이 학업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학업무기력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Hiroto & Seligman, 1975; Miller & Norman, 1979). 학업무기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심리적 병폐이지만, 학교부적응이나 학습결손 등 이후의 부정적 징후와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김아영, 주지은, 1999; 김영희, 강혜원, 2005; 김희수, 2006), 초기 청소년의 발달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변인이다.

그동안 학업무기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권미나, 이진수, 2022; 문은식, 배정희, 2010; 안태용, 2016; 임경희, 2004; 장수연, 정제영, 2020; 정문주 외, 2016; Akca, 2011; Huang Xin, 신태섭, 2021), 학업무기력이 영향을 주는 주요 종속변인에 대한 연구(김아영, 주지은, 1999; 김영희, 강혜원, 2005; 김희수, 2006; 손유나, 202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화 및 관련 요인 분석 등이 있다(노언경 외, 2022; 하아영, 조한익, 2021).

먼저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이 가정이나 학교 환경보다 학업무기력과 더 강한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들이 있다(문은식, 배정희, 2010; 정문주 외, 2016). 즉, 개인의 정서 요인, 특히 자아효능감이나 자아탄력성 등의 개인 심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수, 2006; 최현정, 이동귀, 2019). 이 외에 학업 스트레스(강혜원, 김영희, 2004; 박성희, 김희화, 2008; 안태용, 2016; Akca, 2011), 귀인성향(박수현, 2011) 등도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무기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권미나, 이진수, 2022; 노언경 외, 2022),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최현정, 이동귀, 2019; Huang Xin, 신태섭, 2021), 그리고 친구관계나 교사관계 등 사회적 지지도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문은식, 배정희, 2010; 장수연, 정제영, 2020; 정문주 외, 2016; 한희진, 2022). 이 외에 학급풍토와 같은 학교 요인도 학업무기력의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김민희, 2007).

다음으로 학업무기력이 원인이 되는 결과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무기력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김희수, 2006),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유나, 2022). 즉, 학업무기력이 있는 학생들은 학업부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다시 낮은 학업무기력과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된다(문은식, 배정희,

2010). 즉, 학업무기력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거나 부모의 지원과 통제가 적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나타나듯이 친구관계와 교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도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시기를 겪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변화 외에도 코로나시기에 따른 변화양상을 점검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 학교요인 및 가정환경의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간 학업무기력의 변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2,607명('초등패널')과 중학교 1학년 2,590명('중등패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022년 현재 4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 하에 있었던 2020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즉, 코로나시기(2022년과 2021년)에 중학교 1~2학년에 재학했던 초등패널 자료와 코로나 이전(2018년과 2019년)에 중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했던 중등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초등패널은 4차년도와 5차년도 기준 2,275명의 학생과 학부모 2,270명의 자료가 가용하였고, 1~2차년도 기준 학생과 학부모 각 2,438명의 자료가 가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초등패널 2,176명과 중등패널 2,420명 등 총 4,596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2. 분석변인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변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종속변인은 학업무기력으로,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 12개 문항으로 측정

했으며, 신뢰도는 α=893이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코로나와 학년이며 모두 더미변인이다. 코로나는 더미변인으로 코로나 이후(2021년과 2022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하였던 초등패널은 1의 값을 가지며, 'Post코로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2018년과 2019년)에 중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하였던 중등패널은 0의 값을 가지며 'Pre코로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인인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을 0, 중학교 2학년을 1로 구분하였다.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설명하는 설명변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학생 특성 및 배경변인으로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기준으로 여학생에 1의 값을 부여하였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혹은 보호자)의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하고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의 범위를 가진 12개 선택지로 조사된 자료를 각 중간값으로 변환하고 백만원 단위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 그리고 친구관계를 설정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24개 문항으로 된 학생응답을 기준으로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그대로 사용하고 '거부', '강요', '비일관성'과 같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의 신뢰도는 α=.902이다. 교사관계는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등의 1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신뢰도는 α=.906이다. 친구관계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의 8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신뢰도는 α=.868이다.

분석에 사용한 변인과 기술통계량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중학교 1학년과 2학ㄴ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분석변인의 기술통계

	문항수	코로나 이전 (중등패널, 2,428명)						코로나 이후 (초등패널, 2,176명)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학업무기력	12	.893	1.87	.55	.891	1.96	.52	.913	1.96	.49	.902	2.02	.49
성별(여성)		-	.46	.50		.46	.50		.50	.50		.50	.50
부모학력(년)			14.24	2.07		14.27	2.06		14.75	1.82		14.76	1.83
가구소득(백만원)			5.19	2.28		5.16	2.12		5.53	2.07		5.60	2.11
부모양육태도	24	.902	3.13	.44	.912	3.06	.44	.919	3.05	.41	.921	3.03	.42
교사와의 관계	14	.906	2.80	.50	.856	2.75	.48	.897	2.80	.46	.874	2.76	.50
친구와의 관계	8	.868	3.11	.54	.917	3.07	.49	.912	3.01	.50	.906	3.01	.47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1학년과 2학년 사이 학업무기력의 변화에 대한 코호트(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단계별로 이루어졌는데, 모형 1에서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두 독립변인 코로나시기(코로나 이전=0, 코로나 이후=1)와 학년(중학교 1학년=0, 중학교 2학년=1)만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두 변인의 회귀계수는 각각 코로나 이전과 이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간의 학업무기력 차이를 나타낸다. 모형 2는 코로나시기와 학년의 상호작용항($코로나_i \times 학년_i$)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으로 차이 속의 차이를 산출한다. 모형 3은 모형2에 학생 특성 및 배경변인을 추가하여 이러한 배경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코로나 시기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보여준다. 이때 학생 특성 및 배경변인으로는 학생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모형 4에서는 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본 모형은 학생특성과 가정배경, 사회적 관계를 통제한 이후의 코로나시기와 학년별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최종모형인 모형 5는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사회적 관계 변인과 코로나시기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본 모형의 절편이 실제로 의미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모형 3에서 모형 5까지 사용된 연속변인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차이점수로 변환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다음과 같다.

$$
\begin{aligned}
학업무기력_i = {} & \beta_0 + \beta_1 코로나시기_i + \beta_2 학년_i + \beta_3 코로나시기_i \times 학년_i + \beta_4 성별_i \\
& + \beta_5 부모학력_i + \beta_6 가구소득_i + \beta_7 부모양육태도 + \beta_8 교사관계_i + \beta_9 친구관계 \\
& + \beta_{10} 코로나시기_i \times 부모양육태도 + \beta_{11} 코로나시기_i \times 교사관계_i \\
& + \beta_{12} 코로나시기_i \times 친구관계 + r_i,
\end{aligned}
$$

$$
r_i \sim N(0, \sigma^2)
$$

위의 모형에서 종속변인은 학업무기력이며, 독립변인은 코로나시기와 학년이다. 이때 β_1는 코로나 이후와 이전의 학업무기력의 차이이고, β_2는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의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모형 3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의 회귀계수 β_3 는 차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후 단계적으로 투입한 통제변인은 학생의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모형 3),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모형 4)이며, 이 변인들

의 회귀계수(β_4 ~β_9)는 각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하는 학업무기력이다. 모형 5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시기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β_{10}~β_{12})는 각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효과가 코로나 시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낸다.

Ⅳ. 연구결과

1. 코로나 전후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을 활용하여 코로나 전후의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학업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의 학업무기력 평균은 1.911이었으나, 중학교 2학년에는 1.989로 .077만큼 상승하였고,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9.052, p<.001),

패널별로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2017~2018년. 중등패널)보다 코로나 이후(2020~2021, 초등패널) 학업무기력이 더 높았다. 중등패널은 학업무기력 평균이 1.915인 반면, 초등패널은 그보다 높은 1.989였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이러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t=6.902, p<.001).

다음으로 연구대상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 패널로 구분하여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의 세로 줄에 제시되었다. 코로나 이전 시기(중등패널)의 학업무기력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년 2학년이 될 때 1.870에서 1.960으로 .090만큼 증가하였으며,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513, p<.001). 코로나 이후(초등패널)의 학업무기력은 중1에서 중2가 될 때, 1.957에서 2.021로 .063만큼 증가하였고,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201, p<.001).

자료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코로나 이전(중등패널)과 코로나 이후(초등패널)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의 가로줄에 제시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업무기력은 코로나 이전 1.870인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1.957로 코로나 이후가 더 높았다(t=5.711, p<.001).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업무기력도 코로나 이전 1.960인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2.021로 코로나 이후가 높았다(t=4.061, p<.001). 즉 동일학년이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이 중학년 1학년에서 2학년이 될 때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차이점수를 계산하여 코로나 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학년간 학업무기력이 .090 정도 증가하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학년간 .063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536).

표 2. 코로나 전후 학업무기력 변화

		코로나 이전 (중등패널, 2,428명)	코로나 이후 (초등패널, 2,176명)	소계 (4,604명)	t검정 (독립표본)
중학교 1학년		1.870 (.517)	1.957 (.485)	1.911 (.460)	5.711***
중학교 2학년		1.960 (.518)	2.021 (.494)	1.989 (.058)	4.061***
총합	전체	1.915 (.534)	1.989 (.491)	1.950 (.515)	6.902***
	t검정 (대응표본)	7.513***	5.201***	9.052***	
차이	변화 (중2-중1)	.090 (.588)	.063 (.569)		-1.536

위의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즉 중학교 1학년에 비하여 2학년의 학업무기력이 높았고,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학업무기력이 높았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변화는 코로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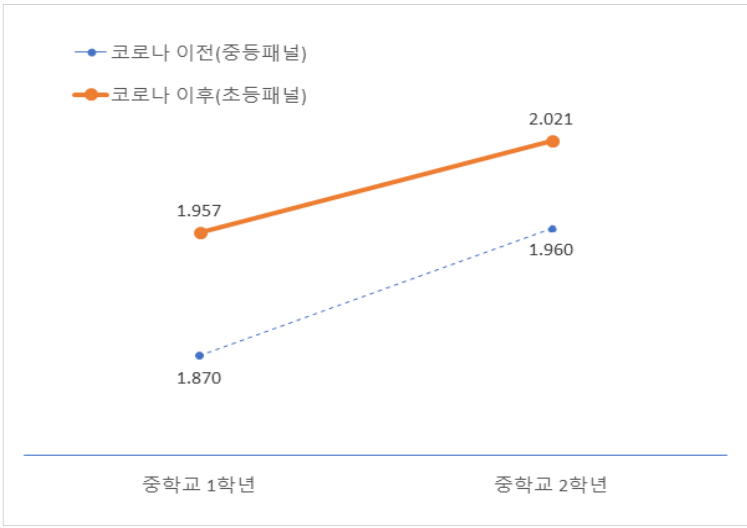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 전후 학업무기력 변화

2.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코로나 전후 학업무기력 변화

다음으로 코로나시기와 학년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다른 변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은 코호트와 학년에 따라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모형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코로나19 시기 중1~2학년을 보낸 경우(초등패널) 그렇지 않은 경우(중등패널)에 비해, 학업무기력이 .074 가량 높았고, 중학교 1학년보다 2학년 시기 학업무기력이 .077 가량 높았다. 모형 2에서는 코로나시기와 학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했는데, 해당 변인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즉 학년간 학업무기력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학생 특성 및 배경변인을 추가하였다. 학업무기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 교육연한이 1년 길수록 .022 정도 학업무기력이 낮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백만원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02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 사회경제적배경이 우수할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학생특성과 가정배경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모형의 설명량은 .011에서 .034로 증가하였다.

모형 4에서는 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좋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통제한 이후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학업무기력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적 관계가 일정하다고 할 때,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은 더 높은 편이었다. 모형4에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량이 0.034.에서 0.27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다른 변인들보다 사회적 관계가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았다.

모형 5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시기의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모형으로 각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시기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부모양육태도나 친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관계는 코로나시기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시기와 교사관계의 상호작용은 .103이었는데, 주효과모형에서 교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고

려할 때,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 교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코로나 전후 학업무기력 변화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절편	1.877*** (.009)	1.870*** (.010)	1.855*** (.011)	1.887*** (.010)	1.890*** (.010)
코로나시기(이후=1)	.074*** (.011)	.087*** (.015)	.106*** (.015)	.051*** (.013)	.048*** (.013)
학년	.077*** (.011)	.090*** (.015)	.090*** (.015)	.049*** (.013)	.045*** (.013)
코로나시기(이후)×학년		-.026 (.021)	-.024 (.021)	.002 (.018)	.008 (.018)
성별(여)			.012 (.011)	.029** (.009)	.028** (.009)
부모학력(년)			-.022*** (.003)	-.020*** (.003)	-.019*** (.003)
가구소득(백만원)			-.024*** (.003)	-.012*** (.002)	-.012*** (.002)
부모양육태도				-.446*** (.012)	-.452*** (.016)
교사관계				-.141*** (.011)	-.189*** (.015)
친구관계				-.107*** (.010)	-.114*** (.014)
코로나시기×부모양육태도					.016 (.024)
코로나시기×교사관계					.103*** (.021)
코로나시기×친구관계					.014 (.021)
성명량(R2)	.011	.011	.034	.270	.273

위 분석 결과 중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주효과),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관계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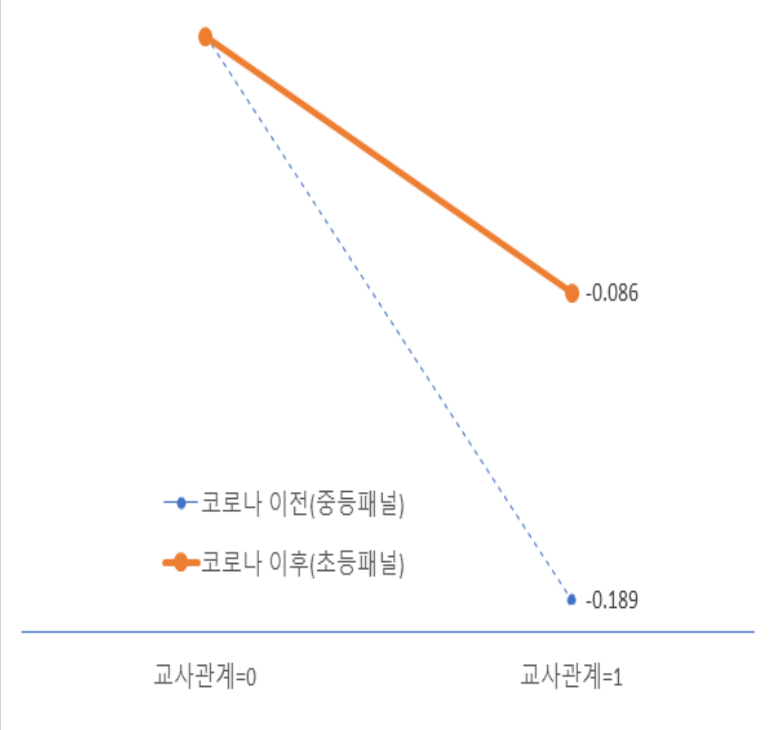


그림 2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관계의 영향력의 변화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 중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했던 두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코로나 전후의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학생특성과 가정환경, 부모, 친구, 교사 등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특히 이들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코로나 전후에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전후 중학교 1~2학년의 학업무기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중학교 1학년에 비하여 중학교 2학년의 학업무기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이전(중학패널)과 코로나이후(초등패널)에서 모두 공통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권미나, 이진수, 2022; 노언경 외, 2022)와 일치하며,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2병 현상과도 일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은 학교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교과별 등급점수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업적 좌절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2시기에 겪는 학업스트레스와 성적은 학업무기력의 원인이 되어(강혜원, 김영희, 2004; 김진아, 2022) 높은 학업무기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이후에 중학교에 입학한 집단(초등패널)의 학업무기력이 이전 시기에 중학교에 재학했던 집단(중등패널)보다 학업무기력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코로나 시기 학생들은 휴교 조치로 인한 불규칙한 일상생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친구와의 교류 감소로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은 바 있으며(서미 외, 2021; 정익중 외, 2020), 이러한 현상이 학업무기력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는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교사관계와 코로나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였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학업무기력의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문은식, 배정희, 2010). 다만 여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부모양육태도나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학업무기력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여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관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등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도 높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중학생의 학업무기력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가정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과 관련하여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진아, 2022; Huang Xin, 신태섭, 2021).

이들 사회적 관계 관련 변인 중 교사관계는 코로나시기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관계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다소 달랐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교사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교사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후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코로나 전후의 교육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학업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는 학업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역량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기 어렵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것에도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동일한 학생들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된 급격한 변화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패널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중학생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고등학생이 된다. 이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는 생애사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발달단계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겪은 개별적인 코호트를 비교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시기를 코로나 이전에 겪은 코호트(중학패널)와 코로나 이후에 겪은 코호트(초등패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만 이 방법도 제한점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호트 비교에는 3년간의 연도변화에 따른 차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에 전반적인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 19이후 가속화된 학업무기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학업무기력이 높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학업무기력이 이후의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학업적 성공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이 그렇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나듯이 가정환경이 우수할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이는 가정환경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학업무기력에 차이는 없었으나.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남녀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여학생의 경우 학업무기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모관계와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 사회적 관계가 좋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즉,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먼

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일상 활동에 규칙과 의미를 부여해줌으로써, 자녀의 학업무기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늘리고 함께 여행을 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등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우관계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둠활동이나 다양한 교내외 단체 활동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예방해야 한다. 교사관계 역시 학업무기력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므로, 학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효능감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 중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후에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휴교상황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여 교사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즉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교사의 영향이 미칠 여지가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3년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한계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와 사회가 정상화 된 이후 동일한 학년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추후 연구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대한 코로나시기 및 학년의 영향에 대하여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미애, 남성욱(2020). 코로나 19로 인한 쌍방향 원격수업에 관한 연구: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들과 FGI 질적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89-116.

강혜원, 김영희(2004).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883-897.

권미나, 이진숙(2022).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청소년학연구, 29**(5), 87-108.

권현주(2023). 중학생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부(2020).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가이드라인. 서울: 교육부.

김민희(2007).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아영, 주지은(1999).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9**, 157-176.

김영희, 강혜원(2005).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1-16.

김혜진(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613-639.

김희수(2006).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4**(2), 77-93.

노언경, 송주연, 우연경(2022).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전이 양상 및 영향요인 검증: 1-3학년 간의 변화. **한국교육학연구, 28**(1), 67-90.

문은식, 배정희(2010). 학습사 및 사회적, 동기적 변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24**(1), 183-205.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박성희, 김희화(200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3), 159-182.

박수현(2011). **중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과 귀인성향 관계에 관한 통합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미, 이자영, 김신아, 편여울강, 김지혜, 정송호(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철균, 위은주, 안영은(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학교 교육격차 분석: 등교일수 및 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9**(5), 47-71.

손유나(2022).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 및 사회적 위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안태용(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및 부정적 부모 양육행동, 과외 학업스트레스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29**(4), 133-160.

원혜미, 이수연 (2016). rebt 미술치료가 여고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8), 326-335.

임경희(2004).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과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2), 473-507.

장수연, 정제영(2020). 교사 및 친구 관계, 그릿, 학업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1**(4), 203-234.

이보람, 이은별, 송무석(2023).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경험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32**(2), 99-115.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준희, 김시현(2021). 코로나19 시기 수업 운영 현황과 과제: 교원이 인식하는 어려움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8**(4), 395-424.

임인숙, 장진아, 홍옥수 (2021). 코로나 19 상황이 과학탐구 수업에 끼친 영향: 과학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현장과학교육, 16**(1), 45-58.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2016).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5), 31-65.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0).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최현정, 이동귀(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6(2), 189-205.

한희진(2022).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379-391.

하아영, 조한익(2021).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 영향요인 분석. **중등교육연구, 69**(3), 299-330.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2021). **202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Critique and Reform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Akca, F.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learned helpless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9*, 101-112.

Hiroto, D. S., & Seligman, M. E. P.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11-327.

Huang Xin, 신태섭(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학생 관계, 자존감 및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2**(1) 163-198.

Miller, I. W., & Norman, W. H. (1979).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A review and attribution theory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86*, 93-118.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코로나19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와 영향요인’에 대한 토론문

최효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학업무기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업무기력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동의하면서, 궁금한 점,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발달단계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겪은 개별적인 코호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행 추세 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본 연구에서는 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 및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많은 분석 방법 중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이유, 이중차분법의 특징 등을 제시해 주시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적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초등패널 2,176명과 중등패널 2,420명 등 총 4,596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결측치 처리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그대로 사용하고 ‘거부’, ‘강요’, ‘비일관성’과 같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문항은 역코딩하여 총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차별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위 요인 그대로 모형에 투입하거나, 긍정적 양육태도

와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분해서 투입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 연구자께서 밝히고 있듯이, 중학교 2학년은 학교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교과별 등급점수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업적 좌절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중2 시기에 겪는 학업스트레스와 성적은 학업무기력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모형에 학업성적과 관련된 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업성적을 모형에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에서는 학업무기력을 16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2개 문항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 문항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업무기력이 능동수행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속변인을 하위 요인별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 중 하나는 학업무기력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인 부모양육태도나 친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는 반면, 교사관계는 코로나시기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논문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두 분 연구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친구 관계의 조절 효과

정형수*·양정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학생의 학업에 대한 통제신념 결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친구 관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생 학생까지의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조사한 4차년도 자료 중 중학교 학생 총 2,384명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은 여학생인 경우 높고, 가구 소득과 긍정적 친구관계와는 부정적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는 긍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향력 파악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여학생과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이 높았고, 가구소득과 친구간의 긍정적 관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은 낮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후속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거부적 양육 태도, 학업 무기력, 긍정적 친구 관계, 중학교 1학년 학생, 조절효과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jyang@skku.edu

Ⅰ.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가정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이라 칭하며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이도희, 조민호, 2017).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하는지, 또는 인지·정서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자녀의 평생에 걸친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 생활 습관 및 행동 양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아동기의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델링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최병연 외, 2022; 조연희, 이주연, 2015).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적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부모의 양육 태도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대하는 보편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차한솔, 이호수, 김주일, 2019), 애정, 온정, 허용, 수용, 거부, 통제, 방임 등 부모의 성향과 가정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김영숙, 조한익, 2017).

그리고 부모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느냐는 자녀의 인지·정서·사회적 성장과 학교생활, 나아가서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애정, 사회적 지지, 포용 등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 학습 동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 삶에 대한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수준이 직접적으로 높아지거나 학습 동기가 향상되어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영애, 2014; 송미라, 권예지, 김봉환, 2017; 조연희, 이주연, 2015; 차한솔, 이호수, 김주일, 2019; 홍미현, 장성숙, 2015).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거나 낮추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 및 친구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학생의 삶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성연, 신소영, 2021; 권오용, 이수진, 2018; 김종운, 이우주, 2021).

그러나 부모가 방임,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 양육 태도에 노출된 자녀는 내면적 성장이나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등이 저하되고 협동심, 친구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비행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 등 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박영숙, 유주영, 2022; 백승아, 구본용, 2018; 이임숙, 홍상황, 2015; 2018; 임다혜, 김춘경, 2023; 주영선, 정익중, 2020).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학생의 학업 열의를 낮추고 학업 무기력에 빠지게 하여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계환, 2022).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학업 및 친구 관계, 그리고 건전한 학교생활 전반을 위해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교육 당국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대상의 심리·정

서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여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9.4.1.).

그러나 긍정적인 양육 태도의 중요성과 교육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기는 쉽지 않다. 부모는 그들이 성장해온 환경이나 현재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수 또는 기타 여러 요인으로 부모는 부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다(박영신 외, 2020; 조규영, 안민순, 어용숙, 2010).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양육 태도의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개선될 수 없는 것들이다. 예컨대, 부모가 성장해온 환경에 의해 형성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부모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현재 가정의 경제적 문제 역시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한 번 형성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가정에서 부모의 이러한 부정적 양육 태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자녀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학업과 생활 등 삶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학교나 교육 당국 등 누구도 부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그들이 언어적·신체적 폭력과 같은 법률로 규정하는 아동 대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 차원의 자녀 양육 관련 학부모교육이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역시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 당국이나 학교가 강요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학교는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갖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홍보 등 현행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되,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즉, 학부모교육과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모들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학생의 친구 관계이다. 발달 단계상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중학생의 시기는 부모보다 친구 관계를 중요시하고 친구 관계를 통해 자아개념의 형성, 사회성과 도덕성 발달 등을 이루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하는 경험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송영명, 이현철, 2011; 신명희 외, 2021; 허승희, 이영만, 김정섭, 2022). 학생들이 친구 관계에서 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은 학생의 자기효능감이나 학업열의, 학업성취도, 행복감, 삶의 만족도 등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남지영, 정혜원, 2021; 배현민, 배천웅, 2018; 염혜선, 신이나, 2020; 임현정, 김종민, 2016). 그리고 학생들이 학업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주거나 학생의 위축성이나 외로움, 사회적 불안감,

우울감을 낮춰주기도 하는 등 학생들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이나 정서를 상쇄해서 학업 무기력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김정숙, 이주선, 금창민, 2022; 문수연, 강지현, 2013; 신유림, 2015). 그리고 이러한 친구 관계의 형성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만, 부모 외에도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나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한 사회적 지지 등으로 형성된 긍정적 자아개념에 의해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교사의 노력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 있다(송영명, 이현철, 2011; 허승희, 이영만, 김정섭, 2022). 즉, 학생이 가정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경험하고 오더라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의해 형성된 긍정적 친구 관계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 의한 학생의 학업 무기력을 개선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친구 관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와 긍정적 친구 관계가 학생의 학업에 대한 무기력(통제신념 결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나.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와 학업에 대한 무기력(통제신념 결여)의 관계에서 긍정적 친구 관계는 조절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부터 4차년도까지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조사한 4차년도 자료 중 중학교 학생 데이터이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생 학생까지의 데이터는 결측값을 제외하고 남학생 1,278명(53.6%), 여학생 1,106명(46.4%)으로 총 2,384명이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친구 관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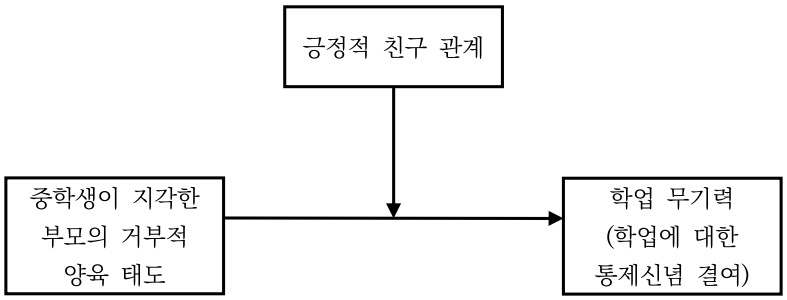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3. 측정 도구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4차년도 자료 중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 관련 변수 4개이고 변수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리고 각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런 편이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 3학년 기준 Cronbach α는 .807였다.

표 1. 독립변수 구성(거부적 양육태도)

순	내용
1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2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3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4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와 같은 데이터의 학업 무기력 관련 변수 중 학업에 대한 통제신념 결여 관련 변수 4개이고 변수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각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런 편이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 3학년 기준 Cronbach α는 .849였다.

표 2. 종속변수 구성(학업 무기력 - 통제신념 결여)

순	내용
1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	공부를 잘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같은 데이터의 친구관계 관련 변수 중 긍정적 관계 관련 변수 8개이고 변수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그리고 각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런 편이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 3학년 기준 Cronbach α는 .858이었다.

표 3. 조절변수 구성(친구 관계 - 긍정적 관계)

순	내용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본 연구의 세부 최종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4와 같고, 성별은 남학생은 1, 여학생은 2, 월 평균 가구소득은 1은 소득 없음, 2는 100만원 미만부터 각 100만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12는 1,000만원 이상, 그리고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전체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의 평균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4.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생 학업 무기력 변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자녀 학업무기력(중3)	2384	1.901	0.581
자녀 학업무기력(중2)	2325	1.901	0.560
자녀 학업무기력(중1)	2384	1.790	0.585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중3)	2384	1.831	0.622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중2)	2325	1.826	0.620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중1)	2384	1.764	0.623
친구 긍정적 관계(중3)	2384	3.051	0.459
친구 긍정적 관계(중3)	2325	3.079	0.490
친구 긍정적 관계(중3)	2384	3.111	0.534
성별	2384	1.460	0.499
월 평균 가구 소득	2380	6.730	2.162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전체(중1-3 평균)	2384	1.807	0.445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7.0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우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점수를 산출하고, 주요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학업에 대한 통제신념 결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친구 관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중학생 학업 무기력 추이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통제신념 결여)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변화 추이 분석 및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친구 긍정관계 변수 중에서 친구 긍정관계는 3점대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교 1학년에 비해서는 중학교 3학년때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학업 무기력과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는 중학교 1학년때는 1.7점대 였던 것이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때는 1.8점과 1.9점대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학생 자신의 학업 무기력과 학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중학교 학년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이 느끼기에 부정적 측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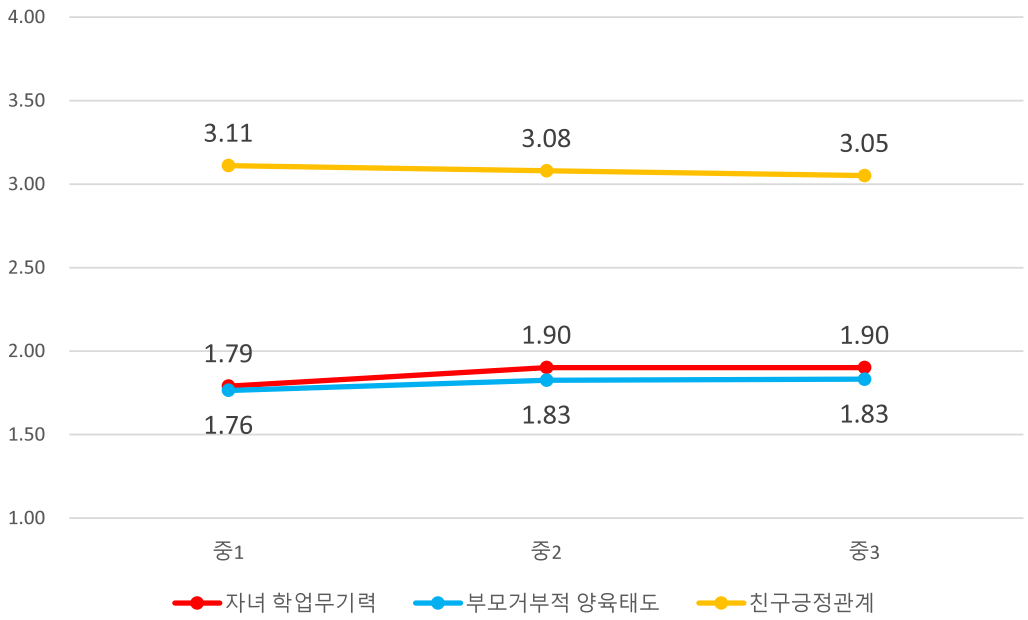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생 학업 무기력,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친구 긍정관계 변화추이

또 중학생 학업 무기력과 성별,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전체 중학교 3년간 변수가 긍정적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인 경우에 남학생보다 학업 무기력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녀도 학업 무기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높거나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업 무기력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생 학업 무기력 상관분석 결과

	자녀 학업무기력 (중3)	성별	월 평균 가구 소득	친구 긍정적 관계 (중3)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전체 (중1-3 평균)
자녀 학업무기력(중3)	1				
성별	.072**	1			
월 평균 가구 소득	-.132**	-.065**	1		
친구 긍정적 관계(중3)	-.193**	.088**	.044*	1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전체 (중1-3 평균)	.334**	-.001	-.128**	-.184**	1

2. 중학생 학업 무기력 회귀분석 결과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통제신념 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학생 개인의 배경변수와 친구 긍정적 관계, 그리고 학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전체 중학교 3년간 평균이 학생의 학업 무기력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은 여학생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인 높을수록 중학생 학업 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일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학업 무기력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생 학업 무기력 회귀분석 결과

모형	자녀 학업무기력 모델 1				자녀 학업무기력 모델 2			
	회귀계수	표준 오차	t	유의수준	회귀계수	표준 오차	t	유의수준
상수	1.373	.062	22.084	.000	1.921	.098	19.627	.000
성별	.075	.022	3.379	.001	.090	.022	4.064	.000
월 평균 가구 소득	-.024	.005	-4.718	.000	-.023	.005	-4.541	.000
친구 긍정적 관계 (중3)					-.175	.024	-7.197	.000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전체 (중1-3 평균)	.318	.018	17.762	.000	.295	.018	16.385	.000
조정된 R^2		.136				.153		

특히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학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친구 긍정적 관계가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은 학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강할수록 더 높게 되지만, 중학생이 친구와 긍정적 관계를 갖게 되면 학업 무기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비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있더라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간의 관계자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은 감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에서 자녀교육 및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적게 기울이거나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을때에는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때로는 서이초등학교 사태처럼 학부모의 지나친 자녀의 교육에 관심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 학부모라면 어느 정도로 자녀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무관심한 부분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업의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만약 학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

면, 어떤 영향이 자녀인 중학생에 있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학업 무기력은 높아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이런 가정이나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중학생 간의 긍정적 친구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4차년도 종단 자료중에서 중학생 관련 데이터를 통해 학부모와 자녀의 학업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패널조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변수를 활용해서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비록 자녀의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더라고 학교안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학교의 효과 및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9.3.29.). 학부모는 처음이라, 궁금할 때는? 학부모온(On)누리.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7720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권성연, 신소영(2021). 청소년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존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제연구, 34(4)**, 47-74.

권오용, 이수진(2018).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까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의 비교. **21세기사회복지연구, 15(2)**, 1-24.

김영숙, 조한익(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1(3)**, 529-561.

김정숙, 이주선, 금창민(2022). 중학생의 친구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도와 삶의 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825-839.

김종운, 이우주(2021). 고등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자기조절능력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395-409.

남지영, 정혜원(2021). 중학생의 친구 및 교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279-1298.

문수연, 강지현(201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질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6)**, 3323-3339.

박영숙, 유주영(2022).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76**, 121-145.

박영신 외(2020). 양육태도의 세대 간 전이: 원가족 부모가 성인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6(3)**, 729-756.

배현민, 배천웅(2018). 고등학교 신입생의 또래애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5(1)**, 79-93.

백승아, 구본용(2018).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6(1)**, 125-146.

송미라, 권예지, 김봉환(2017).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교육연구논총, 38(1)**, 109-133.

송영명, 이현철(2011). 한국 청소년의 교우관계 결정요인 분석: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91-112.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서은희 , 송수지, 원영실, 임호용(2021).

교육심리학(4판). 서울: 학지사.

신유림(2015). 아동의 위축성과 외로움 및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친구관계의 중재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53(6)**, 667-675.

염혜선, 신이나(2020).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또래관계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학업적 및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성취목표와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3)**, 823-845.

윤영애(2014).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3-148.

이도희, 조민호(2017). 경영교육, 밥상머리교육에서 시작하다: 주관성연구, Q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영교육연구, 32(2)**, 161-182.

이임숙, 홍상황(2015).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3)**, 315-336.

임다혜, 김춘경(202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의와 협동심의 병렬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2)**, 623-633.

임현정, 김종민(2016). PLS-SEM을 적용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성취, 친구관계, 자아개념 및 행복감 간의 관계 탐색. **교육심리연구, 30(2)**, 447-468.

조규영, 안민순, 어용숙(2010).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2)**, 136-143.

조연희, 이주연(2015).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3(1)**, 61-74.

주영선, 정익중(2020). 지역사회 범죄 수준과 부모 양육태도가 비행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1(2)**, 179-204.

차한솔, 김주일, 이호수(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최병연, 고영남, 조형정, 박용한, 이신동(2022). **최신교육심리학(2판)**. 서울: 학지사.

허승희, 이영만, 김정섭(2022). **교육심리학(2판)**. 서울: 학지사.

홍미현, 장성숙(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성격유형의 조절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6**, 1-23.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친구 관계의 조절효과 ’에 대한 토론문

한수경
사이버한국외대 객원교수

부모는 자녀가 출생 후 최초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고, 이들과의 관계는 사회관계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녀와 학부모 모두의 심리적 소진, 물가 상승,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학부모들은 과거보다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도록 하여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녀에게 표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녀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학생은 학업과 생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물질적·정신적으로 회복의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와 학업 무기력이 동반 상승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또래와의 관계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시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함께 긍정적 친구 관계에 관심을 두고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업 무기력과 친구 관계의 조절 효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학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학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의 대안을 모든 학생이 언제든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연구에서 학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를 상쇄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친구 관계는 학교 속에서 학생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또래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긍정적인 친구 관계의 조절 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학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교 현장에서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면 첫째, KCYPS 데이터에는 학업 무기력 변수에 통제 신념 결여 외에 학습 동기 결여, 긍정 정서 결여 등의 다른 변수도 제시되어 있는데 통제 신념 결여만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서론 부분에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긍정적 친구 관계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연구의 서론에도 언급하였듯 친구 관계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간,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시작되어 중학생이 된 시점까지 최소 13년 이상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로부터 받은 영향을 상쇄할 만큼 학교에서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학생의 학업 무기력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외에 사회·경제적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을 통해 연구의 치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분에서 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보다 상세히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은 어디서 제공할 수 있을지, 긍정적 친구 관계를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로 자립심이 커가는 시기이다. 스스로 내재적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 방법을 익히는 방법을 코칭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 무기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만하다.

◎ 참고문헌

· 정세원, 장유나, 홍세희(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 무기력의 관계 :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7(3). 205-229
· 이은서, 정혜원(2022).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885-870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th Conference on 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